

너나들이

남학생들도 꼭 읽어보세요!

준비 1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4. 1. 17.



뉘어둔 그 웃음이 얼마나
채였길래
주워담지 못할 몸짓을
그리도 크게 터트리니?
그래
이제는
진짜 아름다운 여성이니까

☞ 너나들이란?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
여러분들과 여학생회가 너나들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소식지 준비호의 이훈
으로 지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치룬 기말고사를 뒤로 하고.
시작된 겨울방학도 벌써 한달이 넘어갑니다.
여느 때보단.
포근한 날씨가 겨울이면 으레껏 움츠려드는 몸을.
기지개 펴게 하고 있습니다..

방학.

새해 알차게 보내고 계신지요??

저희 여학생회는.
얼마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모여 활기찬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에 창간될 소식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이 준비 1호도 냈구요..
처음이라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른 아량으로 깊이있게 읽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남은 방학기간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길 기원하며.
항상 저희 여학생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94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김경명
부회장 고경아



ㄱ ㄱ 그동안 이렇게 살았대요!! ㄱ ㄱ

- ☞ 과 여대표님(?)에게 연하장 띄움
(고분자공학. 환경공학. 컴퓨터공학. 물질화공. 섬유공학. 정밀공학. 전자공학. 공업화학.)
- ☞ 총여학생회 운영위원회
— 12월 7일. 12월 26일. 1월 6일.
- ☞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7일. 1월 6일.
- ☞ 총학생회 간부 일꾼 수련회
— 12월 21일. 22일.
- ☞ 공과대학 간부 일꾼 수련회
— 1월 7일. 8일.
(교수 학생 간담회 - 여학생회 휴게실 비품과 화장지.패드. 자판기 설치 요구. 공대본부와 지속적인 논의중)

☒☒ 이사간데요 ☒☒

여학생회실과 휴게실이 현재 3층 도서관 앞방에서
2층 공과대학 학생회실 옆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일: 1월 20일 목요일... 많은 관심 바랍니다.)

ㄱ ㄱ 그리고 이렇게 살거예요!! ㄱ ㄱ

- ♣ 1월 17일 : 새내기 정체 확인
- ♣ 1월 20일 : 여방 이삿날
- ♣ 1월 21일 : 총여학생회와 간담회
- ♣ 2월 1일 - 3일 : 예비대학(총학생회. 공과대학.)
- ♣ 2월 14일 - 16일 : 등록기간
- ♣ 2월 17일 - 21일 : 수강신청기간
- ♣ 2월 22일 - 24일 : 전남대학교 전체 간부 일꾼 수련회 예정

ㄱㄱ 공과대학 여학생회 예비대학도 한데요!!!

→ 소중한 우리의 대학생활에 대한 경험을
귀여운 새내기들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될것입니다. 엄청난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어머! 참!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여학생회 화이팅!!!

☘☘ 쉽게 읽는 이야기 女性史(1) ☘☘

다음은 원시시대와 고려시대 여성들이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주 창생의 어머니’ 원시 모계 여성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이 제사를 주관하였으며, 무속신앙에 나오는 산신, 삼신, 풍신, 용신, 태양신도 여성이었고, 신라의 일급 호국신인 중 나림(奈林), 혈예(穴禮), 골화(骨火)의 세 산의 신도 여성이었다. 또 삼신 할머니, 청실홍실 할머니 등의 이야기는 원시시대에 씨족 내의 대소사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전해준다. 제주도에 전해오는 한 민담은 당시 사람들이 여성을 우주 창생의 어머니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옛날 선분대 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얼마나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쳤다 한다..... 이 거파(巨婆)는 ‘성산봉을 빨래 바구니로 삼고 소섬을 빨래돌로 삼아’ 빨래를 하고 치마자락에다 흙을 담아 나르다가 흙이 새어 오늘의 소화산을 이루기도 하고 옥지에 다리를 놓아 주기도 하고 주먹으로 봉우리를 쳐서 움푹 패이게 하거나 오줌을 누어 흙이 떠내려가 섬을 만들기도 하는 등 우주 창생의 어머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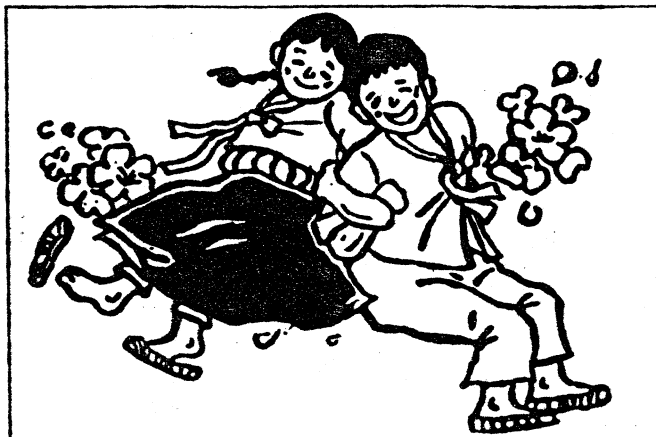
《한국 민담 속의 여성 원형상》 이부영, 민음사

자유스러웠던 고려시대 여성

고려의 여성들은 여름이면 시냇물에 들어가서 남녀 구별없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였고 절에도 마음대로 갔으며 관희(觀戲)같은 구경거리가 있으면 귀천을 막론하고 이른바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질 수 있는’ 풍토였으므로 마음대로 어울려서 구경도 했다. 그러므로 여자의 재혼도 별로 흥이 되지 않았었다. 고려는 ‘정절 숭배’ 풍토가 아닌 이상, 처녀들의 자유 연애가 지탄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위치에서 본다면 「고려가요」의 주제가 남녀의 사랑에 기울어 있다는 사실은, 고려가요를 전승해온 주역들이 기생들이라 해서 반드시 그들만의 작품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한국여속사》 김용숙, 민음사

★☆☆ 예고 : 준비 2호에서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여성을 점점 심하게 움아맨 규범들과 차별받는 여성의 여러 모습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함께 고민하는 마당 ◎

민족의 생명줄 쌀!!!

얼마전 어떤 책자의 표지에서, 4-5천년 전의 볍씨 화석을 본 기억이 난다.

그 사진 속의 볍씨 화석은 마치 어린 시절 시골고향의 향수같은 것을 느끼게 했다.

이렇듯 쌀은 우리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근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쌀이 수입된다고 한다.

농민들은 분노했고 아니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심지어 농민들은 자식같이 소중한 길러낸 쌀가마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쌀이 수입되면 우리 농촌은 망하게 된다. 결국 몇년 후면 쌀을 수입해서 먹게 될 것이고 미국이 아무리 쌀을 비싸게 팔아도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먹을 수밖에 없다.

즉, 쌀의 수입은 식량의 무기화를 초래할 것이고, 결국 곡물대국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측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뿐만 아니라, 쌀이 수입되면, 국민 건강 또한 위협받게 된다.

미국쌀은 대량생산 과정과 그 운반과정에서 우리쌀에 사용되는 양의 수십배에 달하는 농약과 방부제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요즘 식수오염으로 우리는 건강걱정을 뛰어넘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하물며 쌀까지 수입되면.....

쌀이 수입되었을 때의 폐해는 이외에도 수십가지이다.

지금, 쌀과 기초농산물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범대위)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쌀개방 반대에 나서고 있고, 우리 청년학생들도 반대투쟁에 힘차게 나서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싸움, 절대로 저서는 안 될 싸움, 온 국민의 힘을 모아 기어이 승리하고 쌀수입개방 저지하자!!!

국민은 국민투표를

국회는 국회비준 거부

정부는 재협상을

쌀수입개방 저지하자!!!

공트르 읽는 여성학 강의(1)

== 닭 쫓던 개 ==

곰핍어 되새겨 생각할수록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었다.

아암,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아직 백년은 더 고생해야지. 시거든 뭇지나 말아야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인 주제에 여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 멸망하는 그날까지 너희는 세계 최빈국의 딱지를 떼지 못할 걸, 호응!

김사장은 석간을 덮었다. 조간에서 보았던 기사가 석간에 그대로 실려 있었던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처지에 대통령 자리를 여자에게 갖다 바친 방글라데시 어리석은 국민을 그는 한껏 비웃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싶었다. 생각해보라고, 필리핀의 아키노, 파키스탄의 부토, 인도의 인디라 간디, 하나같이 뗏국이 질질 흐르게 못사는 것들일수록 화를 자초해서 여자대통령의 치마 밑으로 숨어든다니까. 그러더니 이젠 그 옆쪽에 있는 방글라데시까지 물이 들어서.

작년 일본 총선에서 사회당의 도이 당수가 선풍적 인기로 일본 전역을 휩쓸 때 김사장은 잠시 눈앞이 아찔했었다.

아아, 드디어 일본의 시대는 가는구나! 일찍이 게이샤(기생)로 널리 알려진 일본여성의 그 나긋나긋하고 순종하는 이미지는 어디 가고 서늘하고 지적인 눈매의 여성 정치인이 기염을 토하며 세계를 뒤흔들다니.

김사장은 그때 이러다간 아시아 전체가 치마자락 속으로 안겨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위기감마저 느꼈다. 그러나 그건 기우였다. 김사장의 예견대로 부토는 실각했고 간디 여사의 실정으로 인도는 휘청거렸으며 목하 아키노 여사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이 아닌가.

한국여자들이 그런 점에서는 참 기특한 면이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 편이었다. 읽지도 쓰지도 셈하지도 못하던 여자들이 오십년 남짓 교육을 받더니 학문, 예술, 법조, 기술 등의 전문분야로 눈부시게 진출하여 심지어는 남자를 능가하는 성과를 얻어낸 건 자존심이 몹시 상하기는 했지만 그다지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었다. 그런 여자들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정치일선에 나서서 떠들지 않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 정도의 교육인력과 실력축적을 가지고도 어느 여성도 지역구에 출마하여 남자를 제치고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으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건 얼마전 A일보가 창간기념으로 실시한 생활지표 여론조사가 명쾌하게 수치와 그래프로 보여주지 않았던가. 한국의 자동차 제조 기술이 140%라면 여성의 정치 참여도는 0.2%로 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것이다.

하모, 그 기특한 현상의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칠거지악 삼종지의를 여자의 금과옥조로 가르친 조선왕조의 탁월한 정책과 우리 땅을 강제로 삼킨 것은 과썸하기 짝이 없지만 일본군국주의가 여자를 사람의 반열에 끼워주지 않았던 점이지. 그리고 또오

김사장은 그 다음말은 차마 내심이나마 말할 수 없었다.

하모, 일본놈 밑에서 공부하고 그 습관을 그대로 배운 우리 군사독재도 그만 못지 않게 여자를 우습게 여겼거든.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였제. 공부하고 예습하고 돈버는 일이라면 몰라도 정치를 내줄 택이 없었제.

바로 그점이였다. 일년 내내 김사장을 고심하게 했던 문제가 어이없게도 쉽게 풀린 건 순전히 그 덕분이였다. 김영옥 부장이 국장승진을 코앞에 두고 그녀의 맞수인 이부장이 국장으로 승진할 걸 불보듯이 흰히 알면서도 사표를 낸 건 국장자리가 바로 회사내 정치국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간파했던 그녀의 영리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느모로 보나 여자인 것 빼고는 이부장보다 훨씬 유능했던 김영옥 부장이 쉽게 그런 결론을 낸 건 좀 애석한 일이지는 했다. 김사장은 퇴직금만큼의 액수를 더 배려해줄 작정이였다.

정치만은 아직도 신성불가침의 남자들 고유의 영역임을 상기하자 김사장은 어쩐지 기분이 느긋해졌다. 승용차는 어느 새 집앞에 당도해 있었다. 그는 정원을 거쳐 현관으로 들어섰다. 자동인형처럼 뛰어나와 반겨야 할 아내는 무슨 일인지 소파에 앉아서 신문에 몰두해 있었다. 김사장이 안방으로 들어가 평상복을 갈아입을 때까지도 아내는 신문지 위에다 시선을 꽂은 채 못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었다. 김사장은 의아한 눈으로 아내를 쏘아보았다.

“뭐하고 있어, 지금. 하늘 같은 서방님이 오셨는데.”

“하늘이고 땅이고 간에 여보 이걸 보셨수? 내일 조간이 일찍 나왔길래 한 장 사왔더니.....”

“뭐가? 김일성이 죽기라도 했어, 아니면 마릴린 몬로가 살아나기라도 했단 말이오.”

“김영옥 부장 말이에요. 서울시 광역의회에 출마했구려.”

김사장은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된통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열이 빠져서 김부장이 어느 당 공천인지 또는 시민연대회의의 후보인지 물어볼 기력조차 없이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성차이와 성차별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말을 흔히 한다. 이 말은 원래 남녀의 역할과 사는 모습이 다른 것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녀는 본래 다르기 때문에 여자는 다소곳하게 집에서 남자의 시중을 들며 아이를 돌보며 남자는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남녀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불교 교리에서처럼 태어나기 삼천년 전부터 다르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나 불평등한 관계는 이룰 수 없다는 사고방식, 그 통념은 올바른 것일까?

역성과 남성이 다르다고 할 때 그 내용은 체력과 체력의 차이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기질의 차이를 말한다. 남녀는 신체적으로, 기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역할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때 다르다는 것은 '남성의 우월'을 은연중에 포함하고 있다. 여자와 남자는 체력과 체력에서 차이가 난다. 남자가 여자보다 몸집이 크고 근육이 발달하여 완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또 남자는 여자보다 달리 뛰고 멀리 던지고 더 무거운 것을 들어올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보다 강하고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근육의 힘이 체력에서의 우월을 가리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여자는 근육보다 피하지방이 발달하였고 지능력이 강하며 추위에 더 오래 견디고 적외력도 오래 생존할 수 있다. 체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면 여자와 남자보다 우월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체력의 성차를 다질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인간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육체의 힘, 근육의 중요성은 약화된다는 사실이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할 현대의 인간사회는 육체적 힘의 강약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결정하는 동물세계를 벗어났다. 따라서 남자와 신체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남녀는 다르게 태어나서 역할도 다르다는 인색은 성차를 근거로 성차별을 합리화시키려는 것이다.

《물한모금 쪼아먹고
하늘한번 쳐다보고》

준비2호를 기대 해

주 세 요 =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여학생회
(062) 520-7459

너 나 드 이

준비 2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4. 2. 15.

풀잎은 그냥 풀잎으로만 살아서
우리들 가슴에 초록빛 싱그러운 희망이 되어라
먼 훗날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나는 풀잎처럼 살았노라 자랑스레 말할 수 있게
늘 푸르고 단단한 뿌리내려
이 땅을 가득 채우거라



☞ 너나들이란?

“터 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

여러분들과 여학생회가 너나들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소식지 준비호의 이름으로 지어 뒀습니다.

새내기들의 함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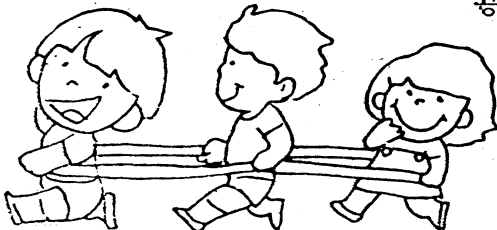
온 학교가 떠들썩하던 예비대학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개강준비에 바쁜 학우들의 발걸음으로 학내에 활기가 넘
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새내기들의 합격을 축하드리며
이 새내기들의 함성으로
선배님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긴 겨울방학.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희 여학생회도 열심히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나들이 준비 2호를
여러분께
내 보이면서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소식지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기에
정감어린 눈으로 속속들이 읽어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다시 시작될 새학기에 활기찬 강의실에서
만나뵈겠습니다.

여학생회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공과대학 여학생 회장 김경명
부회장 고경아

여학생회는요!

ㄱㄱ 그동안 이렇게 살았대요!! ㄱㄱ

- ☞ 1월 17일 : 신입생 합격자 발표.
- ☞ 1월 20일 : 여학생회실과 휴게실 이사.
(5호관 3층 도서관 앞방에서 2층 공과대학 학생회실 옆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고 편안하게 쉬 수 있는 여러분의 방입니다)
- ☞ 1월 21일 : 총여학생회와 간담회.
(총여학생회와 항상 함께하는 우리)
- ☞ 1월 29일 : 공과대학 여학우 예비대학
(공대 여학생이 된 이쁜 새내기들과 재학생들이 어우러져 걸판지게 놀아 본 하루였습니다)
- ☞ 2월 1일 ~ 3일 : 공과대학 예비대학
- 이제 나도 대학생,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
(새내기들의 호탕하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돋보인 예비대학이었어요)

ㄱㄱ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ㄱㄱ

- ☞ 2월 18일 : 환경정리의 날.
(썰렁한(?) 여방과 휴게실이 새단장을 한대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지요?)

공 특 종

공과대학 전체 여학우 수련회

여학우들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여학생회 주위로 묶여 하나되는 우리를 위해 여학우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 누 가 → 공대 여학우면 몽땅 다
- ♣ 연 제 → 2월 25일 ~ 26일 (1박 2일)
- ♣ 어디서 → 월출산
-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쌀
- ♣ 참가비 → 미정(가게에는 큰 부담 없음)
- ♣ 주 최 → 공과대학 여학생회

기회는 단 한번!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나의 예비대학

행동파 지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화학공학과 새내기 김 유경

삶엔 연습이 없다고 그랬다. 하지만 대학은 연습이 있었다. 비록 사흘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좋은 경험이 된 예비대학.

“이제 나도 대학생, 이제 난 어떻게 살지” 하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이 됐다.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심어주려 분주히 뛰어다니는 선배들의 모습에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젊기에 가능성이 있고 젊기에 반성하되 후회는 하지 않고 젊기에 행복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그 젊음의 중심, “대학”에서 내 삶을 창조하기 위해선 자신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진리(?)까지도...

행동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이라는 것. 이것이 새내기인 내가 예비대학에서 건진 소중한 진리이다.

끝으로 남에게 뒤지지 않는 대학 4년을 위해 열심히 될 것을 다짐한다.

공대 여학우 예비대학을 참가하며...

환경공학과 3학년 곽 은숙

아침 일어났을 때 어제 저녁부터 고민하고 고민하던게 머리를 아프게 했다.

약간은 가슴 두근두근하고, 사실 작년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배들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줄까? 생각하다 보니 머리에 주름살도 늘어나고 얼굴에 여드름도 왕창 생기는 기분이었다.

아침부터 온 눈이 감갑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여·방에 들어선 나의 마음은 약간의 불안감-선배들 쪽수의 부족에서 오는-뿐이었다.

한두명씩 들어오는 새내기 얼굴에서 나도 몰래 반가워하는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공대 2호관 옆에서 하던 즐넘기는 잊지도 못할 것 같았다. 모두 다 들어선 줄안에서 땅을 박차고 뛰는 그들과 나는 하나였다. 나도 몰래 외쳐지

는 하나, 둘 소리를 앞으로 공대 여학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 같았고, 거기에서 얻은건 하나됨의 느낌 하나뿐인것 같았다.

개와 고양이처럼 항상 으르렁거리던 사람들도 한번 티격태격 싸우고 나면 죽마고우이상의 우애를 가진다고 한다. 인간 김밥말이며 하루동안이지만 지낸 새내기 후배들과의 만남은 잊지 못할 것이다.

수진(산공과)아, 네 모습에 신경쓰지 말고, 네 외모는 내가 좋아하는 Style이잖아. 열심히 살아라. 좋은 여자친구 많이 사귀고 남자 친구도 많이 만들어라.

자신있게 살아야지 않겠니?

하나되는 우리

이것이 지난 1월 29일 재미지게 치러낸
여학우 예비대학의 기치였습니다.

항상 나.너 라는 말 보단
'우리' 라는 개념으로
새내기와 선배가, 또
여학생회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 쉽게 읽는 이야기 女性史(2) ♡♡

다음은 조선후기로 가면서 여성을 점점 심하게 옳아 맨 규범들과 차별받는 여성의 여러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여성(1)

조선 초에는 결혼 후 남자가 여자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는 풍속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보통 혼인 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 성장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여성들은 또한 자녀 균분 상속을 통해 경제권을 보장받고 있었다. 조선 전기 『경국대전』에 의하면 정실 소생일 경우 아들과 딸의 구별 없이 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하고 그 가운데 대를 잇는 아들에 한해서 상속분의 5분의 1을 더해 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자 형제와 똑같이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후 남편 혹은 시가의 재산으로 흡수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여성의 것으로 존속되었다. 그 재산을 처분하고 매매하는 일도 소유주인 여자가 남편의 동의 없이 스스로 했다.

이와 같이 비교적 평등하던 여성의 지위는 17세기 후반이 되자 변모하기 시작했다. 재산 상속에서도 차등을 강화시켰다. 점차 장남우대, 남녀 차별의 차등 상속의 경향이 강화되어 나갔다. 본부인의 딸이 받는 재산보다 첩의 아들이 받는 재산이 많은 경우도 빈번해 이제는 처첩보다는 남녀간의 차별이 더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가족 안에서 남존여비에 입각한 열등한 예속적 존재가 되었고, 시집을 가면 출가의외인이 되는 동시에 남편의 종속적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여성사』, 한국여성사연구회 여성분과 편, 풀빛

양반가에는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되어 여자들의 깊숙한 안채에 머물러 바깥 출입이 극히 제한되었다. 다만 피치 못할 경우에 한하여 외출시에는 반드시 하인과 동행하고, 밤이면 불을 밝히고, 얼굴을 가려야 했다. 이런 규제가 얼마나 엄격했는지는 집에 불이 났는데도 하인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타 죽은 여자가 열년전에 올랐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조 때는 과부인 어머니가 종과 간음했다고 하여 가문을 위해 어머니를 살해한 자식이 있었으며, 과부가 음행했다는 풍문을 듣고 그 친형을 비롯한 친척들이 합세하여 그녀를 포박, 돌을 안겨 강물에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자는 왜』, 서진영, 동녘

사오촌이라도 10세 후에는 한 자리에 친친말고…… 남매간이라도 잡되
히 회화마라……. 의복도 밖의 사람이 보게 말고…… 아해 손(어린
아이 손님)이라도 남자와는 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아는 사람을 보아
도 너무 익히 보지 말고, ……손을 엮보지 말며 등등.

『성호사설』, 이 익

남자가 이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성은 수난을 당했다. 일제시대의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함양의 가문 높은 김씨 종가에 시집 온 박소사란 여인이 시집 온 지 15년
만에 아들을 낳고 첫 이레가 지난 날 목을 매어 죽었다. 그 곡절인 즉 남
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알고 있던 시부모와 남편이 가계를 잇기 위
해 음모를 꾸며 “가계를 잇는다는 것은 부도의 대강이므로 욕된 일이라도
참아야 하느니라”라는 타이름과 함께 떠돌이 옹기 장수를 박소사의 규방
에 들여 보냈다. 이 종가의 며느리는 위조된 종손을 낳아 주고 자살하였
던 것이다.

『이규태 걸작 선집 7』, 이규태

冊 예고편 : 다음호에서는 조선시대 여성의 예절·금기담·양반부인의 몸가
짐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함께 고민하는 마당 □

등록금에 대하여

등록금이란 교육을 받을 목적으로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부담액을 말합니다.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료는 수업을 받는 댓가로 국가에 내는 비용을 말하며 대부분 교수의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회비는 국고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의 확충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 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돈입니다. 교육부는 1988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 등록금은 매년 7~15% 인상되고 있으나 교육환경과 여건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점점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내세워 교육비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등록금 투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교육재정확보** 투쟁입니다.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물적토대인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교육환경 조성 과 교육조건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재정의 필수조건인 **교육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며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투쟁입니다.

민족자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내용 확보(교수 공채, 교과과정 개편, 강의평가제)와 교육시설, 복지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입니다.

셋째 **자주적 학생회**를 강화시키고 청년학생의 자주성을 높이는 투쟁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조건에서 자주성을 발양시키는 청년학생의 본성적 특성상 등록금인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오는 개인 권리의 침탈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높아지며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학생회 두리로 묶이어 힘을 합해야 합니다.

넷째 학원의 **자율적 운영과 민주적 토대**를 확보하는 투쟁입니다.

다시 말해 대운협을 강화시키는 투쟁입니다.

다섯째 **기성회비의 민주적 편성과 효율적 사용**을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예산 편성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편성하고 소비성 예산·이중예산을 없애고 면학분위기 조성 과 학교의 교육환경 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투쟁입니다.

이제 우리는 등록금을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아닌 국가가 수혜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등록금 동결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민족의 생명 쌀, 민족의 혼 교육

시강개방 저지하자!

▣ 폰트로 읽는 여성학 강의(2) ▣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병국엄마는 밤새 한숨도 자질 못했다. 이제 곧 사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부부싸움이 잦아지더니 어젯밤엔 남편이 그만 가출을 해버린 것이다. 며칠째 늦은 귀가로 몇마디 쏘아붙인 게 나가버렸다. 오나, 나갈려면 나가라. 남편이라고 한 마디 나눌잠도 없이 하숙생 같으면서 월급봉투 갖다주면 다나. 문 열어 달란 소리랑 마라. 쿵쿵쿵 현관이며 창문 덧문까지 호기있게 걸어잠근 병국엄마는 남편이 칫솔이며 서류가방을 챙겨 나간 사실을 알았다.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나가버릴 수 있었던 게 칫솔과 서류가방 때문이었구나. 한 남자와 그 남자의 돈벌이 가방과 칫솔을 빼고 나면 이 집은 빈껍데기란 말이지. 병국엄마는 가슴이 콕 막혀왔다.

그야말로 미친년 널 뿔듯 아침저녁으로 허덕대던 직장생활이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노동조합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 그리 크지 않은 직장이었던지라 혼자서 별별 일을 다했다. 한타, 영타, 텔렉스에 문서수발, 사무비품관리, 우체국에 들락이는 일에서 짜모님께 자동차 배정해주는 일까지 하다보니 집안일은 말씀이 아니었다. 친정어머니가 살림을 보살펴주시긴 했으나 새끼들은 잦은 병치레에 맨날 흉강아지꼴이었고 아침에 뚫어진 스타킹을 그냥 신고 내달렸다가 저녁이면 종종대며 시장을 들러야 하는 병국엄마는 일 년에 하루도 쉬질 못했다. 아무튼 그 복새통을 치르면서 적금을 타서 집장만에 보태고 이력저력 사무실에서도 고참이 되었는데 '미스 리'라는 호칭도 별로 탐탁치 않고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게 되자 애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남편의 주장도 있고 해서 별다른 고민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미스 리는 직장을 그만 두면서 이제 미친년 같이 뭘 일이 없어졌으니 내 새끼와 살림을 새동전처럼 반짝반짝 가꿔놓고 가정의 행복함을 만끽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앞치마와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미스 리는 부엌으로 달려들었다. 풍풍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 철수세미로 박박 문지르고 꼭지둘레는 보통 수세미로 한 번 더 문지른 후에 스폰지로 비비고 행주로 닦아내면 냄비뚜껑은 새것보다 더 반짝였다. 그놈의 냄비뚜껑을 이리보고 저리보고 하노라면 팽개쳤던 살림살이에 대한 애정이 푹푹 솟아나는 듯했다. 놀이터에서 흙투성이로 돌아오는 작은 늑도 아침 저녁으로 옷을 갈아 입히고 밖에서 들어올 때마다 잡아다 손을 씻기니 새까맣던 손톱밑이 야들야들해져 남편에게 자랑시켰다가 핀잔을 듣기도 했다.

미스 리는 드디어 병국엄마가 되었다. 그런데 기대했던 가정의 행복감과는 어째 다른 것이 느껴졌다. 닭은 마루는 5분 후면 놀이터에서 돌아온 아이의 발자국에 더럽혀지고 아침나절 북북 문지른 가스렌지는 점심에 라면 한 번 끓이면 그만이었다. 아이의 옷은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얼룩

이 생겼다. 미스 리의 처음 계획이 중단되었음은 물론이요 이젠 살림살이 뿐 아니라 병국엄마 자신도 뿌옇게 때가 끼어가는 듯했다. 게다가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그 분주함의 대가로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은 남편 것이었다. 안경다리가 부러져 새안경을 맞추는 데도 먼저 남편의 양해를 구해야 했다. 내가 모르고 밟았어. 싹결로 하나 할게. 친정엄마에겐 남편 모르게 뒷돈을 드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것만이 아니었다. 직장일로 남편과 똑같이 바쁠 땐 있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났다. 병국엄마도 바쁘긴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여자를 바쁜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남편은 바쁘다고 큰소리 칠 수 있었지만 병국엄마는 그럴 수 없었다. 남편은 저 멀리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바쁘게 살았고 병국엄마는 부엌에서 혼자 종종대며 바빴다. 남편은 매일 귀가가 늦었고 일요일이면 대개 낮잠을 잤다. 병국엄마는 처자식부양에 피곤해 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어쩌지 그의 생활이 자신은 알 수도 없는 비밀에 싸여 있는 듯했다. 병국엄마는 한 달에 한 번 남편에게서 월급봉투를 받을 때마다 부부관계가 무언가 이상스럽기만 했다. 시간으로나 마음으로나 공동의 화제조차 가질 여유가 없으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는 남편에게서 돈을 받는다. 병국엄마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의를 했다. 술 좀 그만 마시고 일찍와. 애들이나 나나 당신 얼굴 보기 힘들어. 텔레비전만 쳐다보던 남편은 병국엄마가 같은 말을 몇 번 되풀이하자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누군 마시고 싶어 마셔. 술마시는 것도 근무의 하나야. 야근 끝나고 다들 한 잔 하자는 데 어떻게 나만 빠져. 줯대가 없으니깐 그렇지. 왜 남들 하자는 대로 해. 저도 이제 사십이라구. 불혹은 커녕..... 아니, 이 여자가. 마누라 새끼 먹이느라 내 인생을 거의 다 쓰고 쥐꼬리만큼 남는 시간에 피곤 좀 푸느라 술 마신다. 해장국 한 번 끓여준 적도 없으면서 그것까지 그리 불만이야?.....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되고 결국 남편은 나가버렸다.

도대체 이 집은 뭐냐? 돈벌이 가방을 틀어쥔 남자의 칫솔보관소냐? 난 칫솔보관소가 아냐..... 난 그런 대접받고 살 순 없어..... 이혼한다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병국엄마는 다시 한 번 깜짝 놀랐다. 뭘 먹고 사나? 무슨 돈으로 내 새끼들을 기르나? 병국엄마는 직장을 그만 둔 후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나라는 여자야말로 정말이지 줯대가 있거나 한걸까? 내 직업을 집장만에 몇 푼 보탠 것으로 마감하고 옷 몇 벌 사입은 걸로 만족했다니. 나는 일이 필요해. 내 손으로 내 밥을 벌게 하는 일이 필요해. 가슴을 쥐어 뜯던 병국엄마는 남편의 바쁜 생활에 자신이 과도하게 반응하였던 이유 중에는 경제적 무능력자라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도 있음을 깨달았다. 남편에게 온갖 보약을 달여주는 여자를 보면 돈버는 기계에 유지보수작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반발심이 들던 병국엄마였다. 그래서 남편에게 술국 한 번 끓여주는 일도 일부러 무시하곤 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병국엄마를 냉정한 여자로 여겼으리라. 남편의 피곤에 대한 배려는 전혀없이 월급봉투를 채가는 이기적인 여자로 생각되었으리라. 그래, 나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내 처지가 불안했던 거야. 자신감이 없는 내 생활은 자신을 괴롭혔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상처를 주었던 거야.

병국엄마는 오랫동안 외출을 하였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매처럼

지내던 미스 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병국엄마가 직장을 그만둔 후 미스 김은 큰 사업체로 옮겨 나름대로 탄탄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직 미혼인 후배에게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너는 절대로 직장을 그만 뒀선 안 돼, 절대로 안 돼.

미스 김은 몇 명의 남자들과 같이 있었다. 알고 보니 미스 김은 꽤 열심히 노조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노조의 동료들이었다. 미스 김 직장의 건물은 최신식이었고 깨끗한 와이셔츠에 세련된 색깔의 넥타이를 맨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활달했다. 겉으로 본다면야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 소위 엘리트들이라 제 멋에 겨워 살기 십상인데 조그만 안락에 자족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애쓰는 모습은 보기도 좋았다. 어젯밤의 부부사우으로 생긴 우울증이 슬며시 벗겨지면서 그런 젊은이들과 생활하는 미스 김이 부럽기도 했다. 내 남편은 조그만 지위를 얻었다고 남들 장단에 맞춰 사느라 피곤하기만 한데 이 사람들은 정말 사는 듯 사는구나. 병국엄마는 어느새 미스 리가 되어 그 젊은이들에게 물었다. 아내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내도 자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맞벌이부부지요. 사실 아내가 버는 돈은 몇 푼 되지 않아요. 워낙 인건비가 비싸 파출부아줌마 월급 빼고 나면 얼마 되나요. 그렇지만 아내도 무언가 충족감을 느끼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 아내가 없으면 아이들이나 남편은 불편하지요. 그러나 아내의 보람을 위해선 참을 수도 있는 일 아닐까요. 나는 아내가 평생토록 직업을 가졌으면 해요. 말을 마친 그 젊은 남편은 스스로의 너그러움에 무척 만족한 듯했다.

미스 리는 아! 하고 실비명을 질렀다. 내 남편이나 이 사람들이나 여자를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이 이리도 철저하단 말이냐. 그 자부심이 끔찍한 속박을 묘하게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도 모른단 말이냐. 남자가 사십이 넘으면 가장 많이 죽는다는 이 땅에 살면서도 왜 여자들과 짐을 나누어지려 하지 않을까. 가장이라는 권위가 그리도 좋은 걸까.

정신적 충족감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도 아내의 경제력은 그리 평가하지 않는군요. 육아비용도 사실은 부부공동의 비용 아닌가요? 부인께선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네 형편에선 대부분의 여자들이 일 자체의 기쁨 보단 일에서 얻는 경제적 독립에서 더 큰 자부심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사람이예요. 여자를 사랑이니 정신적 충족감이니 하는 특별한 것만으로 사는 존재로 취급하지 마세요. 여자들에게 일이 필요한 이유는 남자들에게 일이 필요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남자들은 정신적 충족감만을 위해 일합니까? 노조활동을 하신다면서 여자의 생계는 남자가 해결해주니 정신적 충족감이 일의 목표라는 논리를 펴면 여자의 차별임금을 정당화하는 사업주들을 무엇으로 반박하시겠어요? 남자들이 가정생활을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고 여자들도 경제력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하루 여덟 시간 근무와 더불어 여성에게도 동등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투쟁해보세요. 남성들은 잃었던 가정을 되찾고 여성들은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부 사이에 부자 사이에 상처주는 일은 적어질 거예요.

피곤한 미스 리가 참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병국엄마가 되는게 아니라 이

경옥 씨가 되어야 함을 깨달은 그 여자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선량한 가장 중의 한 사람인 자신의 남편에게...

◇ 생각해봅시다. ◇

여성 최고의 역할은 현모양처(?)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남성과 다르다거나 모성본능을 강조하여 여성 최고의 역할이 현모양처라고 주장하는 통념은 올바른 것일까? 남녀는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주장은 '생물학적 결정론'(biological determinism)이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즉 신체구조적 차이로 인하여 남녀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생기며 그리고 이것은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상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은 남녀의 역할을 분리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발전한 자본주의사회에서조차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여성을 가정과 모성에 한정시킨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여성을 현재 상태에 묶어놓는 생물학적 죄사슬이다. 그래서 급진적인 여성해방주의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임신과 출산이 여성 몸 밖에서 이루어질 때 여성이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주장은 임신과 출산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사소한 점에서는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이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임신과 출산이 순전히 여성 개인에게 짐지워져 있는 사회에서는 생물학적 조건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이 사회 전체의 공동 부담이 되는 사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고 여성억압적이 되지 않는다. 임신과 출산능력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할 때 생물학적 조건은 더이상 여성억압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을 생물학적 죄사슬로 만드는 사회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근 조

民族詩人 故 김 남주님의 冥福을 빕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여학생회
☎ (062) 520-7459

너 나 들 이

창간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4.

이제 이런 여인이고 싶네!

나면서부터 웃목으로 던져져 버린 이층 석자.

허려한 자본시장에

상품으로 팔려워진 곳곳한 순경

착취에 한걸 더 착취를 받는 식면지 조국이라면

이제는 내 손으로 당당히 찾아오겠네. 온몸에

감긴 더러운 굴레 당당히 끊고 오겠네



이제 이런 여인이고 싶네!

갈라진 하늘 아래, 갈라진 그리움

오뉴월에도 서리를 내리는 간절한 연원이 되어

분당된 조국 산천 곳곳에

지천으로 피어나는 너도 나도

눈부신 통일꽃의 꽃이고 싶네. 진정 이렇게

아름다운 이땅의 딸이고 싶네.



너나들이는요... !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과 여학생회가 항상 너나들이가 되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준비1,2호를 내보내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던
너나들이 창간호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봄!!
새로운 학기가 시작을 했구요.
이제 저희 여학생회도
바쁘게 달려온 방학을 정리하며
여학생회의 1년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뜻으로

여러분의 요구를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 다짐을.....

이 너나들이도 항상 매달 기다려지는
친근한 벗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계속되는 쌀과 등록금-요구안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더 드높여야 할 이 시기!
특히나
꽃가루에, 환절기에 이래 저래 건강을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힘있고 활기찬 봄

맞이하세요.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김경명
부회장 고경아

학생 히 는요!!
어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 ◆ 2월 25일 ~ 26일 : 공대 여학우 전체 수련회
— 많은 수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워크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 ◆ 3월 첫번째 주 : 여학생회와 여학생 휴게실 환경정리
— 깨끗하고 따뜻한 여방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여학우 여휴는 58-224
- ◆ 3월 17일 : **입방식**
- ◆ 3월 14 ~ 20일 : 페미니즘 영화제
— 흔히 접하기 어려운 좋은 영화를 보여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 3월 23일 : **공학대회**(공과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 학생회, 여학생회의 1년 사업과 정책, 그리고 청년학생으로서의 우리의 자세에 대한 대표자들의 역면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 ◆ 3월 28일 : 제 1차 공과대학 여학생회 운영위
— 10개 과의 여대포넛들과 첫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여학생회와 여학생부 이야기, 그리고 코스모스 체전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대포넛들 하이팅!!
- ◆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는 각각 공대, 총여 운영위가 있는 날입니다.
- ◆ 격주 월요일 6시에는 공대 여학생회 운영위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거예요!

▶ 3/4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8	29	30	31	1	2	3
		백만학도 총투표일	전학 대회	←한총련 대의원대회→ (부산대)		
4	5	6	7	8	9	10
←코스모스체전→				←해오름 한마당→		범민족대회
				←동맹휴업→		
11	12	13	14	15	16	17
모로코 의정서 합의일						

- ☞ 3월 30일 → UR 4.12 의정서 채택 및 국회비준에 관한 입장을 묻는 한총련 백만학도 총투표일
- ☞ 3월 31일 → 건설 민족대학! 실현 조국통일!
전학대회(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5시 대강당
- ☞ 4월 1,2,3일 → 한총련 전체 대의원 대회(부산대)
 - ▷ 한총련 대의원이란? 각대학 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총예협장, 동아연맹회장, 각 당대 회장으로 이루어진 한총련 최고 의결기구
- ☞ 4월 4,5,6일 → 코스모스 체전
 - ▷ 여학우는 신족구와 당체중년기 경기가 있습니다
- ☞ 4월 7,8일 → 해오름 한마당(진군제)
- ☞ 4월 8,9일 →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하는 동맹 휴업
 - ▷ 싸수입개방을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학생 총파업일
- ☞ 4월 9일 → 범국민대회(싸수입개방을 저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한데 모아봅시다)

▶ 죄송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영화상영을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올바른 문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VTR실과 영상기 문제로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본부 고무과, 학생과와 논의 중입니다만, 부득이도 이번 달에는 영화가 상영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학생회는 왜 필요할까요?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장에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 봐도 그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게 되고, 그 무리가 큰 단위가 되었을 때는, 그 한사람 한사람의 이해와 요구를 더 잘 받아 성원 모두가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표체와 대표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학생회 또한 그 대표체의 하나입니다. 바로 학생회는 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학우들과 함께 같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과, 단대, 총학 나아가서는 남총련, 한총련이라는 우리의 자랑스런 학생회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회가 우리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왜 따로 여학생회가 또 필요할까요?

시대가 변화하고 흐를수록 학우들의 학술에 대한 요구나 문화적 요구 등 다양한 요구들이 생겨나고 이를 함께 하기 위해 더 많은 모임(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학우들은 자기 존재적 특성에서 기반한 요구들을 받아 안지 못한 채 학생회의 주인으로 나서며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소극적인 삶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학우 개개인의 문제일까요? 나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관점으로 여학우들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첫째, 여학우들의 수동성과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길들여진 교육의 굴레를 하루 아침에 벗어 버릴 수 없기에 여학우들이 자주적 주체로 서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러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이데올로기 속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주저하고, 제한받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아픔인 것입니다.

둘째, 객관적 조건 속에서 여학우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딸로서, 밖에서는 식민지 조국을 살아가야 하는 여성으로서 이런 객관적 조건 속에서 여학우들은 활동하는데 많은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학우들의 존재적 특성에 기반한 요구들을 받아안고, 그 문제점들을 — 결코 혼자 해결하거나,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 같이 해결하며 스스로 소극성을 벗어던지고, 학생회의 올바른 주인,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여학우들을 세우기기 위해 여학생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학생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공대 여학우 전체 수련회에 다녀와서

0 첫째 말 '여학생회 수련회' 를 다녀와서

환경공학과 2년 신은영

여학생회가 다시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인 수련회를 떠날 때 내 마음은 이랬다. “여학우들끼리 가는 수련회인데 얼마나 재미있을까?” 350여명이라는 수많은 여학우들이 다 함께 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금치 못하며 황금마차에 몸을 실었다. 소수 정예부대로 온 만큼 월출산까지 가는 차 속에서 스테레오 게임등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민박집에 도착한 우리는 여장을 풀고 바로 모꼬지에 들어갔다. 몇 안되는 코스이고, 조교들도 잘 알고 있는 선배들이었지만, 우리는 모꼬지를 통해서 서로간에 쌓였던 벽들이 허물어짐을 느꼈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새내기들에게는 조금 힘들었다는 모꼬지를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들어와서 맛있는 저녁식사를 만들었다. 그 다음날을 위하여 반찬을 아끼느라고 고추장에 밥을 비벼드시던 총여회장, 학술부장 언니들에게는 정말 미안했다. 사실 다음날엔 반찬이 남아 돌았거든.

배불리 식사를 하고 조별로 모여 ‘혼전순결, 여성흡연, 올바른 연애관’이란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의 장을 열어갔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신나는 뒷풀이 시간엔 ‘여학생회 수련회’를 축하해주려고 오신 공과대학 부회장님의 멋진 춤과 총여 회장님의 그 우아한 춤(?)이 우리를 너무 즐겁게 만들었다. 놀면서 날을 새자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들 잠이 들고, 모두가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이튿날 누군가 흔들여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더니 아니! 이럴 수가 웬 남정네(공대부회장님)가 내 품에 안겨자고 있는 게 아닌가! 부회장님은 장가 다갔다.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다가 공대부회장님 이랑 한 술밥(사실은 누룽지)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월출산 등반을 하러 떠났다. 전날 과음한 탓인지 속이 무척이나 안좋아서 가는 길에 몇번이나 내려가버릴려고 했는데, 현미가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들어서 짜뭇짜뭇 끝까지 올라갔다. 구름다리까지 도착했을 때의 그 희열이란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었다.

구름다리까지 올라가서 먼저 온 학우들과 합류한 우리들은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올라가는 길은 무척 힘들고 고달프더니만 내려오는 길은 그다지 힘들진 않았다. 다만 암벽에 설치된 난간을 잡고 내려오면서 ‘숫다리의 슬픔’을 느꼈을 뿐.

미리 내려온 사람들이 지어 놓 맛있는 밥을 먹고서 다시 황금마차를 타고서 학교로 돌

아오는 길에선 다들 피곤한지 차속에선 잠자는 분위기였다. 나를 비롯한 몇몇 팔팔한 사람들만 노래를 부를 뿐.

이번 수련회 기간동안 우리를 인솔하느라 고생한 경명, 경아 언니에게 무척이나 고마움을 느끼고 수련회를 통해 느꼈던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0 둘째 말... 구름다리를 향해

환경공학과 2년 신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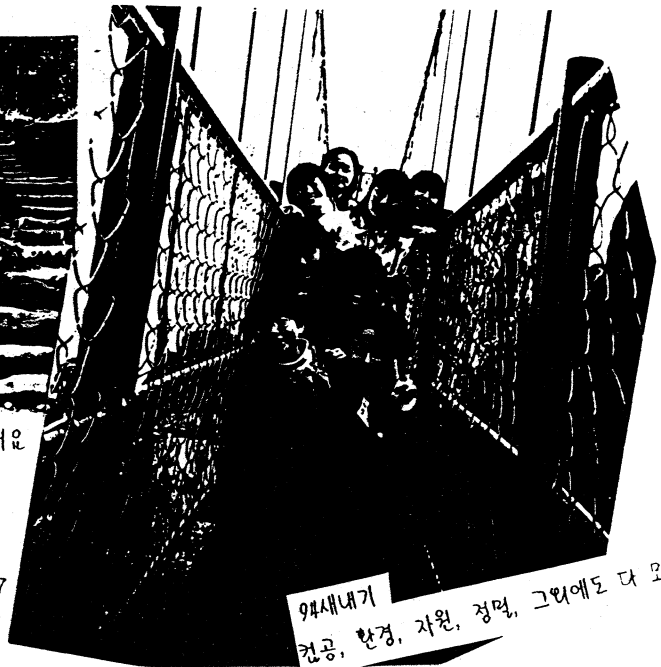
『여자들끼리 무슨 재미(?)로...』 하는 게 나의 처음 생각이었다. 거기다 그 엄청난(?) 참가인원은 가기도 전부터 맥이 풀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애써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며 드디어 월출산으로 출발했다. 뒤에서 가축적인 분위기로 놀며가는 동안 앞에서 경명이 언니는 멀미를 하느라 혼났다고 한다. 희노래진 얼굴로 웃으면서 여기저기 분주히 굴러다니는(?) 언니의 모습에 감탄 반 웃음 반으로 월출산에서의 새날을 시작했다. 모꼬지때 은근 쓸쩍 우리를 굴리는 원경이 언니와 채희 언니에 대한 원망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처음 만들어진 여학생회에 당찬 기상이 샘솟는 것 같았다. 반찬을 아끼기 위해 고추장만으로 대접을 해드린 총여 회장언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는 맛있는 반찬에다 엄청 잘 먹었는데 ...

놀고 웃고 떠들면서 밤을 새우자 다짐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고요함을 맞본 우리들은 이른 아침 일어나기 싫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서로서로 붙잡고 월출산을 더듬기 시작했다.

평지도 제대로 못 걷던 은영이는 거의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겨우겨우 따라 올라오더니, 내려갈 때는 정말 굴러간건지, 어쩐건지 엄청 잘 내려갔다. 귀여운 자식! 못올라갈 것 같았던 그 산을 우리는 올라갔다. 만약 남자애들과 같이 갔더라면 더 나약해진 여학우들의 모습을 봤을텐데 하는 생각에 정말 이 수련회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모꼬지를 받고 월출산을 등반했던 우리의 기상과 용기가 영원히 여학생회와 함께 하길 다시 한번 기원한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수련회에 함께 했어
어! 난 안나왔잖아?
자속, 넌 그때 자고 있었잖냐!



94새내기
건공, 환경, 자원, 정맥, 그럼에도 다 모이

① 쉽게 읽는 이야기 여성사(3) ① ~~~~~①

다음은 조선시대 여성의 예절, 금기담, 양반부인의 몸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로선 정말 이런 시대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한 말 속에서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 조선시대 여성의 밥먹는 예절

- 共食(함께 밥 먹을 때)할 때 배부르게 먹지 말 것
- 손으로 먹지 말 것
- 밥을 수저로 짹짹 눌러 먹지 말 것
- 밥을 젓가락으로 헤쳐 떠먹지 말 것
- (국같은 것을)소리내고 들이마시지 말 것
- 찍찍 소리내어 먹지 말 것
- 뼈(魚肉)를 깨물지 말 것
- 고기를 한 번 이로 베어 먹다가 도로 그릇에 넣지 말 것
- 뼈를 개에게 던져 주지 말 것
- 자기 앞의 것을 주로 먹고, 멀리 손을 뻗쳐 집어 오지 말 것
- 밥을 흘리지 말 것
- 국 건데기를 건져(젓가락으로) 먹지 말 것
- 남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국에 간장을 쳐서 간을 다시 맞추지 말 것
- 이 쭈시지 말 것(남 보는 데서)

☞ 양반부인의 행동거지에 대한 글

- 가려워도 굵지 말며
- 큰 기침 하지 말며
- 기지개 켜지 말며
- 코 풀지 말며
- 침 뱉지 말며

☞ 여성에 대한 옛말

“여자와 소인은 가까이 하지 말라.”
“여자가 밤에 세수하면 곧보 신랑에게 시집 간다.”



“여자가 머리를 빗으면 근심이 생긴다.”
 “여자가 밤에 거울을 보면 호랑이를 만난다.”
 “눈 멀어 삼 년, 귀 먹어 삼 년, 병어리 삼 년.”
 “여자가 말 많으면 과부가 된다.”
 “여자가 휘파람을 불면 팔자가 사납다.”
 “첫 손님이 여자면 그 날은 재수가 없다.”
 “정월 초하룻날 여자가 들어오면 일년 내내 재수 없다.”
 “여자와 북어는 사흘 걸러 때려야 한다.”
 “여자는 사흘을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여편네 아니 걸린 살인 없다.”
 “여편네 셋이 모이면 접시구멍 뚫는다.”
 “여자 열이 모이면 쇠도 녹인다.”
 “여자 말은 잘 들어도 패가하고 안 들어도 망신당한다.”
 “계집은 상은 들고 문지방을 넘으며 열두 가지 생각을 한다.”
 “계집이 늙으면 여우가 된다.”
 “남자는 씨요 여자는 밭이다.”
 “첫 과일은 여자가 따지 않는다.”
 “치녀는 무화과 열매를 먹지 않는다.”
 “계집 입 찬 것.”
 “여자 말씨는 팔자가 세다.”
 “여자 뺨씨는 팔자가 세다.”
 “여자 용씨는 성질이 흉악하다.”
 “여자 나이 삼십이면 눈먼 새도 돌아보지 않고, 여자 나이 사십이면 장승도 돌아보지 않는다.”

☺ 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맞게 한번 고쳐봅시다.

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첫 손님이 여자면 그 날은 재수가 없다. → 첫 손님이 여자면 그 날은 물건 잘 팔린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구멍을 뚫는다. → 여자 셋이 모이면 내일의 새 바람을 일으킨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라 등

♣ **예 고** →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쉽게 읽어보고,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우리나라 여성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좀더 진지하고 깊이있는 여성사를 통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형성되어 왔고, 과연 여성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북한 핵문제를 볼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세계 경제체제의 블럭화와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이다. 지금까지는 북한과 미국이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으면 남한정권과 일본이 찬물을 끼얹는 형태가 반복되어 왔으며 지금은 전쟁분위기까지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동북아, 그것도 한반도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겠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 공황에 놓은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 회생의 사활적 지역이 이곳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에 불황이 오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세계는 블럭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동유럽을 통해 EC로 태평양을 지나, 북미 남미지역까지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인 동북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곳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동북아 그 중에서도 두만강 개발지역의 수익성이다. 이 지역은 UN에서 UNDP로 지정한 세계 유일의 21세기 사업이다. 시베리아와 만주의 풍부한 지하자원, 중국과 북한의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이 만나는 지역으로 상주 인구만도 3억이 넘는 숫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어떻게든지 이복과 수교를 맺어야 함과 동시에 한반도를 계속 갈라놓고 이남에 대한 우위권을 장악하여야 한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은 계속적으로 조-미회담을 진행하였으며 또 한쪽으로는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이남정권에게 무기를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그럼 남한과 일본은 왜 계속 대화진행을 가로막고 있는가?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의 세력을 대륙으로 뻗어내려 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먼저 북한과 수교를 한다면 두만강 개발지역의 참여가 막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두나라 간의 협상에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정권은 1년간의 개혁성고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쌀수입개방으로 민중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김영삼은 통일과 탄압이라는 이중구조 정책을 쓰고 있다. 분명 북한과 미국은 특사교환이 조미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나 김영삼과 일본은 특사교환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담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북공세를 펼쳐내었다.

미국도 이것이 분단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북이 이에 반발하자 T·S 훈련 재개,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주한미군 증강 등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원래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 땅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T·S 훈련을 영구 중단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조미 3단계 회담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2만 용봉학우는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깨나가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야 한다.

제 2의 보은이 「애리」 를 아십니까?

지난 1월 15일 우리는 김보은 사건에서 받았던 충격을 다시 한번 느껴야 했다. 또 다시 폭력가장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양애리양(인제대 미생물 92학번) 사건] 이 바로 그것이다.

▶ 사건 개요

◆ 사건 이전 상황

양애리 학우의 어머니 정순희씨(42세)와 아버지 양용학씨는 1973년에 결혼, 76년부터 아버지의 주벽과 도박이 심해지면서 어머니에게 온몸의 상처와 칼자욱(팔에 6센치정도)이 남을 정도로 상습적 폭행을 가해 왔다.

어머니는 힘든 생활 속에서 자식들의(애리와 동생 건우) 장래를 위해 참고 살아 왔으나 알콜 중독 상태의 아버지는 식칼을 들고 다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애리, 건우에게까지 구타를 가했고 92년 8월 어머니는 집을 나와 서울 이모님댁으로 피신하고 동생 건우도 고등학교 1학년때 학업을 포기하고 집을 나와야만 했다.(건우는 이후 외삼촌댁에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건우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아직 다리가 불편한 상태이며 애리 또한 93년 1월 구둣발로 얼굴을 짓이겨져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다.

어머니와 동생이 집을 나간 상황 속에서도 애리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가 변해서 어머니가 돌아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며 도맡아 해왔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충실한 학교생활을 해왔다.

◆ 사건 당시 상황

1994년 1월 14일 애리는 다음날이 아버지 생일이라 생일 선물을 사두고 집으로 들어갔으나 만취된 상태에서 먼저 들어온 아버지는 애리가 선물을 내밀자 '이것도 선물이나 야 XX야' 하며 애리의 목을 누르고 머리와 얼굴을 사정없이 구타하기 시작, 애리가 넘어지자 아버지는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구타할 때마다 가위나 칼을 들어 다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왔는데 애리는 아버지가 흥기를 먼저 들기전에 칼을 숨겨왔었다) 애리는 직감적으로 아버지가 찾는 것이 칼이라 생각하여 먼저 칼을 찾아 숨겨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뛰어가 칼을 찾아서 숨길 장소를 찾고 있을 때 아버지가 애리의 팔을 잡고 큰방쪽으로 끌고 갔다. 애리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르며 실갱이가 오가는 사이 아버지의 손이 칼을 잡고 있는 애리의 손을 당겨 자신의 배를 1회 찌른 뒤 "지금 이 피나는 것을 보라, 배에서 피가 난다. 내가 피흘리고 죽으면 될 게 아니냐." 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애리는 몸을 돌려 비명을 질렀고 아버지는 애리의 팔을 놓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애리의 팔을 당겨 한번 더 찌르고 쓰러졌다. 애리는 쓰러진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는 것같아 아버지를 살리고자 112에 신고했고 아버지는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

▶ **애리는 살해자가 아니라 가정폭력에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20여년간 계속 되어온 아버지의 폭력은 어머니와 동생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가정' 자체를 파괴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리가 받아왔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몸을 특치는 것에도 과민하게 깜짝 놀라며 몸을 움추려야 했고 가정에서의 고통을 마음 속에 묻은 채 태연히 학교생활을 해야했고 그래도 아버지 곁에 남아 아버지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우리의 학우 애리!!! 이번 사건은 아버지의 칼을 휘두르는 폭력을 막고자 하던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적 상황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분명히 정당방위입니다.

때문에 애리는 결코 '아버지를 살해한 천하의 몹쓸 딸' 이 아니라 20여년 계속되어온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 **양애리 사건은 가정 내 폭력이 빚어낸 비극이다.**

가정내 폭력, 특히 아내 구타(애리의 아버지 또한 아내 장순희씨를 폭행,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계속해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만성 살인적 행위가 될 만큼 심각한 범죄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폭력과는 대조적으로 가정안에서 의례히 있을 수 있는 일처럼 합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져 구타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문제로는 소홀히 취급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내 폭력에 대한 처벌은 없다. 하지만 미국, 프랑스 등 여러나라에서는 아내와 가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들이 있다.

우리나라 형법 260조 1항(일반폭행)을 보면,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타남편의 전과기록이 있어야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부부싸움이나 가정내의 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의 관점으로는 용납하기 힘든 점이 있다.

이제 더이상 가정내의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도 안되고, 이 폭력이 보호되어서도 안된다.

이번 양애리 사건도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반드시 무리석방시키고
가정폭력이 법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 고

여학생회 소모임 성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는?**

- ▶ 소식지 소모임 - 지금 읽고 있는 '너나들이'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한다.
- ▶ 비디오 소모임 - 여러 영화를 함께 감상, 토론하는 에서 문화속에 비춰지는 여성의 모습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다.

◆ **조건** : 없음 (참! 열의와 열정을 가진 공대 여학우)

◆ **기간** : 없음 (연중 무휴)

◆ **신청** : 공대여학생회실(5B-224, ☎ 520-7459)
 ☞ 엄청난 성원 바래요!!! ☜

이 달 의 도 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함께 고민해야 하는 여성문제를 다룬 책을 한달에 1~2권 쯤 소개하고자 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성 이야기 주머니 (녹두)	오늘의 여성현실과 여성문제를 다룬 37편의 콩트가 실렸습니다. 일단은 재미가 있는 콩트! 그러나 읽고나면 조금은 우울해지고, 조금은 허전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사회에서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한 현실이 여성 이야기주머니에 들어있는 콩트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닫힌 세상의 빔장을 열고, 사는 듯이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우리교육)	이 책은 여성문제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을 왜곡시키는 근본문제라는데 인식을 공유한 여성문제 전문가, 교사등이 모여 함께 쓴 글입니다.

여 고	다음호부터는 작지만 알뜰한 공간으로 취업소식탄을 만들고자 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설문내용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자신의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여학생회 (062) 520-7459
--	--------------------------------------

◁◁◁◁◁◁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1. 공대 여학생회실, 여학생 휴게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2. 공대 여학생회실에 온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면 여학생회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 ② 온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3. 여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아십니까?
4. 여학생회 소식지(너나들이)를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소식지에 대해 하고 싶은 말(넣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5. 여학생회의 행사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또, 여학생회에서 했으면 하는 행사도 적어주세요.
6. 지금 총학생회와 학생회에서는 등록금 투쟁의 일환으로 과단대 요구안을 가지고, 본부와 학생측 대표와 재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여학생회에서는 패드자판기 설치, 여학생회 물품조달, 어학 컴퓨터 특강 개최 등... 을 제기했던 것을 아십니까? 또, 그외에 함께 요구하고, 함께 풀고 싶은 사항을 적어주세요.
8. 우리 민족의 생사가 달리 쌀수입개방 문제로 한총련 백만학도 총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9. 참여하셨다면 어떤 생각으로 UR 협상과 국회비준에 관한 입장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에 찍으셨는지요?

또, 우리 여학생회가 비록 힘은 작지만 쌀수입개방반대에 작은 힘을 보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설문지를 작성하신 후 각과 여부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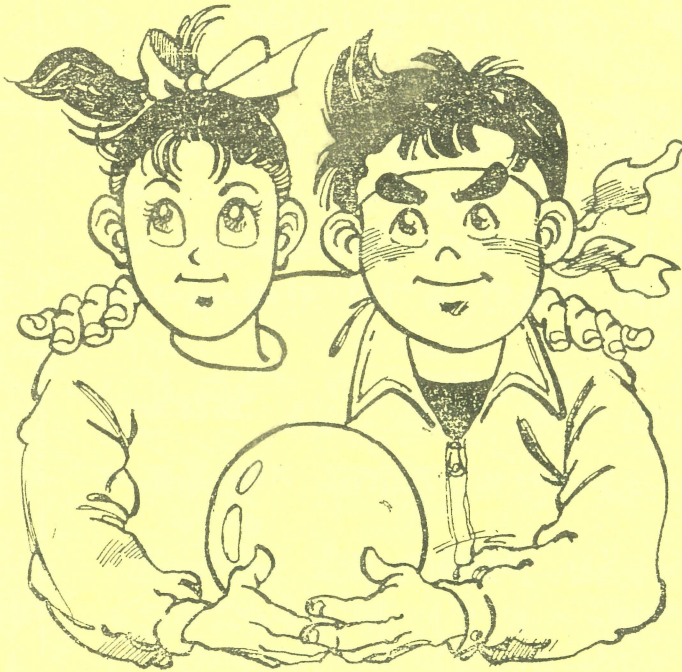
너나들이

제 4 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4. 5.

◀◀◀◀◀◀◀ 작은 꽃에도 이름 있으나 ▶▶▶▶▶▶▶▶▶▶



장미 철쭉 민들레 제비꽃 털여귀꽃
할미꽃 도라지꽃 봉숭아 노루오줌꽃
우리는 그저 꽃이다
피어남 보다도
팩임을 위해서 아름다운 꽃
바람결 같은 욕정 앞에서
쉽게 잊혀지기 위해
이름표를 달지 않은 꽃
말없는 꽃
행동하지 않는 꽃
죽은 꽃
천번 죽어도 꽃이라는데
꽃이고 싶지 않은 이들이
어스름속 지워진 이름을 찾고 있다.

【너나들이】 는요.....!!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과 여학생회가 항상 너나들이가 되면 좋겠네요!!

오월입니다.

흑자는 계절의 여왕이란 수식어로 이 오월을
낭만과 화려함의 대표처럼 포장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4천 청년공학도는
80년 5월을 잊지 않기예, 그리고 이 땅, 이 나라 사람들
내 조국, 내 민족을 사랑하기에,
이 따사로운 오월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5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은 모두가 맘놓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기꺼이 내놓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4년이 지난 지금, 그 잔인한 학살 - 우리 민중의 애국적 민주화 요구를 폭력으로 묵살한 - 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되지 않은 채, 진정한 광주민중항쟁의 의의가 조명되지도 못한 채,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때, 우리는 무관심과 관성에 젖어, 나만의 조금한 울타리 안에 안주해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 혼자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사는 이 세상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옆 사람의 손에 손을 잡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너. 나. 들. 이." 의 내용 하나 하나도 여러분의 이러한 삶에 조금한 보탬이라도 되길 바라며, 여학생회 또한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건 강 하 세 요 ...

'94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김경명
부회장 고정아

여학생의 그 동안 요렇게 살았답니다!

▶ 「쌀 수입계방 반대」를 위한 구국 단식농성

☞ 4월 11일 ~ 18일(8일간)

☞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저희 공대는 나운학 회장님과 김경명 여회장님(3일간 동조단식)이 참가하셨습니다.

▶ 총여학생회 간부학교

☞ 4월 23일

☞ 여학생회와 여성문제에 대한 궁금증, 고민을 전대의 여러 여학우와 함께 풀어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답니다.

▶ 「박승희 언니 삶 따라 배우기」 우리차 마시기

☞ 4월 26일, 27일, 28일

☞ “미국 반대, 노태우 처단, 2만학우 단결”을 외치며 지난 91년 분신 산화해 가신 故 박승희 열사의 삶을 따라 배우고, 외세 문화에 젖어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보자는 의의로 준비된 자리입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금된 돈은 지민아 학우(독문과 4년)의 수술비로 쓰였습니다.

▶ 故 박승희 열사 분신 3주기 ☞ 4월 29일

▶ 좋은 영화 함께 감상합니다. - 「노마레이」

☞ 4월 28일

☞ 함께 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는 영화! 그 첫 회로 「노마레이」를 상영했습니다. 참가율은 좀 저조했지만,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한 여성을 통해, 나의 삶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광주지역 총학생회 협의회 출범식 ☞ 5월 4일 (호남대)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 연합 출범식 ☞ 5월 6,7일(전남대)

애국하는 조직, 우리의 자랑

광주총협, 남총련이 그 출범을 알렸습니다. 그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장님-조선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지영)도 올 한해를 힘있게 열어젖혔습니다. 우리는 의장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은 깃발 프랑을 선물했답니다.

- ▶ 「청년의 심장! 애국의 약속! 그것은 참된 삶의 시작이어라!!」 승희학교
 - ☞ 5월 9일 ~ 12일(4일간)
 - ☞ 참된 삶이란 무엇인지, 역사관, 반미관, 통일관, 인생관의 강의를 통해 많이 배우고, 고민했어요.
 - “나도 이젠 자랑스런 승희학교 졸업생”

▶ 공대 여학생회, 공대학생회, 총여학생회 운영위를 통해 우리의 권리가 행사됩니다.

◎ 죄송합니다 ◎ ~~~~~ ◎

너나들이 4월호가 발간되지 못했습니다(공대 여학생회 운영위에서 결정).
 여학생회의 불찰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끔한 비판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여학우들의 더 큰 관심과 격려,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거예요!

- ▶ 5월 19일 → 故 박승희 열사 기일(3주기)
- ▶ 5월 22일 → 반미의 날
(광주민중항쟁을 폭력 탄압하기 위해 미군함이 부산항에 들어온 날)
- ▶ 5월 26일 → 좋은 영화 함께 감상합니다.
“피고인” 늦은 4시 5B-128 강의실
- ▶ 5월 27 ~ 29일 →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출범식(조선대학교)
- ▶ 6월 3 ~ 6일 → 봄농활(영광 전역을 갈고 땀겨요!)
- ▶ 6월 → 기말고사 (시험 잘 보세요!)

청년의 약속! 애국의 심장!

“우리가 무심코 보낸 오늘 하루는 열사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승희학교 교과서 표지안에 적힌 이 글귀를 다시 한 번 새기며 4일간의 승희학교를 되새겨본다.

첫날 국민학교 입학식을 방블게 하는 소란스러움과 거기에 섞여 들려오는 사회자의 목소리.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다. 입학을 축하한다는 말씀과 함께 미국반대, 독재타도, 2만학우단결을 배우자는 의미의 승희학교에서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란다는 격려로 시작됐다.

호기심과 설레임 속에서 역사관에 대해 배웠다. 갑오농민전쟁 이후 백년. 이 백년이란 세월도 현 세태를 예와 달리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 우리 민중들의 힘. 단결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과연 우리 민족이 자주적인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결림들이 무엇때문이었는가를 직시하게 해 준 내용이었다. 그러한 결림들이 사라져야 하고 사라지기 위해선 우리 민중들의 의식 속에 투철한 반미의식의 성장 그리고 그 의식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해 준 건 다음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뤄진 반미관, 통일관의 강의였다. 한 핏줄인 북한, 그러한 북한에 대해 우리들이 어릴 적부터 받아온 교육은 한 민족을 잇기 보다는 이질감을 형성, 그들에 대한 반발감을 강요당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12년이라는 학교생활을 해 왔지만 그 12년에서 얻은 것과 이번 승희학교 4일에서 얻은 것은 나 자신의 의식 속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승희학교에 다니면서 웃음과 장난 속에서 어설프게 보낸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순간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의식의 끈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있었다. 떡을 통한 통일관의 심화학습, 0 바위를 통한 우리 민족의 비과학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삶, 반미를 통한 애국의 실천. 이러한 분위기 속에 빠져들지 못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승희학교의 의의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삶에 있어서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못한 자는 용기의 차이라는 새로운 진리를 얻고 부끄럼없는 진리실천을 위해 직접 몸으로 뛰는 삶이 애국적 청년의 삶을 깨달았다.

승희학교 얘기를 몇 자 적으려다 꽤나 거창하게 말이 나와 버렸는데 가능성이 넘쳐나는 이 젊음의 한 때, 대학에 들어와 3개월이 지난 지금 그 3개월 중 4일이라는 시간이 있음으로써 자신에게 부족한 점과 필요한 점을 알게 된 만큼 거창한 말보다는 실천에 옮기는 자주적 삶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진정한 승희학교 졸업자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5. 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가 풀어야할 역사적 과제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5.18민중항쟁

항쟁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진상이 밝혀지지 않은채, 항쟁의 참된 뜻은 역사위에 복원되지 않았으며, 국민의 목숨을 살육하고 정권을 찬탈하였던 학살의 책임자들은 여전히 권력의 비호 아래 자신들의 기득권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쟁 14주기 학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1년을 앞둔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항쟁의 정신계승과 5월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함은 역사의 필연이며 시대의 요구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어느 개인 소수 지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 그리고 한반도에 민주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참다운 주체는 바로 우리 국민 모두입니다. 전 국민의 집약된 의지에 기초하면 학살의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것 입니다.

우리는, 그 잔인했던 학살의 우두머리에서 부터 행동지휘관에 이르는 35인에 대한 조속한 사법처리를 이룰 것을 조속한 사법처리를 이룰 것을 현 정권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 방법중의 하나인 고소. 고발운동에 우리의 뜻을 펼치기위해서 모두 동참 해야 겠습니다.

◆고발운동은 왜 하는가?

역사에 맡기자는 김영삼 정권만은 믿고서는 5.18 민중항쟁의 진정한 해결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해결될수 없으므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 때는 고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234조에 의거하여 전 국민적인 고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5.18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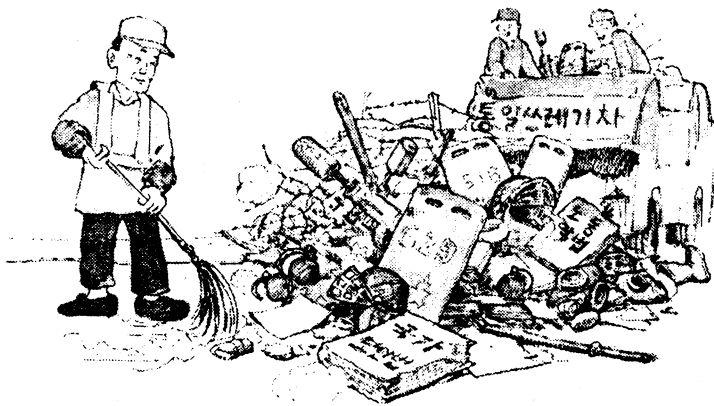
예로 일본의 경우 전 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약 30만명이 국민고발운동에 참여하여 범국민적 힘을 가네마루를 물러나게 했듯이, 이미 고소 고발되어 있는 35인에 대한 사법처리를 조속하게 실행할 것을 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학살가해자들에 대한 전국민적 고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학살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 어떤 내용으로 고발할 것인가?

1980년 5월 당시 12.12에 이어 5.17군사쿠데타를 통해 국가력을 탈취하려 했던 군부독재 세력이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진압, 차단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무고한 시민학살에 대해 형법 제87조 12호 내란 및 제88조 내란목적 살인혐의 내용을 토대로 고발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살에 대한 진상개당시 학살을 지시한 책임지휘자에서부터 광주에 투입되어 학살을 자행한 지휘간까지 총 35인에 대한 사법처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고소가 피해의 직접적 당사자에 피해 행해지는 것과 달리 고발은 객관적인 제3자가 피해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학살자의 사법처리를 회피하고 항쟁의 진상을 왜곡하려드는 이 때, 온 국민은 전국적 차원의 고발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현정권에 국민의 의지를 뚜렷이 알리고 학살책임자 사법처리를 강력히 촉구해 겠습니다.



한총련 출범식

4천만 민중과 함께 자주·민주·통일의 험난한 길을 헤치며 달려온 전대협은 90년대에 들어서며 한 단계 더 도약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의 발전입니다.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투쟁으로만 학우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생활·투쟁 모든 영역에서 학우들의 자주적인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각 학교 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되었던 전대협에서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까지를 포괄하는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한총련으로 93년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세와 군부독재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의 역사를 이어받는 동시에,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학문과 생활, 투쟁의 영역에까지 모든 학우들의 애국적 열정들을 모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이전까지 각 학교별로 따로 떨어져서 이루어졌던 '학원자주화 투쟁'을 한총련의 일관된 지도 속에서 힘차게 벌여 내기위한 '한총련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며, 전국적인 자주·민주·통일투쟁뿐 아니라 학우들의 삶의 공간인 학원을 자

주화시키기 위한 투쟁들을 계속적으로 벌여 나가고, 공동된 학문과 생활의 요구를 가지고 사회 진출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부문계열 운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러한 한총련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과 애국을 고민하며 함께하는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한총련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한총련 의장을 단과대학 학생으로까지 구성되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지만 앞으로는 백만학도 모두가 참여하는 투표 속에서 선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희망을 노래하며 조국과 함께하는 삶을 결의하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돌아오는 축제가 바로 한총련 출범식입니다.

**"자랑스런 전대협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이어
당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며 실천하는
한총련 백만 애국자 모두를 한총련 출범식에 초대합니다."**

청춘의 시절은 가장 고귀하고 힘차며 아름답다고 합니다. 인생에 단 한번 있다는 청춘의 시절이 가장 고귀하고 힘차며 아름다운 건 무엇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년의 피끓는 '애국열정'때문입니다.

그 애국의 함성이 반도 곳곳 하나로 울려퍼지는 광장이 있습니다. 혁명 광주 민족 조선대에서 열리는 한총련 출범식이 바로 그 광장입니다. 청년이 살아갈 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빛고을 5월의 하늘 아래 서로의 만남으로 애국의 인연을 만듭시다.

<p>오직 바른 길은 정의로운이다 백만청년아! 민족의 운명을 개척한 봉패의 애국대오</p>	<p>한총련의 이름으로 만나자 조국통일의 청호를 타고 아스팔트를 무등산 서석대에서 백두산 천지를 만나자</p>	<p>연 계 : 5월 27~29일 어디서 : 조선대학교 준비물 : 라이트(?)</p>
--	---	---

봄농활 기쁨서다!!!

94 봄농활(6월 3-6일)

청년의 심장!

봄바람에 실어가자!

수입개방 저지!

저 들녘으로!!

1. 94년 봄농활의 의의

이번 봄농활은 기간의 농활과는 다르다. 민족의 생명줄인 쌀수입개방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고, 국제화, 개방화 이데올로기 공세에 의해 농민에 대한 고통분담이 강요되고 있다. '이제 농사는 짓지 않겠다.'고 실의에 빠져 있던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지친 몸을 이끌고 농토로 나가는 지금 과연, 이들은 무엇을 위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업을 계속 지어야만 하는가?

이 시점에서 청년학생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7-8월에 있을 국회비준, 민족의 사활이 국회비준 거부투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했을 때, 7-8월을 준비하는 6월. 이제 쌀수입개방 저지의 선두는 바로 농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봄농활을 통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3월 29-30일 백만학도 총투표와 4월 8-9일 동맹휴업을 통해 쌀수입개방 반대의 의지를 확인했었다.

이제 청년학생들만의 투쟁이 아닌 농민과의 연대 속에서 힘있는 쌀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

2. 어떻게 봄농활을 잘 수행할까?

작년까지 농활을 수행했던 '곡성'에서 올해는 '영광'으로 지역이 재배치 되었다. 농활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광지역의 현안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현재 영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핵문제.

Green Pease 방한 등을 통해 6월 22일에 있을 영광발전소 제 3,4호기 발전 저지등 핵발전소에 대해 영광군 모든 군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바로 이 핵발전소 문제를 농민들과 얼마만큼 잘 풀어가느냐에 따라 이번 봄농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분반활동.

농촌 노동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민, 여성농민반을 통해 농촌의 여성문제, 아동문제, 농촌복지문제 등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 여성농민반의 준비정도에 따라 농활의 내용성의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봄농활의 모든 중심은 국회비준 거부투쟁, 미국 반대, 김영삼 퇴진에 맞춰져야 한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믿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성의 지위변화는 여성의 예속이 특정한 시대와 사회적 조건들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낳았다. 그러한 여성 억압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본성과 여성문제의 본질에 관한 이해와 결부되어 있으며, 나아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실천적 과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여성 억압의 근원을 찾아보자.

1. 원시시대의 여성

원시시대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화석, 현존하는 원시사회 신화나 전설 등의 연구, 분석을 통해 원시시대의 삶을 추적하고자 하고, 그 결과로 부족하지만 몇가지 공통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지식은 무엇보다도 우선 현저하게 평등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원시 공산제 사회는 단순협업적 공동생산과 공동소유를 기반으로 -잉여생산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적 소유가 없는 만큼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할 가능성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여성의 지위는 어떠했으며, 어떤 요인들에 의해 규정되었을까? 그것은 자연조건, 노동방식, 가족의 형태, 전쟁의 빈도 등에 달려있다.

수렵, 나무열매의 채취 및 원시적 농업이 주요한 생업이었고 사냥기술의 그리 발달하지 못했던 원시사회에서는 여성이 거주지 주변에서 채집노동을 담보하며 경작과 수확 등의 중요한 노동을 수행하였고, 남성은 그것을 보조하는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노동을 담당했다. 이러한 성별 분업은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임신, 출산, 수유의 모성 기능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역할 분업은 자연스러웠고 남녀의 일은 모두 대등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을 뿐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의미하는 어떠한 차별이 아니었다. 원시농경을 여성들이 주도했다는 것은 신화나 제사의식 현존 원시사회에 대한 실증적 분석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내에서는 여성의 억압과 착취를 가져오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때 여성의 지위 변화는 새로운 생산력과 분업의 발달에 따라 일어났다. 원시시대 말기에 이르자 원시 농경과 수렵 대신 본격적인 농업과 목축이 주요한 산업이 된다. 기존 수렵에 종사하던 남성노동이 전반적으로 정착화된 농경과 목축에 투입되어 목축의 담당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 노동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생산물을 산출하고도 남을 정도의 생산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에 이르렀다.

이때, 새롭게 생긴 잉여생산물은 가족의 사유재산화되는데, 가족 내에서 중요한 노동을 담당하던 남성들이 사유재산의 주인이 되고, 이러한 상황변화는 여성과 남성의 지위, 역할을 크게 변화시켰다.

최초의 주요한 교환물이었던 가족이 사유화되자 대부분의 생산도구도 사유화되어 갔으며, 결국에는 토지까지 사유화되는 급속도의 사유재산화가 부의 차이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사적 소유를 통해 경제권을 장악한 남성이 가족내의 권력까지 세습하기 위해, 부계의 확실한 혈통을 보장할 수 있는 일부일처제 가족형태가 생겨났다.— 참고 : 초기 원시사회에서는 성교에서 어떤 금기도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근친혼, 집단혼을 통해 자녀양육을 위한 부부협력에 기초한 가족형태를 낳았다.

분석해본 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요즘 학우들과 장난이 오가다 보면 불쑥 '어 삼천만원'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이 이야기가 오고 가게된 전말은 서울대 자연대 전 조교 우영은씨가 "성 희롱을 당했다"면서 아무개 교수와 서울대 총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월 18일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후 사람들 사이에 관심을 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아닌 단순한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이라는 점에서 성과점을 갖고 있지만 우영은씨가 자신의 명예와 모든것을 걸고 나섰던것에 비해서 많이 왜곡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 희롱이란 말은 미국에서 정립된 섹슈얼 해리스먼트를 직역한 말입니다.

섹슈얼 해리스먼트의 의미는 성폭력이나 성추행으로 직역되는것이 더 정확할것 입니다.

거기다,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단순한 강간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음담패설이나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이란 말이 강간으로 통용되고 있어 성희롱이란 말이 쓰인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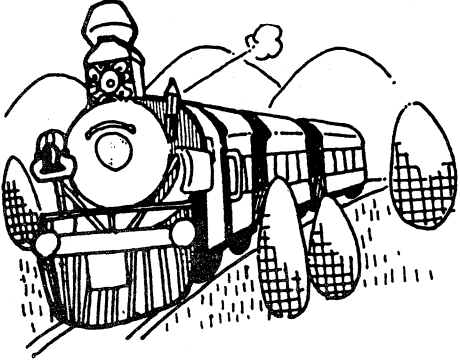
그러나 성희롱이란 말은 가해자인 남성의 입장에서 붙여진 명칭이고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희롱으로 받아들여질수 없으므로 어린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과 비유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두가 존중하는 법이라면, 개구리의 편에서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 희롱이 아닌 "성적 모욕"으로 불려져야지 좀더 정당한 표현이 될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희롱에 대한 일반형사법은 물론 "성폭력 특별법"에서도 처벌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은 현실 입니다.

이런 사건으로 우리는 그저 한여자의 성적 모욕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며 잠시후 잊혀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주적인 주체로 인접받지 못하고 성의 대상으로만 보아왔던 관념들을 모두 쓸어내린 사건이라 할수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편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3천만원>하는 장난말이라던가 무의식속에서 나오는 말을 내 벨는 것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자본주의의 그릇된 흐름에 동조하는 것 밖에 안됨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그저 한여자의 성적모욕에 대한 청구소송의 승리, 또 잠시후면 잊혀질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주적인 주체로 인정 받지 못하고, 성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의식을 고칠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일부일처제가 남성의 생산물을 상속할 자녀를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정조가 강요되었고 그 이면에 성을 상품화하는 직업적 매춘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이중적인 남녀관계를 만들어냈다.

또한 가부장제적 일부일처제 가족의 발달은 가사노동을 사적 영역으로서 사회적 성격을 상실하게 해, 여성은 사회적 생산과정으로부터 배제되기 시작했다.

예고) 다음 호에서는 고대와 중세사회 여성의 삶을 통해, 여성억압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약업사 제공 1억여원 수입료로 볼수 없

다.

--- 김영삼 대통령의 독재 아드님이 도대체 뭘 일음?

학우 여러분! 김현철씨 의혹사건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요즘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 사건의 대강을 살펴보면 '83년 한약업사 구제 위원회'의 이익을 대변해 온 정재중(51)씨가 지난 92년 대선 직전 무자격 한약업사 구제를 조건으로 전 청와대 사정비 비서관 이충범(37)변호사를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쪽에 선거 자금 1억 2천만원을 직접 받았느냐와 이 돈이 변호사 수입료인가 아닌가 하는 돈의 성격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정재중씨에 의하면 민원 촉구의 탄원서를 김 대통령과 국무총리 앞으로 보냈더니 바로 형사가 감시·도청을 하고 팩스까지 끊어 버리는 등의 보복 수사가 감행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와 민자당의 민주계는 당황하며 해명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고리로 정치 공세 수위를 한껏 높여 정국 긴장의 파고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의 정권 관련성의 성격상 야당의 국회 질의나 언론의 추적에 대한 권력과 그 주변의 이해하기 어려운 과민반응-[한겨레 신문]의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보도 요구의 중재 신청-이 돈과 인사를 둘러싼 의혹과 구설을 더욱 증폭시켜 왔음은 청와대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문제의 돈이 변호사 수입료인지 정치자금인지는 나중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그것이 어떤 폭발력을 갖는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할지 예측하긴 어렵다.

솔직히 말해, 지난 대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 문화에서 정치자금과 관련된 어두운 측면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지금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언제까지 지난 날의 "검은 정치"를 물고 늘어져 "깨끗한 정치"로의 진전을 막을 것이냐 항변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허심탄회한 청산과 반성없이 국민을 설득할 수도, 밝은 내일을 열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알아야 한다.

비리정권 김영삼정권 물러나라!!

이런 직업도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많은 고철상자에 지식을 부여하는 사람 바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는 새 정보나 통계들을 기술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계획하는 일을 한다.

프로그래머가 되려는 사람은 일단 컴퓨터에 능통해야한다. 기초 수확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있는 능력도 요구되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세밀한 관찰력도 역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운용할수 있고 자신의 취미와 적성과 실력이 맞을때만이 프로그래머의 길을 갈 수 있을것이다.

대학생이 자신의 실력으로 돈을 벌어 컴퓨터사업을 할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수입도 높고 얼마든지 창업이 가능한 엘리트들의 세계가 이 분야이다.그러나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는 여성의 수는 예상외로 적다.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여성의 일을 한단계 격상시킨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여성 빌게이츠가 되어보는 것은 어떤가!

“환경기사”

환경관리 직업이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관리 하는것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만큼 환경기사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환경기사는 수질 대기 소음 진동의 세부야로 나누어지는데 업무는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물 수거하고 점검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들의 가동 여부체크 폐기물과 같은 환경오염물질물 처리하는 일로 거의 동일하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 으로 진행되는데 수질환경기사 1급은 수질오염개론 상하수도계획 수질오염방지기술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수질환경 관계법규와 수질오염 방지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하고 대기분야는 대기오염개론,연소공학,대기오염방지기술,대기오염공정시험법 대기환경 관계법규와 대기오염방지 실무를 치르게되고 소음진동 1급은 소음진동개론, 소음방지기술, 소음진동, 공정시험법, 진동방지기술, 소음진동 관계법규와 소음진동 방지실무가 시험과목이다. 앞으로 대기분야와 소음진동 분야가 수적으로 적어 수질분야보다 유리하다.

이들이 활동하는 현장은 공해방지시설업체, 환경영향평가대행사,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독극물 제조업체등 3000여개가 넘는 환경관련사업체로 진출할수 있다. 환경보호에 관한 사외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추세여서 아직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모자라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갖고 일할수 있는 여성이 도전한다면 어느분야보다도 빨리 자신의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하다.

학내 편의 시설

아니! 우리 학교에 이렇게 좋은 곳이!!

학생 생활연구소

백도 1층에 자리잡은 학생 생활연구소를 아세요?

이런 활동을 한데요.

◆ 심리상담 : 인간관계, 학교나 가정생활에서 문제, 자신의 성격문제, 진로문제, 그리고 남모를 혼자만의 고민(?) 가까운 친구나 선배님들도 많지만 때론 그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면 생활연구소 문을 노크해 보세요.

◆ 집단상담 : 15~20명이 그룹을 짜서 자신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표현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제로 4~8회정도 토론을 하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장성수련장에서 T그룹 훈련도 한데요.

이달의 도서

내가 만난 여자, 그리고 남자.

남녀 대학생들이 여성학 시간에 제출한 단상과 강의내용을 함께 묶은 책.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보고 들은 남녀를 구분짓는 이야기들과 때로 격렬한 남녀 대립의 장이 되기도 하는 강의 풍경이 재미있게 엮어져 있습니다. 일상속에 숨쉬는 성차별들, 그리고 이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남녀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고민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강의를 통해 그러한 일상속의 차별들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이며, 여성과 남성이 함께 실천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린비」

여학생회에 대하여

지난달 「너나들이」 앙케이트에서 여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많은 여학우들이 “썰렁하다”는 답을 하셨습니다.

여방은 350여학우 모두의 방이에요. 공간시간에 와서 잠을 자도 좋고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몰려와서 밥을 먹어도 좋고, 아무도 없을 땐 조용히 독서도 할 수 있고, 잘 모르는 다른 과 여학우도 사귄 수 있고..... 여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둘이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꾸미고, 길들이는 곳이에요.

여방이 썰렁하다는 건 어찌보면 나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을 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여방을 내 방이라 생각하고 자주자주 놀러오고 아껴주고 그리고 소식지나 비디오 소모임도 관심있으신 분은 함께 참여해서 우리 따뜻한 여방을 만들어 보게요.

☺ 다음 호에 실을 한총련 출범식 소감, 분농활 체험수기를 받습니다. 소정의 투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남학우도 참여해 주세요).

좋은 영화 함께 보기

【 피 고 인 】

때 : 5월 26일, 늦은 4시
장소 : 공대 5호관 128강의실
주최 : 공과대학 여학생회 비디오 소모임
후원 : 공과대학 여학생회
가격 : 애인이랑 같이오면 기냥 볼 수 있어요.

여학생회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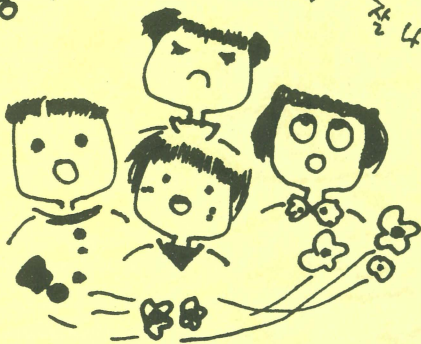
너. 나. 들이 글을 끝내고

우와 ~: 잔 !! 흥
드디어... 누고했다. 억수로~
모두 모두 너무도 고맙구나.
정말이지, 이길은 항상 즐
함께 가는 이길은 항상 즐
거운걸 같아용...?
편다... 뭘 물어봐 워대 할까나? 흥
= 돌맹 =

일학년들이 참여하여 만들어낸
첫번째. 너나들이 에요. 정말 감사하십니다.
예쁘게 봐주면 정말 전과 함께
그리고 세 옆에서 항상 감사하
흥하게 쿠판 말 오빠게도 정말 감사하
고맙단 말 하긴 했어요. - 의 전 -

우리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마감 날자다쳐 자갈차노라 뛰어다니다가 난생
 처음으로 바람을 좋아했다.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게니까
 잘 봐주세요. 기
경명이었니 두사람이 하러 가자 ~ ♪ ♪ - 가자 ~

뽕알 뽕알



국물을 헤엄쳐 다니는 명반을
경치느라 프너를 죽도 단르고 허기를
채웠다. 사원성성..
우리에 남아 있는 건 뭘까. 그걸에 첫작품 '너나들이'의
잘 나가는 기쁨을 보여줘. 아! 시~원하다.

너 나 들 이

제 5 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4. 6.



❶ 이달의 특집

- 한총련 출범식을 다녀와서
- 봄농활 체험기
- 여름방학의 효율적인 활용 (아르바이트 소개)

❷ 필착 취재

총학생회 일꾼들의 25시

❸ 고대와 중세사회의 여성의 삶

❹ 돌아온 돈키호테 김영삼

❺ 우째! 이런 일이

- 의붓딸 상습성 폭행

❻ 영화상영 ... 델마와 루이스(23일)

[너나들이] 는요... !!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과 여학생회가 항상 너나들이가 되면 좋겠네요!!

후 덥지근 찌뿌둥하게 흐린 날씨가 한바탕의 비를 선사할 것같은 오후입니다.

이제 비가 내리고 나면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죠. 거기에 발맞춰 여기 저기, 1학기를 종강하는 교수님의 목소리와 환호하는 혹은 아쉬워하는 우리 학우들의 몸짓도 보이는 듯 합니다. 벌써 천구백구십사년의 1학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간에 도착했네요.

1994년의 1학기!!

새내기 여학우 예비대학, 수련회, 입방식, 코스모스체전, 여러가지 출범식, 오월투쟁, 그리고 봄농활까지.

여학생회에게도, 3백 여학우와 함께 하는 몸부림을 위해 참으로 줄기차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삶에도 여운은 남는 것이고, 그 여운이 성과점이라면 기쁨으로 크게 받아안고, 후회라면 냉철한 비판속에 더 나은 발전을 기약하며 더욱더 가슴 깊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학생회도

이런 마음으로 성실히 1학기를 정리해 보며,

건강하고 밝은 마음으로 보람된 방학을 맞이 하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세요!!

여름방학도 보람되게.....!

'94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김경명

부회장 고경아

어학생활은요!!

그동안 요렇게 살았어요 !!

① 좋은 영화 함께 감상합니다.

☺ 피고인 ☺

- 5월 26일(木)
- 강간 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 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자신의 참된 권리를 쟁취해 나가는 과정을 실제감있게 그려나간 영화였어요.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액정이 준비되지 못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범식

- 5월 27일~29일
- 민족조선대학교 곳곳에서
- 7만여명의 한총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의 출범을 알리며 쌀수입개방 결사저지와 국회비준 반대, 미국반대와 김영삼반대를 결의했습니다.
- 애국하는 조직 한총련 이적단체 운운하는 김영삼정권 반대한다!!

① 청년의 심장! 수입개방 저지!

봄바람에 실어가자! 저 들녘으로!

봄농활

- 6월 3일~6일
- 호남벌 곳곳
- 공대가 찾아든 곳은 굴비의 고장은 '영광'. 핵발전소의 위험으로, 농업 말살정책의 시달림으로, 한층 더 깊은 주름을 간직하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에게서 아직 남아있는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회비준 저지하여 쌀수입개방 막아내자!!

① 소식지 소모임과 비디오 소모임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의 만남(공대 여학생회실에서)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함께 합니다.

관심있는 학우들의 부담없는 방문을 환영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거예요!!

— 좋은 영화 함께 감상합니다.

- ▷ 델마와 루이스
- ▷ 6월 23일 목요일 늦은 4시
- ▷ 자세한 내용은 알뜰공간을 참조하세요.

— '94년도 1학기 기말고사

- ▷ 6월 22일 ~ 28일(28일)
- ▷ 시험 잘 보세요!!

— 임시국회

- ▷ 6월 20일 ~ 28일
- ▷ 이 기간에 UR관련 협상안이 날치기로 통과될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시험때문에 바쁜 시기이지만, 많은 관심으로 쌀수입반대를 위한 국회비준 저지 투쟁에 함께 동참합니다.

☞ 국회비준 결사저지 쌀수입개방 막아내자!

— 여름농활

- ▷ 7월 1일 ~ 8일
- ▷ 자세한 내용은 소식지 4호(5월호) 봄농활 부분을 참고하세요!

보람과 건강함이 넘치는

여름방학 보내세요!!

여름방학의 효율적인 활용 아르바이트 소개

직 종	하는 일	급 료
백화점 사원	이력서 제출	하루 2 만원
관 공 서	사무, 기타잡일	한달에 30만원선
세 차 장	세차등의 일	한달에 40만원서
주 유 소	하루에 3 교대	한달에 50만원선
당 구 장	접수요원,잡일	시간당 900-1200
학원 광고지	택시비, 밥 포함	하루에 1만 7천원
팜 프 렛	아파트 주택단지에 신문에 끼워서 배포	하루에 1만 5천원
써 빙	음식점, 카페 등	시간당 1200-1500
편 의 점	계산이나 물품정리	(주)1200-1500 (야)1500
어린이 대공원 패밀리 랜드	접수 안전요원	시간당 1200-1500
학습지 강사		한달 30만원-35만원

본부에서 추천하는 아르바이는 마감됐습니다.
방학 한달전 각 과 학과실에 접수.....(직종 다양)
겨울방학때에는 놓치지 마세요!!!!

■ 자원공학과 최의진

한총련 출범식을 다녀와서!!

✧ 우리 줄곧 하나였다. ✧

컴퓨터공학과 1학년

김 소 연

5월 27일 밤. 조대 '너른 터' 앞에서 또 하나의 하늘이 문을 열었다. 밤 하늘을 수 놓은 별들 만큼이나 밝은,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수 만개의 빛들이 그것을 만들어 냈다. 어둠속에서 반짝이던 라이타 불빛들. 펄럭이는 깃발과 민중가요들 역시 칠만여 학우들을 하나로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곳에는 믿음과 신념이, 정열과 젊음이 넘쳐 흘렀다. 어떤 무지한 이가 말했다. 한국인은 모래와 같은 민족이라고. 그날 나는 한국인은 결코 모래가 될 수 없음을 피부로, 온몸으로 느꼈다. 그곳에는 '나' 아닌 '민중'이, '농민'이, '국가'가 있었다.

'한총련 출범식'. 이렇듯 그것은 '하나됨'을 시작으로 펼쳐졌다.

밤 늦게까지 계속된 공연으로 몸은 지치고 피곤했지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나에게서는 모든일이 즐겁기만했다. 다섯살 이후 처음으로 '미아'도 돼 보았고 남학생들과 섞여 '한데 잠'이란 것도 자 보았다. 거기다 우리 과 xx의 인원수 파악 잘못으로 밥이 덜 나오는 바람에 식량을 두고 피튀기는 전쟁(?)도 불사 해야만 했다. 예전엔 미쳐 몰랐다. 멸치 대가리가 그렇게 맛있는 줄을.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빗지 못 했지만 누구 하나 밉다고 홍보는 사람도 없었다. 왜냐? 자기들도 안 했으니까. (나만 안 했나??!!). 쏟아지는 잠을 견디지 못해 두 학우와 잔디에 누워 두어 시간의 낮잠에 빠져 들기도 했다. 덕분에 머리는 다 까져버렸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줄곧 하나였다.

그랬다. 강의실에서, 카페에서, 유흥장에서 우리의 젊음을 불사르기엔 우리 너 무나도 젊고 순결했다. 바뀌지 않을 결과에 대해 쓸데 없는 행동이라 비난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부당한 결과나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한 목소리로 항거하는 '장'이 없다면 결과는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나는 애국의 길이, 진정으로 민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 한다. 그러나 '나' 아닌 다른 '소중한 것'들을 위해 단 며칠이라도 보낼 수 있었다는게 더 없이 기쁘다. 자랑스럽다.

마지막까지 지켜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출범식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 너른 터를 가득 메운 불빛들을 하나이게 만들었던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나에게, 그리고 그네들에게.....

※ 진정한 우리 청년의 모습 ※

산업공학과 2학년

손 성 호

“누나, 나 내일 산업시찰 가게 됐어”. “어디로 가는데?”. “여천 석유화학 단지라나? 별루 가고 싶지 않은데……☺” 다음날 아침 나는 염치 불구하고 누나에게 산업시찰비를 좀타서 여천에 있는 조선대(?)로 갔다. 한총련 출범식을 사수하기 위해.

대학을 다닌지도 벌써 1년 반. 나는 남들에게 운동권이라 불린다(내 스스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나에겐 너무나 많은 변화와 혼돈이 있었다. 그 변화와 혼돈은 내가 ‘바라는 현실’과, 내가 ‘바라보는 현실’과의 차이때문에 오는 것일게다. 그러한 차이를 극복해 보고자 미진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도 있었다. ‘이 길이 진정 나의 길인가?’ ‘왜 나만 이래야 하는가. 다른 학우들은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등등. 이러한 고민이 쌓일때마다 고민을 해소시켜 주는 계기가 있었다. 『동병상련』이라 했던가. 그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의 으뜸은 역시 「한총련 출범식」 이었다. 전국 100만 학도의 뜻을 모아 한자리에 모인 10만 청년. 그들을 보며 나의 결의는 새로워 지고 한층 단단해져 왔다. 이제 겨우 두번째 맞는 한총련 출범식이었지만 나의 인생에 적어도 20년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올해 열린 한총련 출범식도 역시 나를 돌아보게 하였다. 항상 소수라고 느끼는 우리에게 보란듯이 정권의 탄압을 뚫고 모인 10만 학우들! 그 10만이 함께했던 군중예술! 그것이 진정 우리 청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글을 쓰며 과학자가 꿈이었다던 한 선배의 말을 되 새겨본다.

「내 나라가 식민지인데 과학자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나라가 식민지인데, 내 나라가 식민지인데……」

농활의 첫경험

환경 1 김수정

대학생활에서의 농활은 자연스러운 경험이라 생각했다. 근데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꾸려온 짐처럼 많은 동기들이 함께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영광으로, 영광으로....

사흘간의 농활을 하는 동안 고추밭에서 거의 하루종일을 쪼그리고 앉아 고추잎 따고 비료주며 삽질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그분들의 삶을, 고충을 이해하고 배워왔을까마는 내가 이 글에서 몇마디라도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했던 경채 오빠의 말이다. 전남 대학교 사학과 84학번이라는 경채오빠는 농활때 농사짓는 일이 좋아 아예 농사를 짓게 되었다. 여기저기 흙투성이인 트럭에 우리들을 싣고 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오빠! 때문에 바지, 더러워진 손톱, 나이에 비해 너무도 깊게 패인 주름살을 조금도 부끄럼없이, (너무도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간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노동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이란다. 나를 생각해봐도 그렇다. 지난 몇년을 공부한답시고 손에 물 한번 제대로 묻혀 본적 있는지, 그리고 보면 노동보다 공부가 우선되어 있고 그보다 노동은 아예 못할것으로 인식이 되어있지 않은가. 고추밭에서 일하는 동안 저편 밭에서는 원색의 옷차림을 한 꼬마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밭일을 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의 부모는 분명 경채오빠와 같은 생각이었으리라.

농활하는 동안 그곳 사람들과 함께 하기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주 빨리 일어났다는 자부심마저도 무색하리만큼 밝아버린 아침을, 부시시하지만 마냥 좋은 얼굴들과 씻고 밥먹고, 힘든일 마치고 마을 회관으로 돌아왔을때, '수고했다' 한마디, 너무도 이쁜 사람들이다, '어서 오게', '잘왔네' 맞아주는 새까만 얼굴들, 수박, 앵두, 토마토, 무화과 먹으러 다시 오라던 통다리 유미, 수줍음 많던 재안이, 마을 회관이 놀이터라시며 매일 앉아 계시던 유머가 풍부하신 할아버지, 40년만에 고향에 돌아와 새로 집을 지으시던 아저씨. 농활과 함께 떠오르는, 생각하면 스트르 웃음이 나오는 소중한 추억이다.

모두들 그랬다. 우리야 한두번하면 끝날 일이라지만 평생을 이렇게 힘든 일 하면서 살아가는건 대단한 일이다라고. 정말 그렇다. 우리야 옷에 묻은 흙, 틀틀 털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너무도 오랜 세월 묻혀온 흙이라 몸에 베이고도 남았을 그들의 삶. 이글을 쓰면서조차 나는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들의 삶을 내가 얼마나 배웠을까....

총 학생회 간부들의 25시!!

<<한국 학생운동의 '선봉 부대' 의 모습>>

어느 누구든지 한국 학생운동하면 먼저 떠오르는 주소가 있다. 광주직할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바로 전남대학교 이다. 정문을 들어서 관현로를 따라 한참을 걷다보면 4층 하얀 건물(제 1학생회관)이 있다. 이 건물 2층에 자리잡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바로 한국학생운동의 '선봉부대' 인 것이다.

자! 이제부터 총 학생회 간부들의 25시간을 훑쳐 보도록 하자.

총학생회 사무실은 크게 사무실과 생활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20여개의 책상과 걸상, 사물함 몇개, 쓰다버린 쇼파 몇개가 전 재산이다. 생활방은 잠을 자는 곳인데 각목 위에 널판지와 장판을 깔고 열선으로 난방처리한 것이 잠자리이다. 총 학생회 간부들은 이 시설에서 일년의 임기동안 동고동락을 한다.

<<일과 시작>>

새벽 6시 30분 기상!! 매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회의와 고민등으로 오늘도 역시 모두들 일어나는 모습이 거뜬해 보이지는 않는다. 총 학생회의 오늘 식사 당번은 조국 통일 위원회의 김 주신씨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식기 씻는 소리로 기상을 재촉한다.

기상한 사람들은 곧바로 대운동장에 모여 달리기로 아침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어디를 가나 볼가지는(?) 사람은 있는 법! 전날 새벽 늦게까지(5시) 회의를 한 관계로 기획실장과 투쟁국 한 간부가 끝내 일어나지 못 했다. 여름이 되어 한 낮 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초췌한 자세로 잠을 청하고 있었다.

결국 투쟁국 간부는 밥먹는 소리에 일어났지만 기획실장님은 워낙 피곤했는지 끝내 일어나지 못 하였다.

아침운동에서 돌아온 간부들은 사무실 청소와 세면을 하고 대학 정문으로 뛰어 나간다.

끝임 없는 의식화 조직화의 공간 아침 선전(8시)!!

8시 45분 예정시간보다 15분 늦게 아침조회가 열렸다. 간부들이 가장 진지한 모습을 보일 때가 이때라 한다. 평소에는 농담 따먹기(?)나 하던 간부들도 회의가 시작되면 진지해진다. 자신들의 회의 결과에 따라 전남 대학교 학생운동의 방향이 바뀐다는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안먹으면 죽는다!

아침 식사 메뉴는 맑은 미역국과 소금, 참기름, 그리고 밥. 이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투정부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냐면 불규칙적 일정과 과도한 업무, 수면 부족. 여기에 대항하는 무기는 세끼 식사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은 밥 톨 하나까지 기어이 먹는다.

누군가의 구령에 맞추어. “안 먹으면 죽는다.”

<<광주 총협과 총학생회>>

하루 종일 북적북적 하는것과는 대조적으로 바로 옆방 광주 총협은 조용하기 그지없다. 이유인즉 모두 하방(하부단위 사업점검) 나갔다는 것이다. 총 학생회에 여자 같지않은 여자가 몇 있는데 반해 광주 총협은 다르다. 사무실 분위기도 아담하고 포근하여 유치원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2층을 통털어 가장 인기있는 사람은 당연 ‘무취’ 이다. 톡톡 새는 발음하며 가장 특기할만한 사항은 “독수리 타법” 에 있다. 컴퓨터를 두 손가락만으로 치는데도 분당 200타가 넘는다.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실력파다.

<<간부들의 숨겨진 이야기>>

총 학생회 내에는 커플이 2쌍 있다. 현대 애인인지, 아는지 구별이 안된다. 데이트 좀 하려하면 “야, 누구야 이 일좀 같이 하자.” 서로가 시간이 맞지않아 눈물을 머금고 오작교를 건네 줘야만 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 중 오군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이렇다. “일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오래간만의 데이트를 여러분과 목욕 같이가기 위해서 깨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제발 봐 주세요, 주 7일 근무할게요.” 옆사람들은 눈치도 없나보다.

데이트, 생활비, 기타 여러가지 보다 훨씬 더 힘든것이 있다. 보고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리움을 간직한채 살아가는 간부가 몇있다는 것이다. 어찌다 한번 부모님께 전화드리면 야단치시기 보다 몸 걱정부터 먼저 하신다. 이런 간부들의 눈가에 스치는 그리움의 빛은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어두운 현실때문이 아닐까. 총 학생회 임기를 마치고 나서의 앞길도 큰 고민으로 다가온다. 계속 변혁운동을 하겠다지만 구체적 해답을 찾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모님이 바라는 ‘유일한 효도’ 인 졸업을 못한 사람도 많다. 이러한 고민들을 버려나가고 이겨나가는 힘은 미래에 대한 신념일 것이다. 지금 총 학생회는 국회비준 거부와 핵문제 일괄타결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조금 더 많은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

간부들의 피로를 한잔의 소주에 담으며 총학생의 하루는 저물어 간다. ▣

◎ 산업공학과 최 기자.

돌아온 돈키호테 김영삼

한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 달려온다. 한 손에는 국회비준 강행처리라는 칼과 다른 한 손에는 북핵문제, 한총련 탄압, 월드컵 축구라는 방패를 들고 달려온다. 미국이라는 말을 타고 달려온다. 돈키호테일까? 자세히 보니 어쩔시구리 032네.

민자당과 정부는 요즘 국회비준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연찮게 현재 조성되고 있는 북핵문제, 한총련 탄압, 월드컵 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문제를 민자당과 정부가 국회비준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자.

1) 북핵문제

현재 핵문제는 북한이 IAEA를 탈퇴할 것을 발표하면서 최고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91년도부터 대두된 핵문제는 미국의 세계재패의 허망한 꿈과 자국내의 경제난 타개, 한반도내의 자국의 영주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독히도 꼬여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패트리엇, 아팻치 헬기를 '강매'한바 있으며 계속적으로 '세계경찰국'임을 자랑하고 있고 김영삼은 국회비준정국을 아주 현명하게(?) 이용하고 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정권의 최고위기상황의 극복의 선두주자는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 공세였다. 하지만 50년이 넘게 써먹어온 수법에 더이상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2) 한총련 탄압, 민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

한총련 출범식을 기점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학생들을 김영삼은 용공, 이적성 문제로 탄압하면서 국회비준저지 투쟁의 미봉을 거세하기 위해 한총련 소속 학생 90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렸다. 또한 80년대에 출판되었던 '제국주의론', '자본론' 등의 책을 국가보안법 저촉에 적용시켰고 사천만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태백산맥'의 저자를 또한 구속했다. 이것은 분명 국회비준과 때를 맞춰 민족민주 세력의 씨를 말리려는 작태이며 진보가 아닌 '보수로의 회기'를 뜻하는 것이다.

3) 월드컵 축구

6월 18일부터 모든 관심이 집중될 월드컵 축구. 임시 국회는 6월 20일-7월 10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의 최고 절정기는 한국팀 경기가 있는 20-28일.

민자당은 쌀수입에 대한 국회비준 안건을 상정해서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민적 관심이 월드컵에 쏠려 있을 때 강행처리를 하면 그만큼의 완충작용이 될 것이다.

스포츠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것인가.

4) 시기적 문제

올해 임시국회는 6월 20일-7월 10일. 지난 4월 임시국회때 강행처리하려했던 국회비준을 전국민적인 투쟁으로 연기시킨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때 비준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월 정기국회때는 내년도 예산안문제, 법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전국민적인 불만들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내년 임시국회때는 지자체 선거가 기다리고 있어 김영삼과 민자당일당이 택할수 있는 시기는 이번 임시국회이다. 앞에 서술한 문제와 맞물려 국회비준 강행처리는 거의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학생들의 위치와 책임은 명백하다. 노동자는 총투표, 농민들은 농번기지만 국회의사당으로 민자당으로 천막농성을 전개할 것이다. 청년학생은 학내로부터 시내곳곳으로 '국회비준저지'의 한목소리를 높이 울려야 할 것이다.

♣ 화학공학과 김유경 ♣

고대와 중세사회 여성들의 삶

1. 고대 노예제 사회

원시공산제 사회의 해체 과정에서 사유재산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나뉘는 계급분화 현상이 나타난다. 고대 노예제 사회로 접어들면서 토지소유가 진정한 의미의 사적토지소유를 형성하게 되고 그 토지소유는 유력자에게 집중되어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계급과 토지를 상실한 노예 두 계급이 발생한다.

이러한 계급분화 차별이 더욱 심화되어 계급·계층의 사회적 의존, 예속관계가 뚜렷이 나타남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지극히 노골적인 양태로 진행되게 되었다. 노예제하의 가족은 지배계급의 사유재산과 권력의 세습을 위한 재생산 구조로써 기능했고 결혼 역시 가계 상승을 위한 자손을 얻기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사자들의 의사보다는 양가 가부장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여성은 결혼하면 즉시 아버지의 유산 및 형제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잃게 되고 남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면 남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게 된다.

이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여성은 임신, 출산과 육아만을 담당하면서 지배층 남성에게 의하여 부와 안락을 누릴 수 있었다.

엥겔스가 '자식을 낳는 일을 별도로 한다면 여성은 가내 노예의 지휘자에 불과한 존재'로 단언할 정도로 노예주의 아내들은 가정속에서 '가내 노예의 지휘자'로서 먹는 것, 입는 것을 만들면서 가족생활을 관리하긴 했지만 사회적인 권리는 거의 없었고 사회적 지위 또한 노예에 버금 갈 만큼 낮은 것이었다.

노예제 사회속에서 여성은 지배계급이든 피지배계급이든 남성의 강한 지배하에 통제를 받았다. 그리하여 여성의 노동은 사회적 생산노동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가사노동에 한정되든가 아니면 사회적 생산노동을 하는 노예를 재생산하는 것이었다.

사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노동으로 중요한 것도 없을 텐데 여성의 사회적 노동자체를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 예속을 당하는 상황은 이러한 노동 자체가 중요성을 가질 수 없게 했다.

결국 노예제하에서 여성은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의 남성의 성적 대상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여성노동에 의한 사회적 의미가 있을 수 없었고 '사회적 성격'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2. 중세 봉건제 사회

봉건적 생산양식의 경제적 토대는 농노에 의한 토지의 소경영과 독립수공업 경영이다. 즉 장원이라 불리는 영토를 영주가 장악하고 농노들이 이 영토를 빌려 경작하는 소경영형태로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봉건가정은 자급자족적 경제단위의 기초단위가 되었다. 이렇듯 소경영 생산양식이 경제적 기초이면서 사적소유가 한단계 진전한 봉건제하의 가족은 남편을 중심으로 부권일체제 가족을 이룬다.

봉건영주의 아내는 자신의 본분인 아내로서 뿐만 아니라 남편이 없을 땐—관리능력이나 용감성, 가사에 있어서의 노련함을 발휘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 그러나 봉건영주의 아내가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되는 것은 단지 남편이 없을 때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만은 아니었다.

봉건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가사는 오늘날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다. 가족 규모가 크고 손님이 잦고 오늘날 공장에서 만들어져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집에서 준비해야 했던 시대에는 가족을 먹이고 입히는 것만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이렇듯 중세의 가정이 현재의 가정보다 훨씬 더 영역이 넓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봉건시대에 남자들이 아무리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 하더라도 남자들은 봉건경제의 담당자였다. 게다가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한다는 것과 지위가 높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 사회의 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 혹은 권력의 기반과의 관계이다. 봉건시대 가정이라는 영역이 아무리 컸었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정치에서 거의 소외되었다.

이렇듯 지배계급의 여성들은 재산권의 제약, 공적영역에서의 소외, 교육 기회의 제한 그리고 당시의 정신생활을 크게 지배했던 종교 등의 영향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억압을 받고 불평등한 처지에 놓였다.

한편, 피지배 계급의 여성들에게는, 먹고 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농노가 잉여생산물을 갖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족 내의 노동분업이, 재산소유에 의한 지배복종으로까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여성의 노동은 추가적인 노동이었으며, 농업노동의 주된 담당자가 남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로만 치부되고, 자신의 역할에 비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너무나도 없었다.

◆ 다음호부터는 자본주의 속에서 비취지는 여성들의 삶과 그 모순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의붓딸 계부가 상습폭행 고교생 의붓 오빠에게도 '짓밟혀'

우째 이런일이.....

또 다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15살난 의붓딸을 아버지(유대근)가 4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왔고 또 아들 유아무개군도 3차례에 걸쳐 성폭행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지난 90년 4월 중순경에 자신의 집에서 재혼한 부인 이아무개씨가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간 사이 혼자 잠을 자던 의붓딸 정 아무개(당시 11살)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뒤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너와 네 어머니를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해 지금까지 4년여 동안 2-3일 간격으로 성폭행해 왔다는 것이다. 또 아들 유군은 지난해 8월 중순께 아버지 유씨가 정양을 성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위협해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부자는 성폭행을 당한 정양이 자신도 모르게 임신해 지난 14일 여자 아이를 분만하는 사건이 터지고서야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 졌다.

지금까지의 가정폭력의 희생자로는 1992년 9살때부터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오다 정당방위로 살인을 저지르게된 “김보은, 김진관 사건”과 1994년 2월 “부산 여교사 남편 살해 사건” 그리고 “양애리 학우 사건”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또 다른 가정 폭력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하여서는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야하며 가정폭력의 희생자를 막기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더 이상 방관만 할수없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아내구타와 자녀학대행위 등의 형태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뿐 아니라, 또 그런 환경속에서 자란 자식들이 또 다시 폭력가정(구타 가정에서 자란 남편이 33.8%)을 만들어간다는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해 할수 없는 것은 남편이 말하는 아내 구타의 이유인데 성격이 난폭해서(58.8%), 남편의 열등감(53.3%), 의처증(38.1%)등이 그것 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원인을 보면

첫째 우리사회가 여성(남성도 마찬가지)을 성적인 도구나 상품으로 전락시킨 다는 것 입니다.

두번째는 법적으로 성폭력 특별법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안에 근본적인 해결방안등이 없는 점입니다.

세째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가부장적 권위의식 입니다.

우리의 사회의식 속에는 아직도 여자가 맞는다고 하면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하고 생각해 버리거나 그에 관계된 일은 경찰등도 그저 가족내의 일이겠지하고 덮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폭행을 당하면서도, 같이 살아가는것은 자식이 불쌍하고 혼자서 생계를 꾸려 나갈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정폭력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아내구타등의 가정폭력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여성을 상품화나 성적도구로 전락시키는 사회 풍토에 냉철한 비판을 가하면서, 스스로의 고정관념부터 고쳐나 가야 하겠습니다.

■ 자원공학과 최 의 진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은 예술과 과학이 결합한 종합예술로 현대 사회의 최첨단 분야이다.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는 컴퓨터의 기능과 그래픽 디자인을 결합하여 인간의 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림이나 색채를 표현하는 사람들로 현대사회의 최첨단 분야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은 텔레비전 방송국이고, 광고나 영화, 패션업계, 정보통신업계 등이다. 그러나 전문인력은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으로 앞으로 유선방송이 활성화되면 그 인력난은 가중될 것이다.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에게는 미적 감각과 기계의 메카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뛰어난 컴퓨터 응용능력이 요구된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SF영화가 나올 정도로 영화 부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광고계에서도 단 몇초의 영상을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외국에서 만들어 들여올 정도로 효과적인 광고 수법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선 노련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이 부족해도 서울에 자리한 방송국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 인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방송국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방송국 진출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지방 방송국의 사정도 파악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패션회사나 인테리어 회사, 기획사무실, 전자출판 시스템을 도입한 출판사, 잡지사등이 새로운 진출무대가 되고 있어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응용 설계사(CAD)

CAD란 Computer Aided Design의 약어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와 도면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CAD의 기본목적은 컴퓨터를 설계에 이용함으로써 인간의 구성능력만으로 설계가 복잡한 대규모 공장의 배관이나 초대규모 집적회로의 회로 패턴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쉽게 설계하는 것이다. 실제로 CAD시스템의 도입으로 항공기, 자동차, 전자기기를 설계하는 설계식의 제도판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CAD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 기계를 전공한 이공계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전공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사랑하고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면 누구든지 배울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더욱 취업은 유리하다. 자격증은 ATC증서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데 다른 분야와는 달리 ATC증서가 국가 공인 자격증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ATC는 미국 AUTO CAD를 사용하는 어느 국가에서나 인정받을수 있다. 이에 비해 국가 공인 자격증(전산응용설계기사)은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낯선 분야이고 자격증의 분류부분도 정보처리분야가 아닌 기계분야에 속해있어 그 공신력이 크지는 않다. 전산응용설계 자격증은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과목은기초역학, 기계설계, CAD, CAM기초및 기계제작법, 전산응용설계, 전자계산기, 일반및 프로그래밍등과 같은 5과목이다.

CAD는 단지 설계도면 제작에서 벗어나 지형정보, 우주항공, 광고업계, 언론매체등 어느 한곳에 쓰이지 않는곳이 없다. 우리나라의 CAD는 본격적인 보급기에 들어섰다. 캐드리스트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싶다.

☞산업공학라 박진아☞

♣작지만 알뜰한 공간!!♣ ~~~~~

학내 편의 시설 II

학생 생활 연구소

백도 1층에 자리잡은 학생 생활연구소를 아세요? 지난호에 이어 소개합니다.

◆**심리검사**: 일년에 2500~3000명의 많은 학우들이 이용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성격유형검사, 자아개념검사, 학습습관검사, 흥미검사, 다면적인성검사, 간이검사, 진단검사, 캘리포니아 심리검사, 종합지능검사를 언제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 외에도 생활연구소에서는 각종 연구및 출판활동을 하고있고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교양증진을 위해 강연회, 세미나, VTR상영을 하고 유학 절차와 그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상담을 합니다.

도서관 1층에 자리잡은 학생 생활연구소는 방학을 포함하여 연중 개방되어 있으며 개방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이달의 도서

여자는 왜?

원시, 고대, 중세사회를 통해 여성억압의 기원과 역사의 변화과정,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여성의 현실을 정리한 책. 자본가계급 여성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의 현실에 기반하여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소외된 노동·저임금 노동으로서의 여성 노동의 성격, 그리고 모성파괴의 실상을 보여준다. 가사노동의 이중적 의미와 가치, 주부의 현실, 가족 이기주의와 가부장적 가족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두루 살피고 있다.

좋은 영화 함께 보기

【델마와 루이스】

때 : 6월 23일 목요일 늦은 4시

장소: 공대 5호관 128 강의실

주최: 공과대학 여학생회 비디오 소모임

후원: 공과대학 여학생회

—수잔 세런들, 지나 데이비스 주연, 위들리 스코드 감독—

남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형적인 주부 델마와 독립심이 강한 독신녀 루이스. 두사람의 여행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일들! 우리에게 새로운 충격을 던져줄것입니다.

<여름방학 관계로 이번호 설문조사는 쉽니다>

◎산업공학과 최 기자

너나들이가

세상의 빛을 밝히요 =:

"0" ← 내 팜방을 인
 원고 쓰느라 고생하신
 소연. 성훈 고맙구로.
 종학생회 보석. 순동이 외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 한자 잘 부탁드립니다. 기자

■ 너나들이를 마무리하고...■

무척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만들어진 6월호 소개하
 니다. ⇒ 잘-봐 주세요.
 그리고 알찬 여름방학 보내세요.

-의견-

항상 겪었던 아이나
 고개지 이젠 한눈 지난
 내보다 더 수월했어요.
 하차마, 남이 더워져서
 고개 올랐던 것도 있죠.
 고개 올랐던 이따금 하차마
 남의 여름방학이...
 응직이게 하듯만큼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시형 문제 없으려나...
 보충하게 되네요.
 ~ 희승~

아들아이...
 고생 연속로 했다.
 여거저거, 물어 보고
 다니느라 힘들었지?
 자. 이제 우리의 결과물을
 보며, 마음껏 웃어보자꾸나.
 학우여러분! 함께 웃어주지
 않으실래요...?
 시험 잘 보라.
 =돌멩이=



너나들이

제 6 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4. 9.



- 이달의 특집
 - 학원 통제정책의 진실을 벗긴다.
 - 대동풍이를 알차게
-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
- 북미회담과 김영삼 정권
- '포르노 개방',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우리에게 일을 달라!

[너나들이] 는요.....!!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과 여학생회가 항상 너나들이가 되면 좋겠네요!

유 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기억 저편에 자리를 잡고, 언제 그랬
냐는 듯한 선선한 바람이 옷장 깊숙이 긴 옷을 꺼내입게 합니다.
가을의 시작과 함께 2학기가 개강을 알린 지도 벌써 3주째 되어 가네요.

이번 여름에 대한 기억은 다시 되뇌이고 싶지 않는 아픔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불타는 태양에 대한 짜증!

그 태양빛을 단숨에 얼리고도 남음직한

신공안탄압 칼바람에 대한 두려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꾸만 들려오는

학우들의 검거 소식 그들의 빈 자리!

국민들의 드높은 통일 열망을 순식간에 잠재워버린

주사파 논쟁·신 매카시즘 유포!

텅빈 교정을 바삐 걸으면서

따뜻한 학우들의 합성을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이 아픔을 함께 나눌 여러분의 손길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 재도약하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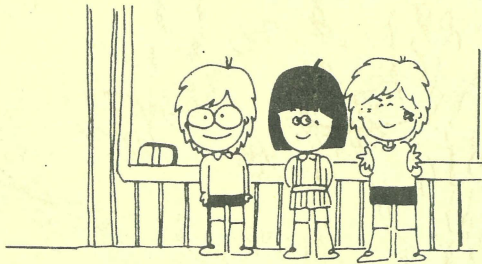
일상생활! 용봉·코스모스대동놀이! 자주여성 민주남성 큰잔치!

어디에서나 밝고 힘찬 모습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하는 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더 깊은 애정으로 더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세요!

2학기 힘찬 진군하십시오.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김경명
부회장 고경아

그동안 이렇게 살았답니다!!

① 여름농활

→ 7월 11일 ~ 15일

→ 시험 연기로 10여일 늦게 출발한 만큼 더 큰 각오로 영광벌 곳곳을 갈고 당겼습니다. 가뭄과 쌀수입개방으로 더 깊어진 부모님들의 주름살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4일 밤 학내 침탈이 있고, 바로 분향소 사건 조작이 시작되어, 정해진 일정을 끝내지 못하고 급하게 농활을 끝마친 아픔도 있었습니다.

① 평화협정 체결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국토순례대행진단 활동

→ 8월 3일 ~ 15일

→ 보름의 시간동안 전 국민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통선대의 활동은 우리의 통일사에길이 빛날 것입니다.

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94 범민족대회

→ 8월 13일 ~ 15일

→ 서울대

→ 무지막지한 전경의 원천봉쇄를 뚫고 오직 통일에 대한 열정만으로 찾아든 곳. 바로 건국대가 아닌 서울대였습니다. 헬기에서 뿌려진 최루액이 무척이나 무서웠지만, 우리의 통일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고, 통일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거예요!

① 추석연휴

- 9월 18일 ~ 21일
- 훈훈한 정을 나누는 추석되세요!

① 애국적 단결! -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용봉인의 힘입니다. -

용봉대동놀이

- 9월 26일 ~ 10월 1일
- 처음 시도되는 대동놀이 통폐합!
- 우리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가 빛내줍니다.

① 코스모스 대동놀이

- 9월 27일 ~ 9월 29일
- 청년공학도의 기백찬 모습을 하나됨 속에서 만들어 보게요.

① 자주여성·민주남성 큰잔치

- 9월 30일 늦은 2시
- 진정 아름다운 여성상, 멋진 남성상은 어떤 것일까요? 같이 고민해 봅시다.

① 중간고사

- 10월 중순



대동풀이를 재밋게 보는 법(?)

전기공학과 3학년

권혁주

몇일 전 공대 매점에서 94학번으로 보이는 여학우 2명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애. 우리 축제 언제 하지?”

“잘 모르겠는데 추석 이후 일주일 동안 한다는 것 같더라”....

이 대화를 들으면서 용봉 대동풀이를 세번째 맞이 하는 나로서는 역시 우리의 학우들은 대동 풀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과 대동풀이의 참뜻이 아직도 새내기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대동풀이(옛날 말로 축제)라는 것은 원래 일하는 사람들 즉 노동자들이 그간의 생활과 노고들을 한바탕 신명으로 총화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놀이에 장이고 서로가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일체감을 표출하는 대동의 한마당이였다.

이러던것이 개별화되는 사회속에서 단지 먹고 마시는 축제로 변질되어 대학에 들어오게 되었고 대학 낭만의 상징으로 되어 버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80년대 초 축제에서 대동풀이로의 전화가 이루어졌고 지금의 대동풀이로 자리잡고 있다.

대동풀이는 '공동체 의식'과 '단결의식'의 고취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에 두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대동풀이는 많은 놀이 행사를 가지며 진행된다. 특히 이번 용봉대동풀이는 단대 (코스모스 대동풀이)와 총학 (용봉 대동풀이)이 통합되어 실시 되면서 예년과 다른 많은 행사들이 용봉골 곳곳을 뒤흔들 것이다. 광주시민들에게 용봉대동풀이 시작을 알리는 성화 봉송을 시발로 2만 학우의 애국적 단결을 목표로 하는 대동풀이 개막제, 각 단대별 행사, 광주시민, 농활지역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경로잔치, 학우와 학생회 교수·학생·교직원의 단결을 꾀하려는 단결의 밤, 자주 여성. 민주 남성, 2만학우 장기자랑, 체육대회 등등.....

그리고 말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주목도 빼 놓을 수 없는 대동풀이의 터줏 대감이다. 같은 과 혹은 동아리 친구들끼리 그리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가지고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말만 잘하면 서비스도 몽땅 먹을 수 있는 진정한 대학의 맛이 아닌가한다. 또한 주목을 하는 사람들도 고생은 하지만 막걸리와 안주를 공짜로 (물론 남은 음식이지만)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먹기대회, 10종 경기, 민속 경기등등 학내 곳곳을 잘 살펴보면 재미있고 흥겨운 볼거리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다. 그리고 또한 대동풀이는 특정한 간부나 학생들로만 준비되는 것은 아니다. 2만 용봉학우의 자발적인 준비나 참여 없이는 대동풀이는 열릴 수가 없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권하고 싶다. 대동풀이를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고자 한다면 자원 봉사단에 참여하여 진하게 노가대도 하고 목소리가 터져라 외치며 기념품도 팔고 이곳 저곳에서 행사 진행요원도 되고 술 먹고 배짱 부리는 사람을 조용히 처리하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포졸도 해 보는 것이 어떠할지...

함께 준비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 할때 만이 대동풀이는 흥겹고 재미도 배가 될 것이다. 이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정말로 바쁘게 뛰어 다니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한다.

학원통제 정책의 진실을 벗긴다!!

1991년 강경대 열사 분신 이후 독재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원식 국무총리의 계란사건과 박홍 총장의 '죽음을 내모는 배후세력이 있다' 는 발언을 중심으로 학생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학원 안정화 대책(이하 '학안대')를 만들었다. 이 학안대는 학생운동을 탄압하고, 교수와 학생을 이간질시켜 학원의 분열을 조장하며 92년 독재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구도에서 나오게 된다.

1994년 UR수입개방 저지, 김현철씨 비리사건, 이회창 국무총리 경질등으로 김영삼의 권력지반이 무너져 내리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정권위기의식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한총련과 민주세력을 용공 이적세력, 폭력세력으로 내몰기 시작하였고 박홍의 '주사파' 발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안통치를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족 민주 세력을 잡아 가두고, 가장 열심히 UR저지 투쟁에 섰던 한총련 백만학우에게는 공안탄압과 더불어 학원내부에 학원 안정화 대책을 내세워 학생회와 학생운동을 와해시키고 개량화 시키려 하고 있다. 다음은 학안대 내용!

학사 관리철저: 학칙 개정!(학사 경고제 부활 1.75 이하 학점 3회 이상 제적)
엄격한 학사관리 (결강 학생에 대한 규제 강화)

학생회 운영: 학생회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도
대학 언론사의 학보 및 교지에 대한 대학 본부의 편집발행권 강화
학생회와 학생회 간부의 장 승인에 관한 내용(우리 대학의 경우 평균 평점 C° 이상인 사람만이 자격)

학원에서 의사표시와 시위: 학원 내에서 과격행위 금지
외부집단의 학내 집회 불허
유인물, 프랑의 내용 사전 승인

위에서와 같은 내용이 이번 7월 25일 김숙희 교육부장관의 발언 이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지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내년부터 학칙개정(학사경고제 부활)을 시행하려 하고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89년 등록금 투쟁이후 발표했었던 대학 자치 선언문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교권확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의 3주체가 대학의 전반적인 문제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함께 토의하고 이성적 대화로써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빛을 내는것이다. 대학은 국가 뿐 아니라 인류 사회의 생장점이다. 대학의 발전이 없을 때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도 불가능하다.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려면 대학의 현실비판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현실 비판 능력이야말로 대학의 존재 가치이다. 대학이 현실을 비판한다고하여 권력에 의해 적대시 되거나 탄압되어서는 안된다.

♪ 대학운영협의회 실무위원회 학생대표 신 근호

◎ 산업공학라 처 기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르노 영화 개방 나는 이렇게 말한다

- 포르노 영화에 굳게 잠긴 열쇠 마침내 풀리는가? -

최근에 주인공 배우들이 완전히 벗고 나오는 연극<미란다>와 미국의 외설잡지 <펜트 하우스>판매의 외설시비, 그리고 에로틱 영화의 정수라 불리는 <엠마누엘 부인>의 개봉과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에 대한 법정공방 등 포르노 그래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본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몇편의 포르노 그래픽의 영화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포르노 영화 상영에 대한 논란은 더더욱 커질것이다. 이들 영화에 대한 더 큰 관심은 “**개방인가 아니면 통제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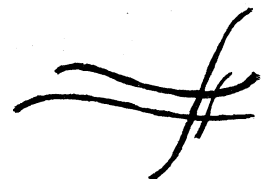
이런논쟁이 있을때마다 언론등에서는 예술과 외설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벗기면 외설이고 벗길 이유가 있어서 벗기면 예술이다**”라고 말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식으로 처리되어 왔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예술과 외설에 대한 논란만으로 포르노 영화상영에 대한 해답을 찾을수 없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서 언제라도 음란도화 불법 비디오 테이프 등을 찾아볼수 있는지금 포르노물들을 사회에서 격리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한 “포르노는 안돼”를 외치며 점잖게 앉아 있을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심의 과정에서 **등급심의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정서에 맞는 방법을 착안하여 법률화 시켜야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제재없이 포르노 영화가 개방된다면 우리의 문화적 정서의 이상과 함께 호기심 많은 청소년층에 미칠 정신적 피해등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대처없는 무분별한 개방은 안될것이다.

♪자원 공학자 최의진



북미 회담과 김영삼정권

이라크와의 걸프전 이후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또 다른 전쟁상대를 원하게 되었다. 걸프전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았던 미국 군수산업은 미국의 적대국으로 리비아, 쿠바, 북한을 지목하며 세계에서 국지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한반도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후 전개된 북한의 핵문제 전개과정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프랑스의 정보위성이 찍은 한장의 사진-북한 영변의 핵발전소 주변- 이를 계기로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에 특별사찰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자존심 강한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NPT(핵 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편파적으로 미국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IAEA(국제 원자력기구)를 탈퇴하였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은 NPT체제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데 북한의 탈퇴는 선례를 남기게 되어 핵독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NPT체제의 파국을 가져올 수 밖에 없게 됨으로 미국은 UN을 통한 제재를 모색하게 된다.

불과 3-4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가 고조되었다. 120일 작전, 5027작전의 시나리오 공개등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처럼 언론에 떠들어 대었고 국민들은 라면과 휘발유, 비상식량을 사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 미국 대통령 카터의 방북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전변하였다. 북한을 미국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카터는 3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가시화 시키고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였다.

#왜 미국은 북미 회담을 하려하는가?

첫째는 경제적 이유이다. 세계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나라간의 대립으로 형성되었던 냉전구조가 붕괴되면서 독일, 일본등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강대국들로 다극화 되고 유럽연합, 아세안(APEC), 나프타(북미자유 무역협정) 등으로 불려화되어 경제적 실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더구나 동북아(한반도 주변)에는 이후 세계경제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있는 중국이라는 세계 유일의 단일시장과 북한의 두만강 특구개발이라는 경제적인 면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졌다.

둘째는 정치적 이유 이다. 미국의 강경적인 자세는 북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중국의 거부로 국제적 제재가 불가능함에 따라 대화국면으로 전환을 시킬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카터의 방북이후 북미 3단계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진것이다.

북미 회담 후의 전망

북미 회담은 북미간의 경제적 관계의 정상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유일하게 남은 세계의 단일시장인 중국과의 무역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교두보가 되는 북한을 개방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통일의 문제가 민족내부의 과제로 돌려질 가능성이 크다.

공안정국과 김영삼정권

출범이후 문민정부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투쟁을 전개했던 남총련은 정권의 정치보복적 지역차별화 정책과 공안탄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없이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문민정부라고하는 김영삼정권의 공안통치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그것은 문민개혁의 한계와 정권의 위기로부터이다. 출범이후 1년 반 동안 문민개혁이 허울뿐임이 밝혀지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증적인 행위가 민중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안탄압을 자행하는것이다. 또한 95년이후부터 실시되는 지자체선거에서 승리하기위해 국민들의 반공반북정서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공안정국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김영삼정권 임기동안 지속될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

그동안 우리는 두차례에 걸쳐 '연사사회', '중세·봉건사회'에서 여성의 삶을 알아 봄으로써 여성문제의 기원을 고민해 보았다. 이제부터는 현재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문제」에 대해 몇가지 측면에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볼까 한다.

그전에 다시 한번 여성문제란 어떤 것인가를 되짚어 보자. 「여성문제」란 직업과 가정, 사랑과 성, 남녀관계와 부모 자식관계 등 인간 삶에 있어 근본적인 것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극히 무지하다. 이 무관심을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며, 어머니, 아내, 딸과 같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다. 이런 무관심은 인간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여성은 물질이 우선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희생자이다. 왜냐하면, 여성은 생명을 낳고 지킬 의무를 운명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여성문제는 물질이 우선하는 사회에서 여성이 『생명』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가치의 일차적인 담당자라는 사실에서 생긴다.

이렇듯 여성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가치에 가장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은 자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겠다.

■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

자본주의는 여성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들을 가정의 속박에서 벗어나 사회적 노동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들에 대한 법적인 차별은 철폐되고 있다. 축첩과 봉건적인 혼인제도는 폐지되었다.

흔히 "요즘 여자들 살기 좋아졌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억압이 생겨나 오히려 여성들을 더욱더 심각한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가 여성에게 가져온 모든 진보가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여성을 사회적 노동에 끌어들이면서 가사노동의 부담을 철폐하지 않았으며, 일부일처제를 확립하면서 매춘 역시 하나의 사회제도로 만들었다. 가정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동에서의 확고한 위치 역시 아직 자리잡히지 않았다. 남녀 평등의 대의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전래의 관념을 타파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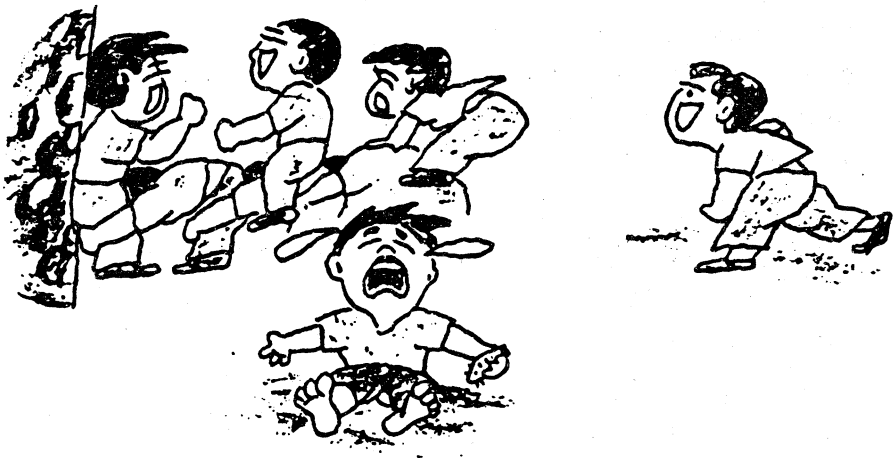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성문제의 복잡성과 상호 모순되는 현상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시기임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여성 억압은 붕괴되고 새로운 남녀관계를 위한 광범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자본주의가 남녀평등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명백하다. 남녀평등의 진전은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제한되고 왜곡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순적이고 과도기적인 성격을 여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다.

한편, 여성의 지위는 궁극적으로 「노동」과 「가족」에서의 위치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이런 과도기적인 성격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과 가족에서의 위치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한다.

다음호에 계속 ...

예 고

다음 호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여성」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우리에게 일을 달라!

요즘 유행하는 배꼽티에 한국 여성들의 도전정신이 깃들어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그러나 사법처리하겠다는 경찰의 노여움에 아랑곳 하지 않는 배꼽티의 물결에서 저항의 숨결이 느껴진다. 여성들에게 들쭉위진 굴레를 떨쳐버리겠다는 또 하나의 몸짓으로 비치는 것이다. 이는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과 함께 한국의 여권이 뻗어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징표로 삼을만하다. 이렇듯 활기넘치는 여성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괴이한 현상이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한다. 대졸여성은 한결 같이 일하고 싶어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외면되고 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는 비좁기만 하다. 그들의 잠재력이 헛되이 묻혀버리는 것은 물론이다. 국가 경쟁력 시대의 엄청난 낭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아직 후진국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한게아닐까!

국가나 기업 사회가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는 이름의 그럴싸한 법적장치와 그 법정신의 구현을 위한 빈약한 의지가 이를 극명하게 대변한다. 전근대적인 여성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들의 의식구조, 일자리를 둘러싼 성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족(?)들의 자세가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성인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런 움직임은 변화의 소용돌이가 그려낼 미지의 세계, 새로운 발상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려는 당연한 대응이기도 하다. 이는 곧 시대를 앞서가는 발걸음이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헛말이 아닐 것이다. 적어도 남성중심의 세계에서 여성이 또 하나의 주체로 참여하는 세계가 펼쳐질테니까.

아직은 여성들의 고독한 하소연이 높게 울려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 괴이한 현상을 깨는 데는 무엇보다도 여성들 스스로의 결연한 몸부림이 요구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여성운동의 새로운 장을 기대하는 뜻이 여기에 있다.

90년대 초 부터 **“결혼은 선택, 직업은 필수”**라는 신조어가 대학가에서 얘기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목적, 취지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래의 한쪽 날개인 여대생의 사회 진출 시스템 개선에 충분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고평법을 총론적인 법으로 두고 14대 국회에 한시법으로 **‘여대생 고용 촉진법’**을 고평법의 각론적인 법으로 입법해 반만년의 남성중심의 직업사회를 양성, 경쟁의 사회로 이끌어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스웨덴과 같이 여성 진출의 벽이 열리는 선진사회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지만 알뜰한 공간!!❀~~~~~❀

용봉 대동풀이 소식

추갸학우 장기 자갸

언 제: 9월 30일 늦은 6시 30분

어디서: 대운동장 본무대

의 의: 2만의 다양한 문화를 함께하는 자리이며

각 단대의 특성을 볼 수 있고 개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자리

추갸경의 밤

언 제: 9월 28일 7시

어디서: 대강당 앞 특설 무대

의 의: 광주 애국 시민들과 통크게 어우러지는 자리

전남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자리

이달의 도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신의 일을 고집하다 아이의 우연한 사고사에 죄책감을 갖게 된 이혼녀 혜완, 남편을 위해 공부를 포기하고 현모양처가 되었으나 그 삶을 못견뎌 자살하는 영석, 의사 남편을 얻기위해 일을 포기하지만 모멸감 속에서 껍데기뿐인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혜, 이들은 결혼과 일사이에서 방황하는 오늘의 여성들이다. 30대 초반에 이른 여성들의 삶을 통해 현대 여성의 갈등과 이중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좋은 영화 함께 보기

【델마와 루이스】

때: 10월 6일 목요일 늦은 4시

장소: 공대 5호관 128 강의실

주최: 공과대학 여학생회 비디오 소모임

-수잔 세런들, 지나 데이비스 주연, 위들리 스코드 감독-

남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형적인 주부 델마와 독립심이 강한 독신녀 루이스. 두사람의 여행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일 들! 우리에게 새로운 충격을 던져줄 것입니다.

《이번호 설문지는 대동풀이로 인해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다음달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뵈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업공학과 천기자

초대합니다.

코스모스 대동놀이

— 통일진군 50년 9월 27일 ~ 29일 공대 전역.

★도전해보세요...!★

▷ 인간 두더지

- 여성의 자주성 실현을 막고있는 여러가지 억압과 굴레를 두더지로 표현한 놀이마당.
- 언제 : 코스모스 대동제 기간
- 신청 : 당일 그 자리에서

▷ 올림제

- 4천 공학도의 음악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해소!
- 신청 : 24일까지 새벽올림
(참가비 3천원과 악보도 함께)
- 언제 : 9월 27일(화) 늦은 7시 - 공학도 광장 무대

축하합니다

용봉대동놀이

자주여성 · 민주남성 큰잔치

통일진군 50년 9월 30일(금) 늦은 2시
대강당 앞 상설무대에서
주최 : 총여학생회/각 단대 여학생회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합니다.

너나들이

제 7 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4. 10.



- 이달의 특집
 - 광고가 달라지고 있다.
 - 국책대학으로 선정은 됐다는데...
 - MADE IN U.S.A
- 함께 고민하는 마당
 - 북미 회담 타결과 한반도 진도에 대하여
-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여성
- 윤금이씨 살인만행 2주기를 맞이하여
대졸 여성들의 취업반

【 너나들이 】는요... !!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과 여학생회가 항상 너나들이가 되면 좋겠네요!!

350여학우와 자주적 삶을 통해 하나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그 1년을 돌아켜보니 평탄한 구름도 있었지만 험한 계곡과 벼랑을 더 많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언제나 350여학우들이 저희들 곁에 계셨기에 곳곳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학우 예비대학. 수련회. 입방식. 코스모스 체전. 농활. 대동들이 영화상영 그리고 너나들이 ..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의 정성이 베풀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95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94년 너나들이는 그 닳을 내립니다.

처음 시작된 만큼 부족한 점이 한이 없었는데도 꾸준히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 그리고 따끔한 비판에 더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더 알차게 꾸며질 95년 너나들이에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곁에 있게 될 마지막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며 여학우들의 건강을 기원해 봅니다.

'94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김경명

부회장 고경아



여학생회는요!!!

그동안 요롭게 살았대요!!!

① 전 학 대 회

- ☞ 9월 15일
- ☞ 500여 대의원의 참여로 민족전대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로써의 소임을 다한 전학대회에서는 2학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학원 자주화 사업에 대한 건 대동풀이에 대한 건 등 6개의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습니다.

① 용 봉 대 동 풀 이

- ☞ 9월 26일--10월 10일
- ☞ 항상 함께 할때 함께하는 용봉인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잊지 맙시다.

① 코 스 모 스 대 동 풀 이

- ☞ 9월 27일--29일
- ☞ 용봉대동풀이 기간내에 함께 어우러진 코스모스 대동풀이에 보내주신 격려 감사 드립니다.
여학생회에서는 놀이마당 “인간두더지”와 기획자보 “우리들의 절반이북 여성들의 삶” 그리고 “올림제”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① 자주여성 민주남성 큰잔치

- ☞ 9월 30일
- ☞ 봉건시대부터의 억압된 여성들의 삶의 모순 속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본 “집체극”과 오숙희씨 강연 “우리시대의 성과 사랑”을 통해 진실된 여성상과 남성상에 대해 고민해 보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① 함께보는 좋은 영화

- ☞ 10월6일
- ☞ “델마와 루이스”상영

① 故 박관현 열사 12주기 기일

- ☞ 10월 12일
- ☞ 12년전 이땅의 참된 민주화와 억압과 굴레를 떨치기 위해 산화해가신 박관현 열사의 혁명정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거예요!!

다음은 10월이후의 일정입니다

10월 21일 후보 추천인 작업 시작

28일 윤금이씨 살인만행 3주기

27일.28일 용봉교실

11월 3일 학생의날

추천인 명부 작업 마감

4일 후보등록마감

12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총여학생회 후보자

언론 4사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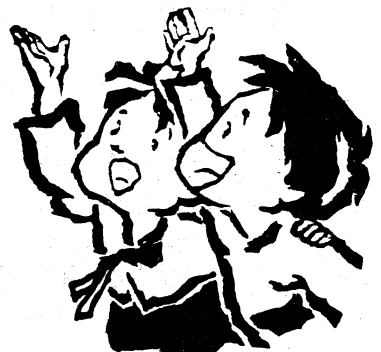
14일 1차유세

15일 학동유세

16일 2차유세

17일 전남대학교 각급 학생회 선거일

18일 당선자 공고



광 고 가 달 라 지 고 있 다!!

여성이 면도를 하고,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며, 지물쇠로 채워진 문을 망치로 부수고,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등 최근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나는 여성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며 예쁜 얼굴로 앙징 맞은 표정을 짓거나,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하얀 피부에도 격이 있다.'고 애써 섹시한 포즈로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천편일률적인 광고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성, 또는 남자 같은 모습의 보이시(boyish)한 여성이 광고 속에 나타나고 있다. '여자를 벗고 나를 찾는다.', '겨울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침묵한 나의 개성을 깨운다.', '나를 비켜갈 수는 있어도 나를 꺾을 수는 없다.' 등 여성학 책에서나 나올만한 구절들이 광고 카피로 등장하고 있다. 이 광고들에서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여성의 개성과 자유'이다. 여기서 개성은 바로 여자는 예쁘고 다소곳해야 한다면 이미 정형화된 여성성과 가치체계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정형화된 여성성에 반기의 깃발을 가장 높이 든 모델이 바로 신은경인데, MBC미니시리즈 <마지막 승부>에서 왈가닥스러운 역을 자연스럽게 소화해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다. 오히려 더 남성스럽게 면도를 하고, 샌드백을 치며, 와이셔츠 차림을 하며, 여의사로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 높여 주장하고 나서자 그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왜 이러한 광고 속의 여성들의 모습에 공감하는가. 이것은 여성들의 변화된 욕구가 이러한 광고에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몽드의 대상층인 20대 여성들은 이전 세대들과 달리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레셰의 주소구층인 막 20대로 진입한 여성들은 이미 졸업하고 직업을 갖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하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 연구소의 한은경 연구위원은 "광고 속에 나타난 적극적이고 보이시한 여성의 모습은 점차 기존의 남녀 관계를 파기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찾으려는 여성들의 욕구를 광고를 통해 대리 만족시켜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광고들이 아직은 전체 광고 중 일부에 해당되고 또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적 시각을 보여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성다운여성, 가사 노동자로서의 여성, 성적 대상자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를 고정화시켰던 데에서 여성의 독립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무기재료공학과 정 인옥

자동차 관련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이에따라 필요 연구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대학원 진학의 요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보다 심오한 기술을 연마하여 연구소 또는 학교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대학원이나 산업체 연구소에서 많은 장학금과 병역 특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각종 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장학 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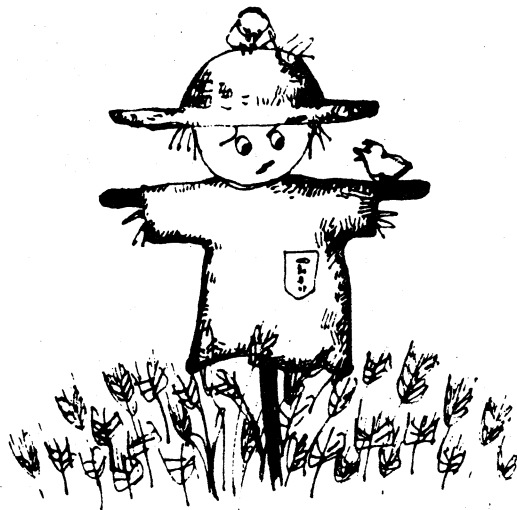
자동차 계열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남대의 일반장학금 외에 자동차 공학 계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수혜자격	1년간 1인당 지급액	비고
자동차 공학계열 합격자중, 수능시험 자연계 전국 상위 3.5%이내 이며 내신 3등급 이상인 학생	납부금전액+ 2,000,000원	재학중 장학금 계속지급조건; 전학년 평균 평점 3.5 이상이고 소속학과 석차 상위 2.5%이내
수능시험 자연계 전국 상위 5%이내 이며 내신 등급 4등급 이상인 학생(계열모집 정원의 상위30%이내)	납부금 전액	

◎산업공학과 최 기자

이렇게 우리들의 생필품에 외국 수입품이 대부분인 것은,
 첫째 최근 몇년간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어 생필품에 있어서 상표와 질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기업들이 독자 개발을 기피하고 무작정 외국 유명 상품을 수입해 이익을 보려는데 있다. 실제로 자료에서와 같이 어느 품목에서는 국내 물품이 없는 것도 있다.
 셋째로,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은 것도 있다.
 한국인이 "Made in Korea" 라 표시된 물품을 애용하는 것이 한국인 된 도리인데 수입 상품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결여 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물론 외제를 전혀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것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자칫 배타주의, 국수주의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입 상품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으면 대개가 국내 상품보다 품질이 더 좋아서라고 대답을 하는데 외국 물품과 국내 물품을 비교해보면 질에 있어서 낮은 것도 있지만 같거나 더 나은 제품들도 많다.
 품질이 낮은 것은 국내 기업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같거나 나은 것은 수입품보다는 국내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삶, 바로 그것이 조국 사랑의 첫 걸음인 것이다.

♣무기재원공학과 정 인옥



북미회담 타결과 한반도 진로에 대하여

제네바협상의 타결은 핵문제 해결이나 경수로 지원이라는 지엽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와 동북아 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모든 협상력을 동원하여 무려 22일 동안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양쪽 다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시기문제에 5년이라는 융통성을 주기는 했으나 궁극적으로 북한 핵문제의 현재, 미래, 과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모두 얻어냈으며, 특히 중간단계에서 북한 핵활동을 동결하고 무력화시키는 조치들을 확보하는 실리를 챙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타결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그대로 머물게 됨으로써 내년 연장을 앞둔 핵금조약 체제가 공고하게 된 것도 핵 독점을 원하며 세계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에는 커다란 실리가 아닐수 없다.

북한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상대하면서도 오히려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한 채 끈질긴 협상력을 보여 핵카드 하나로 엄청난 대가를 얻어냈다.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인 에너지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해줄 경수로 지원도 확보 했다. 그리고 무력불사용에 대한 보장도 받아냈으며, 대체에너지 지원도 약속받았다. 또한 그들에 대한 50년 가까운 봉쇄의 족쇄를 푸는 정치 경제적 합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북-미의 제네바의 대타결은 위의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 미국간 정치 경제 외교문제의 상당부분을 맡게 될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45년동안 계속된 대북한 경제봉쇄가 부분적으로 해소됨에 따라 북-미의 정치 경제적 관계가 정상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구조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게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면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개의 거대한 경제권 사이에 놓인 한반도 경제권 더 크게는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3성을 묶는 경제권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다----세계 유일의 가장 큰 단일 경제권인 중국과 (생각해보라, 10억 인구가 치술을 하나씩만 쓴다고 가정할때 중국시장의 가능성에대해)광활한 시베리아 벌판의 개발가능성과 투자 효

용성(러시아는 예로부터 부동항을 필요로 했다)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은 이 두나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지금까지는 남북 분단이라는 냉전구조와 미국의 대북한 봉쇄로 이지역의 경제권은 허리가 잘리고 맥이 끊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제 대북한 경제의 통로가 열림에 따라 한반도 중심의 경제권은 전혀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또한 북미 합의문에 상호연락사무소 설치뿐 아니라, 몇가지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명문규정이 포함된것은 양국 관계가 예상보다 빨리 진전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50년간의 적대적 관계에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수교까지 논의되는 현실이 가히 놀랍기만하다 .

이렇듯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고 평화의 분위기로 나가는데 정부의 자세는 실망을 자아내게 하였다.

김일성 주석의 급작스런 서거이후 적대적 관계에 있던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국익차원에서 애도의 뜻을 표했고 세계 160개국의 정상들이 애도의 말을 전하고 조문사절을 보냈던것도 자국의 이익을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이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인 북한의 지도자의 서거에 애도의 뜻과 조문을 함으로서 조국 통일의 단초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식인데 김영삼 정권은 전군 비상 경계령을 내려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통일에 대비하자며 북한정권의 붕괴에 대한 기대와 흡수통일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였다. 이런 잘못된 판단은 세계정세의 흐름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며 각국이 북한과 대화통로를 가지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을때 우리 정부만이 대화통로를 갖지못해 소외되고 북미 회담결과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실리마저 잃게되었다.

김영삼정권은 세계의 흐름을 냉전의 논리로 파악하려 해서는 안될것이며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 악법으로 7천만 민족의 통일로 향한 발걸음을 묶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바로 보고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에게 물어 **전민족의 합의를 이룰수 있는 통일 방안을 도출해내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것이다.**

◎산업공학과 최 기자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여성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의 영역과 소비의 영역이 분리되어 생산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소비는 사적으로 행해진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각 농민가족을 단위로 토지를 경작하여 생산을 했고, 봉건 영주에게 지대를 받치고 난 뒤 나머지 생산물을 각 가정에서 소비했다.

각 가정을 단위로 생산과 소비가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소비는 각 가정을 단위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사회에서 생산하는 영역을 남성들의 몫으로 노동력으로 재생산을 위한 소비는 여성들의 몫으로 고정되어 진다.

남성들이 밖에 나가 일할수 있도록 해주는 온갖 뒷바라지를 사회적 공간이 아닌 집안에서 여자 혼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품생산 영역과 노동력 재생산 영역이 집밖과 집안으로 분명하게 분리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터이다.

이 두가지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집밖의 사회적 노동과 집안의 사적 노동으로 갈라져 완전히 다른 노동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뿐만아니라 계속 노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 재생산은 그 본래의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고 별볼일 없는 일로 내팽개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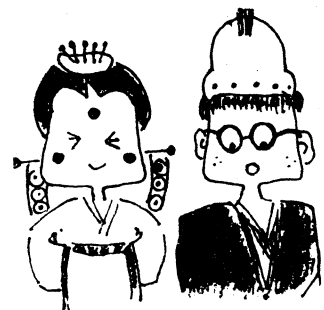
현재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가사노동이 가치를 생산해 내는 상품 생산노동과 달리 하찮고 시시한 일로 취급됨으로써 여성은 집안일이나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며 살아나가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 다음날 다시 노동할수 있게 하는 비용 즉 노동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계비이며 노동력 재생산인 임금에 있어 여성의 가사노동을 고려하면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어야 하고 따라서 자본가의 이윤은 낮아지게 된다.

바로 여기에 가사노동을 하찮게 취급하면서도 여성을 계속 집에다 묶어 놓아야 하는 자본가의 논리가 있다.

여성에게 집에서 남편과 자식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보수로 가사노동을하게 되면 노동력 재생산비가 낮아지므로 자본가는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고 따라서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밖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나 안에서 살림만 하는 부인이나 모두 자본가에 의해 착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가족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 봉사과 희생으로 여기며 이는 당연히 여성들이 말아야 한다고 떠드는 것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기 위한 자본가의 거짓선전일 뿐이다.

이러한 노동의 성별 분리와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사회화되고 여성이 사회적 생산노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

윤금이씨 살인만행 2주기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주.한 미군이 저지른 횡포와 만행의 숫자는 수도없이 많았고 그리고 그 대상과 방법또한 다양했다.

1992년 10월 28일 동두천에서 양공주였던 윤금이 누이의 살인만행은 차마입에 올리기조차 싫을 흉악한 사건이었으며, 주한 미군의 횡포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하나의 예이다.

사체의 자궁에서는 깨진 콜라병이 발견되었고 항문에는 우산대가 꽂혀져 있었으며 몸에 남아 있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위해 온몸에 하이타이가 뿌려져 있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은 미국병사인 케네스 마클 이었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저지러수 없는 일을한 케네스 마클을 사형시키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에 의하여 무기징역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것은 이 만행을한 케네스 마클이 현재는 미국에서 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양심에 한점 꺼리낌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평균 5건에 이르는 주한미군 범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만큼 기분 나쁘고 잔인하게 저질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할 문제는 그 범행 동기가 '아무 이유없이' '심심해서' '마음에 안들어서' 라는 이유로 저질러지는 살인, 강간, 폭행등 하루평균 5건에 이르는 미군범죄가 0.7%만이 한국정부에 의해 재판받는다라는 사실이며 그것마저도 한.미 행정협정에의해 언제든지 다시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오늘 윤금이씨가 그렇게도 처참히 살해된지 2년이 지난 오늘에도 곳곳에서 미군의 잔악한 범죄는 자행되고 있고, 우리 국민은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채 울분을 토하고 있다.

자국의 국민이 자기나라 땅에서 법의 보호 밖에 있어야 하는 상황, 한국 누가 이땅의 주인인가?

♪ 자원 최의진

대졸 여성들의 취업난.....

지난해 S그룹에서 5백여명의 대졸여성 공채발표가 났었다.

대졸여성의 취업이 문제시되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는 여성들에게 다소 희망을 주었으나 이것은 그저 기업홍보에 지나지 않았고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G그룹 H그룹 D그룹등 내노라는 곳에서도 여사원 공채를 발표했다.

이것은 버려지는 인력자원을 환원하는 그런취지가 엿보이기는 하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여성들에게 큰 선심이나 쓴다는듯한 기업 이벤트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발표로 취업이된 남.여의 비율을 따져보면 여성은 2천 5백명 정도이고 4년제 대학 졸업생의 3.5%에 해당되고 남자는 2만이 넘으며 4년제 대학 졸업생의 20.8% 정도이다. 즉 **남자 9명에 여자 1명이 입사한 것이다.**

이렇게 입사하기도 힘들지만 그 여사원의 출신과를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한 예로 D그룹을 살펴보면 경영, 무역, 중국, 비서학, 교육학등 경상계열과 인문계열로 한정되어 있다.

전체 채용인원에서 인문, 사회계열과 이공, 자연계열의 비율이 50:50이란 점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수 있을것이다.

이렇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 대기업에 취직이된 후에도 여성들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채용이후 자기 능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일반 경리사원과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아니라 승진, 급여차별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많다.

여성채용이 더 이상 대기업의 이벤트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버려지고 있는 유능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고 이 사회에 다시 되돌리는 기업체계가 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 또한 강해져야하고 그저 장식적인 여자가 아닌 진정한 인간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어야할 것이다.

웃작지만 알뜰한 공간~~~~~ ♪

보건 진료소

보건 진료소는 전남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유지, 질병예방 및 치료등을 통해 모든 대학인의 보건 향상에 힘쓰고 있다.

♣ 보건 진료소에서 하는 일

진료 (일반진료, 전문치료, 치과치료)

건강진단 만성병관리 집단예방사업

교내식당식품 및 환경 위생관리 수질검사(음용수)

♣ 진료안내

일반진료(진료실): 월-토요일 매일

피부과 (보건관리실): 수요일 (오전, 오후)

비뇨기과(보건 관리실): 화요일 오전

치과 (구강 보건실): 월-목요일(진료), 금요일(예방치과)

♣ 진료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11-2월 4시까지)

♣ 진료비

하루진료-450원

이틀분 약을 타가면-600원

♣ 위치 : 제 2 학생회관 1층

♣ 간단한 구급약품(소화제, 두통약)-무료

이달의 도서

내가 알을 깨고 나온 순간

여성문인 21인의 자전적 에세이 모음

이 책에서 목적하는 바는 부수적 존재로서의 여성의식을 뛰어넘어 주체적으로 사회를 보고 참여하려는 사회적 자각이 여성 개개인에게 어떤 계기로 이루어 졌는가를 이야기 함으로써 여성의 자주적 주체적 삶의 모습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책의 필자들은 각자가 딛고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류”로 분류되기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여성을 옹호하고 있는 나약과 몽상의 껍질을 깨고 나온 순간들을 진솔하게 그려내어 삶의 건강성을 되살려 내고 있다.

지금까지 너나등이에 관심을 쏟아주신 학우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5년 1월에 만나요!!!

◎산업공학과 천 기자

와!

끝났다. ♪ ♪ ~ ~ ~

시간이 참 빠르다.

내가 죽어라 뛰어다니다

땀 흘리는 동안에도...

힘들어 눈물 흘리며 도망

치고 쉴어 할 때도...

시간은 뉘없이 흐른다.

그러나,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내 맘 속에

자리잡는 것이 있다?

350 공대 여학우에 대한 믿음과 사랑!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신념!

마지막으로 -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는 진짜

마지막이겠다. ㅎㅎㅎ

여러분 사·랑·합·니다

- '94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김경영 -

벌써 내년도 들락이 나있어 있다.

그리고 이번은 1994년도에 나온

마지막 "너나들이" 이다.

진짜 힘든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으로 지금까지 올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

목이 정말 많이 고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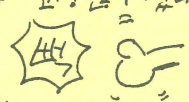
- 의견 -

마지막으로

경매이 언니가 만든 인목이 첨으로 만든
너나들이다.

경매이 언니가 너무 많이 써서 공간이
부족하다. 원수.

군악이 오빠가 귀드치느라 고생많이함.

하지만 별루 안 고맙다. 

우와 이제 시험 공부 해야지.

근데 시험이 끝러똥망 다 넘어가고

난 과목 밖에 안남았다. ! ~ ~

- 기.자 -

처음 시작한 너나들이가

마지막이다.

옆에서 기자 언니가 차꾸
방해를 한다. 막내라서....

별명을 하나 얻었다.

「흑한 민들레」 (화양 민들레)

다음호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 인 목 -

너나들이

'95 신년호 (제 8 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5. 3



① 이달의 특집

- 여학생 예비대학을 마치고
- 신세대 새내기
- 학원 자주화 운동이란
- 여학생회 소모임 소개

②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 3·8세계 여성의 날

③ 함께 고민하는 마당

- 멕시코 폐소화 폭락과 한국경제

④ 여성 이야기 주머니

- 운수좋은날

『너나들이』는요... !!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과 여학생회가 항상 너나들이가 되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내일의 딸에게

너는 해맑지만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딸이면 좋겠다.
백지처럼 예쁘기를, 조선시대 어느 대감마님처럼 나서지 말기를,
맨발로 휘이휘이 다니다가 삶이 먼지조차 망각해 버린 차
가운 캐리어우먼이 되기를 바라는 눈들에서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딸이면 좋겠다.

너는 고통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줄 아는 딸이면 좋겠다.
술잔속 우물거리는 징그러운 얘기들 가득하다고
취업을 가로막는 울타리가 너무 높다고
결혼이라는 환상에 주저하지 않고
이 고통 같고 갈아 희망을 아로새길 줄 아는 딸이면 좋겠다.

너는 희망을 품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딸이면 좋
겠다.
세상을 혼자만 잘나면 된다고,
여성은 너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깨고
하나되는 여성의 힘이 얼마나 크고 기쁜것인지
헤아릴 줄 아는 딸이면 좋겠다.

희망을 갖는것 마저 철저히 짚발히는 서러운 식민지 조국
허나, 딸아 너의 희망은
해방된 조국에 당당한 주인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나의 삶이 여성의 숨통을 죄어오는 현실의 벽에
온몸으로 온몸으로 부딪쳐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결코 가슴 아프지 않을 내일의 너를 그리며
희망을 가져 본다.



어제 오늘 따뜻한 햇살이 사람을 참 나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꺼운 외투를 벗듯이 가슴 속 억눌렀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벗어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봄!

나른한 봄이 아닌 95학번새내기들과 함께 하는 신선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95학년도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정밀화학과 4학년 김채희입니다. 예비대학 수련회 등을 통해 낯설었던 대학이, 선배들이 이제는 좀 가깝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어딘가 어색한 새내기들, 처음으로 후배를 맞고 언니라는 말을 듣게되서 약간은 당황스러운 우리 94학번들 그리고 3,4학년이라는 최고 어른이 되어 장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심각해져 있을 학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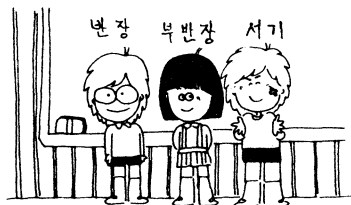
모두다 다른 생각 다른 고민을 하고 있지만 서로를 아끼고 이 전남대학교를 사랑하고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청춘! 그 아름다운 시절에 참된 삶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통일 원년, 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 자치제 선거가 있을 95년을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는 여학생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5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김채희



그동안 요렇게 살았데요!

§ 총여학생회 간부일꾼 수련회

—94년 11월 26일~27일

—용봉골 여학생 일꾼들이 강천사에서 8천 여학우들이 어떻게하면 자주적으로 살수 있을까? 돌 굴리고 왔데요!

§ 총학생회 간부일꾼 수련회

—94년 12월 22일~ 23일

§ 공과대학 여학생회 운영위

—94년 12월 23일

—환경,컴공,섬유,고분자,정밀,자원

—94년 12월 29일

—무기,고분자,섬유

500공대 여학우들을 이끌어 나갈 여대표님들 하이팅!!

§ 공과대학 학생회 간부일꾼 수련회

—95년 1월 5일~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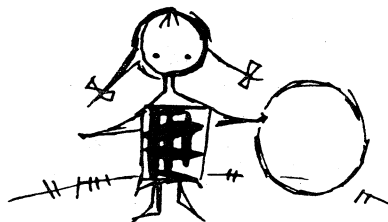
—공대학생회, 여학생회, 각과 간부님들, 학장님, 교무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95년을 당차게 살자고 결의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위에서 3시간동안 M·T도 받았데요.

§ 총여학생회 배움학교

—1월 11일 ~ 12일

—여학생회와 여성문제에 대한 궁금증, 고민을 2만 용봉인들이 모여 함께 풀어보는 열린 공간이었답니다.



§ 95새내기 합격자 발표

— 1월 24일

— 용봉골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94학번 친구들이 제일 좋아 하더군요

§ 공과대학 여학생 예비대학

— 2월 7일

— 공대여학생이 된 예쁜 새내기들과 재학생들이 어우러져 강의도 받고,
학내 곳곳 갈고 다니기도 하고.

우왁, 너무 재밌다. 언니 하루 더해요!!

§ 95학년도 민족 전대 예비대학

— 2월 9일 ~ 11일

— 공대 여학생회에서는 ○× 게임을 하며 2만 용봉학우들에게 여성문제
에 대한 상식을 키워줬답니다.

그리고 대강당에서 한 졸업식과 불놀이도 재밌었죠!!

§ 수강신청

— 2월 14일 ~ 17일

§ 여학생회실, 휴게실 대청소

— 3월 1일

— 쓱쓱 싹싹 새학기가 시작되면 여학우들이 많이 놀러 올텐데 깨끗이
청소 해야지. **휴게실 새단장 했어요. 빨리 놀러 오세요.**

§ 입학식

— 3월 2일

— 95학번 새내기들이 진짜 대학생이 됐군요!

§ 통일 문화제

— 3월 1일 ~ 3일

—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 ~



통일을 바라는 2만 용봉학우들이 용봉골 곳곳에 단일기도 붙히고, 봉지
를 천지처럼 바닥 그림도 그려보고. **빨리 통일이 됐음 좋겠죠.**

§ 여학단위 방중총화

—3월3일

—민족전대 여학생 일꾼들이 다 모여서 방학때 잘 살았나 총화도 해보고 앞으로 더 잘 살자고 결의 하는 장이었답니다.

공대 여학생회가 모범 단위로 뽑혔네요.

§ 광주 총협 대의원 대회

—3월 3일

— 광주 총협이란 광주지역 총 대학생 협의회입니다.

광주총협 의장님으로는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고영철 회장님이 선출 되셨네요.

§ 남총련 대의원 대회

—3월4일

—남총련 의장님으로 우리학교 총학생회장 이몽석 회장님이 선출되셨답니다.

이몽석 의장님 힘차게 살게요!

§ 세계 여성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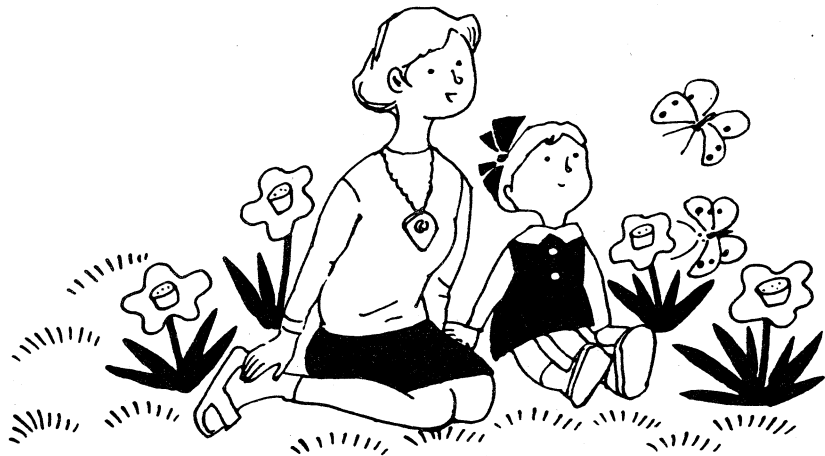
—3월 8일

—여성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한 노동권 연대를 위한 실천을 결의하는 날이래요. 자세한 내용은 너나들이를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죠.

§ 공과대학 대청소의 날

— 3월 8일

—새학기도 됐고, 봄도 됐고. 공대 주변부터 깨끗이 청소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학기를 시작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살거예요!!

입방식

22일

공과대학여학생회 95년 힘찬출발을 알리고자
고사도 지내고 떡도 먹고.

500 공대여학우 여러분!

쌀도 많이내고 예쁜 선물도 많이 사가지고

입방식 축하하러 오세요

22일: 단학대회

공대 1년 사업과 정책, 그리고 청년학생으로서의 우리의
자세에 대해 공대학생회, 여학생회, 각과 회장님들, 각 학년
대의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공대 최고 의결 기구

23일: 전학대회

28일 ~ 29일

런족 전대 27대 총학생회. 11대 총여학생회
축 번 식

여학생 예비대학을 마치고...

컴퓨터 공학과 1학년

김수진

지금 생각해 보면 여학생 예비대학을 하고 나서 참 많은 사람을 알게된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게 되는 대학생활의 여러 면모를 알게 되었다. 그 날은 과에서 해주는 전산교육에 참여하고 여학생회실로 가게 되었다. 사실 남자도 없는데 뭘 재미나 하며 빠질려고 했는데. 그때 선택을 잘했던 것 같다.

늦게 간 탓에 우리는 전문 강의는 받지 못했지만 폐강이 되어 쉬고 있는 한 언니(돌맹이 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돌맹이 언니는 폐강되어 하지 못한 강의의 한을 풀기라도 한 듯 우리들에게 좋은 도움말을 주셨다. 잠시 뒤 도착한 다른 과 여학우들과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손때가 묻은 김밥과 붙어터진 오뎅을 먹었다. 입에 짹짹 달라붙도록 맛이 있어서 김밥을 한 줄 더 먹기도 했다. 그리곤 '학내 갈고 다니기'를 했다. 항상 달려다니고 노래부르고 해서 길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재미있었다. 먼저 1학생회관을 갔다. 거기서 돌맹이와 쌤담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 코스는 사범대였다. 거기서는 사범대 여학생회 회장님의 가족관계를 알아 오라는 문제를 가지고 1조와 점수따기를 했다. 그리고 상대편 얼굴에 화장하기, 줄을 길게 늘어뜨리기 등 여러가지 놀이를 하였다. 다음으로 2학생회관을 찾아갔다. 여러 놀이를 하고 나서 새로 생긴 미용실, 찻집을 돌아보았다. 다음 찾아갈 곳은 법대였다. 법대는 공대를 싫어한다는 한 오라버니께서 M.T.를 주셨다. 내겐 그 코스가 가장 곤혹스러웠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반긴 곳은 가정대 였다. 거기를 향해 가는 동안 지는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에 감겨왔다. 가정대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가정대 전체 남학생 수와 그 사람들의 성을 알아맞추는 것이었다. 드디어 13명의 성은 알아 맞췄지만 마지막 남은 1명이 문제였다. 마지막까지 남은 한 명! 아직도 그의 이름 석자를 기억한다. 나/대/중/ 그뎨 왜 나씨 성이 생각나질 않았는지...

모두들 지친 몸을 이끌고 여학생회실로 돌아왔을 때 여러 언니들이 김치전을 부치고 계셨다. 맥주와 김치전이 앞에 놓이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뒷풀이로 각자 소개를 하고 노래도 한 곡조씩 불렀다. 정말 흥겨웠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가며 프랭카드에 한마디씩 썼다. 아직도 내가 쓴 글이 거기 있을 거라 생각하니 참 흐뭇하다.

예비대학은 그저 놀고 먹고 그냥 친구를 사귀는 것만이 아니었다. 앞으로의 대학생살을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보내야 겠다고 마음 먹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생활을 수월하게 해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감명깊고 좋은 자리였다.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채희 언니와 기자 언니께 감사하고 정말로 애쓰셨다고 말하고 싶다.

여학생회 학이팅!!!



신세대 세내기

자동차계열 1학년

이 훈 선

‘향겨’

정말로 고대했었지만은 너무나도 답답하게 받아들여진 소식!
‘대학이란 어떤 곳이다’라는 생각도 해볼 여유조차 없이 사회의 요구에 떠밀려 숨가쁘게 뛰어온 탓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대학이란 테두리 안으로 뛰어들었으니 모든 게 생소하고 어렵기만 한 것이 당연했다. 예전과 같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주시는것도 아니요, 모든 것을 내가 찾아가면서 해야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었다. 그 점을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수강 신청때였던 듯 싶다. 아무생각 없이 친구들과 같은 과목 신청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얼마든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 볼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모로 힘들게 보이던 대학 생활을 그나마 다른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 준것은 예비대학과 수련회였다. 사람이 사람과 부대끼릴 때 사는 맛이 난다나?

행사를 통해서 많은 동기들과 선배들을 알고나니 비로소 대학생활에 흥미가 붙게된 것 같다.

공대 특성상 남학생이 많고 여학생이 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사실 서로간에 말붙이는 것이 여간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었다. 벌써 6년을 떨어져 지냈는데...

그런데 예비대학과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남학우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많은 선배님들도 알게 되었다. 선배를 많이 알아두면 좋다는 말은 얼핏 들었지만, 선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역시 그 말이 옳구나 하는것을 실감할수 있었다.

행사상 특징은 조원이 모두 하나되어 행동을 같이 하는것이었는데 이런 생활 가운데서 개인보단 단체를 중요시하는 대학의 속성을 조금은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행사 분위기가 대학생활의 분위기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된 것은 어느날 도서관을 가보고 난 후였다. 행사때와 정반대로 보이는 대학문화의 한부분이 그곳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되지 않은 대학생활을 보내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일명 대학문화를 접해보았는데 그것은 너무도 복잡 다양해서 그 문화들을 모두 접해볼 수 아니 다만 알게만이라도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또한 아무런 비판없이 그것들에 젖어들게 되거나 앓을런지 싶은 우려도 해본다. 이제는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나와 대학 등등에 대해서 깊은 사고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리고 걸모습만이 아닌 정말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특히나 나 자신이 자부할 수 있는 진짜 대학생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학원 자주화 운동이란?

교수, 학생, 교직원을 학원 삼주체라고 한다.

학원 주체에게 학교는 노동자의 공장, 농민의 토지처럼 생활의 터전이자 가치 실현의 장이다. 학원 주체의 행복한 삶은 학교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원자주화 운동은 학원 주체가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려는 운동을 뜻한다. 오늘날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학원 주체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는 길은 자기의 처지를 자각하고 자기 힘으로 싸우는 길밖에 없는데, 이 싸움이 바로 학원 자주화 운동인 것이다.

여기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로, 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한 운동.

교육의 참된 사명은 학생들을 세계의 주인으로, 사회발전과 국민복리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이 사명의 실현을 기대하기란 고목에서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먼저 현재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한 사상, 현대적인 과학기술, 튼튼한 체력을 겸비한 사람을 키우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방법도 해설과 설복, 모범적 실천으로 학생을 깨우치는 방법과는 달리 교육자가 옳다면 옳고 틀리다면 틀린것으로 무조건 외우고 쓰는 현실이다. 교육환경 역시 '콩나물 시루 같은 강의실' '실습 한번 안하는 교육' 등 강의 시설과 실험실습 및 연구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원주체가 교과과정 개편, 강의 평가제 실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다.

둘째로, 학교운영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운동.

학교의 운영은 학원주체인 교수, 학생, 교직원의 요구를 실현하는 쪽으로 하려면 이들이 다같이 학교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이 학생이 내는 납부금과 국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에서 돈을 낸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학교 기성회비 편성과정에서조차 학생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으며 학사 행정 역시 교수님 위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올바른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 교직원,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셋째로, 사회적 보장을 만들기 위한 운동.

학교와 학원주체는 사회속에서 존재하며, 학생들은 졸업하여 자신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사회를 위하여 쓴다. 따라서 사회는 법, 제도적으로 학원 주체가 제대로 공부하여 이 역할을 다 할수 있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해마다 학사, 석사, 박사 등 고학력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취직자리는 절대 부족이다. 직장을 얻기 위해 4학년은 물론이고 심지어 1학년때부터 전공공부를 팽개치고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동분서주 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대학이 취업 전문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게 때문에 학생들은 교육정책, 교육관계법 및 교육제도를 바꾸기 위해 학교의 재정과 학생의 사회적 진출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줄것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학교는 학교다워이 하고 그곳에서 배우고 실험하고 연구하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유치원생도 다 아는 사실이다

열악한 학원 주체의 처지를 자각하고 끊임없이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가 학문탐구와 더불어 중요하게 제기 된다고 하겠다. 권리는 우리가 찾으려고 할때 비로서 권리로 다가오지 않지 않으면 종이 쪽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학생회 소모임 소개

「너나들이」 는 여학생 운동의 한 방안으로써 500공대 여학우 뿐만 아니라 4000공대 학우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단순히 여성문제 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올바른 관점으로 여성 문제를 바라 볼 수 있도록 글로나마 캐치고자 만들어진 소식지 입니다.

그리고, 우리 500 공대 여학우들간의 소식을 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너나들이에서는 여성사, 정세, 취업, 권장도서·비디오, 학내 편의 시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싣고 있으며, 특집으로 매달 관심사가 되는 문제를 자세히 풀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식지를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너나들이」 소모임 새식구를 모집합니다.

「비디오 소모임」

돈 안들이고 비디오를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

아마 비디오를 좋아하시는 분은 귀가 번쩍 띄이실 것입니다.

저희 여학생회 비디오 소모임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여성문제 관련 비디오를 통해서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여성문제를 깨닫고 인식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조금이나마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뜻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화를 통해 또다른 여인의 삶의 주인공이 되보고 여성들이 받는 고통과 시련 삶의 애환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월말에는 그달의 추천 영화를 직접 상영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여성문제를 공부해 보고 싶은 분, 서슴치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푹푹.

3·8 세계 여성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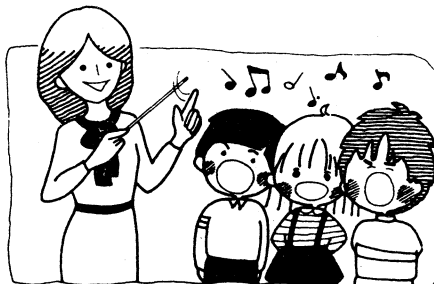
1910년 전 세계의 여성 노동자들은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여 매년 3월 8일이 되면 각국에서 '여성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한 노동권 연대를 위한 실천을 결의하는 날' 로써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수천년의 체념과 복종을 거부하고 착취의 종말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왔던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선거권과 노동 조합 참여권조차 없이 혹사 당해 오던 미국의 1만 5천여 여성 조동자들이 빵과 선거권을 요구하여 자본가와 군대의 총칼에 맞서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벌인 투쟁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노동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할 것,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유해 작업 금지, 여성의 단결권 인정' 등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바로 그것이 세계 여성의 날을 탄생시켰다.

우리나라 현재 여성 노동자들은 1920년대부터 여성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결의하는 3·8 여성 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기념 행사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이 어지지 못하다가 해방후 부활하게 되나 48년 이후에는 탄압으로 인해 그 맥이 다시 끊겨 1985년에야 계승되어 인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 사회적인 평등을 위한 투쟁의 날로 결의를 모아가고 있다.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1995년 진보적 여성단체는 선배 여성 노동자들이 총칼에 맞서 결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평등을 위해 상설 연재 활동을 펴고 있다.

올해 최고의 주안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세계 여성의원 평균율인 20%를 할당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 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95년 6월 27일 치뤄지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는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하나의 큰 시발점이 될 것이라 본다. 여성 노동자들의 빵과 선거권, 즉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실현 시키는 것에 초석의 역할을 할 것이다.



멕시코 폐소화 폭락과 한국경제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을 새내기들에게 보람있는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미와 함께 의미있는 내용을 담기란 쉽지 않기도 하려니와 정세란 워낙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 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1년 동안 보아왔던 여학생회, 그리고 소식지 '너나들이'와의 인연도 있고 해서 매물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딱딱한 정치 정세에 대한 글을 시간에 쫓기는 불쌍한 흥자를 생각하며 지겨운(?) 마음으로 쓰고 있다.

이번에 할 이야기는 1월에 있었던 멕시코 화폐인 페소화 폭락에 관한 것이다. 난데없는 멕시코 폐소화 이야기냐고 의아해하는 새내기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물이 증발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듯 모든 사물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멕시코 폐소화의 폭락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유추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글들은 서로 유사성을 갖고 있는 한국과 멕시코 경제를 비교하고 폐소화 폭락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 시장의 불황으로 국제 투자자들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개발도상국 시장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았다. 개도국 시장은 위험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값하는 수익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올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들 선진국에 투자해도 일정한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안전성에 수익성까지 보장된다면 국제 투자자금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개도국에서 자금을 회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던 투자자의 발길을 결정적으로 돌리게 한 것은 멕시코 통화위기였다.

멕시코는 고대 마야제국의 후손들을 스페인 제국주의자들이 노예로 삼고 식민지로 개척한 나라이다. 멕시코는 만성적인 정치불안과 지속적인 식민수탈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며, 쌓여가는 외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하여 일상적인 달러화의 초과 수요가 있어왔고 이로 인한 폐소화의 달러화에 대한 가치 하락, 수입물가 상승, 인플레이가 조장되었고 결국 외채지불 정지선언을 하는 경제적 파탄을 맛보았다.

이런 엉망이던 경제를 살리기위해 멕시코가 선택한 것은 멕시코 경제의 국제화와 세계화였다. 88년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본격적인 경제개방과 외국자본의 유치를 꾀하였으며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NAFTA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멕시코의 이러한 노력은 외국자본이 가장 유망한 투자지로 멕시코를 꼽게 하였으며 멕시코의 산업과 경제는 초고도의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제성장은 완전한 거품이었으며 마야원주민과 국민의 희생과 장기집권자들과 외래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작년 12월 19일 사파티스타 민족해방전선이 전쟁재개선언을 하자 거품은 사라지고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개발 도상국에서 불안해 하던 외국 투자자들은 정치불안이 자신들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며 일시에 자금을 빼내가 버렸다.

전쟁재개선언 하루만에 폐소화의 가치가 13% 하락하였으며 일주일만에 달러에 대한 가치가 절반 가까이 급락하였고 소비재 가격은 60% 가까이 치솟았으며 주식시장은 연일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였다. 멕시코는 취약한 경제여건 속에서 개방에 따른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한국과 멕시코 경제는 비슷한 면이 있다.

경상수지	한 국	-45.3	+3.8	-47
	멕시코	-248	-234	-280
외 국 인	한 국	57	110	35
증권투자	멕시코	48	107	37

또한 멕시코와 비슷하게 한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빚을 많이 지고있는 나라이며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에서도 독재정권이 장기집권을 하는 등 정치 경제 문화 적인면에서 너무도 유사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정부는 멕시코에서 몇년 전부터 외치던 국제화 세계화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리는 멕시코 경제위기로 부터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WTO 창설과 APEC 그리고 NAFTA 등 자본시장개방을 하게 하는 자질서와 시장개방 국제기구의 창설이 우리의 대안일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거품같은 세계화의 꿈에서 깨어나 노동자 농민과 함께 민족자립경제의 진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운수 좋은 날

김부장은 간신히 눈을 떴다. 희미하게 맞은 편 벽에 걸려 있는 시계가 보였다. 여덟시 반. 이놈의 마누라쟁이가 깨우지도 않고 밥 줄 생각도 않고 어디로 간 거야. 김부장은 다시 눈꺼풀을 치뜨려고 안구를 심하게 굴러보았다. 그러자 벽지의 사방연속 은색 꽃무늬가 줄줄이 흐르는 듯이 보이며 현기증이 덮쳤다. 그제서야 그는 엇저녁에 그가 역병으로 퍼마셨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제기랄, 그놈의 아스팔트가 왜 갑자기 내 마빡으로 달겨들어 찢적찢적 들어 불난 말이야. 난 어디까지나 똑바로 똑바로 걸었는데 말썹이야.

김부장은 중얼대며 누운 채 두 팔을 쭉 뻗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손바닥으로 안면을 한 번 쓸어보았다. 왼쪽 이마에 제법 큼지막한 반창고가 붙어 있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마누라의 화장대 거울 속에 그의 상반신이 따라 일어나자 그는 무척 난감했다.

이게 어디쯤서 넘어진 건가. 이걸 미상불 우리집 밥쟁이가 붙여준 걸텐데 김부장은 다시 심란해진 심사로 이불 속으로 기어 들었다. 그리고 보니 배도 몹시 쓰리고 고퍼왔다.

마누라는 지금 나흘째 딸 혜영이 방에서 자고 있다. 어제 술자리가 길게 늘어진 것도 바로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었던가. 김부장은 이과장과 그 아래 젊은 사원들을 향해 자신이 몇 번이고 시원스럽게 토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거 봐! 치마자리 푹푹하다고 승전막이 같까? 여자와 사기그릇은 밖에 내돌리면 못 쓰는 법이야, 알아! 자고로 이점에 있어서만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현명했던 말이야. 계집들이 문화센터니 평생교육이니 증권이니 하고 헛바람이 잔뜩 들어갔고 오늘날 나라꼴이 요모양 아닌가.

후배들이 박수를 친 것 같기도 하고 야유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김부장은 자신의 기억을 꿰뚫추려고 머리를 세차게 두어 번 털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마음을 다시 다부지게 조였다. 결국 마누라와의 이번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왔을 때도 그는 마누라에게 져고 딸 혜영의 대학 선택 때도 끝내 여자대학을 고집했던 그가 밀렸다. 그런 마누라가 이제 와서 증권강의와 모 신문사에서 개최한다는 주부대학까지 수강해야 되겠다고 나서자 그는 느슨해지려는 마음을 순간순간 야무지게 다지며 전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김부장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뱃속에서 꾸르륵하며 도랑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 이럴 때는 그저 시원한 국물을 한사발.

그는 나흘의 냉전이 갑자기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는 서둘러 옷을 아무렇게나 꿰어 입고 살금살금 소리나지 않게 주방쪽으로 갔다. 힐끗 현관 쪽의 어머니방을 훑쳐 보았다. 한뼘 쯤 문이 열려 있었다. 설마 그동안에 이 쪽으로 오시진 않겠지 하며 그는 싱크대 위의 냄비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먹음직스런 모시조개국이였다. 군침이 꿀꺽 넘어가면서 시장기가 맹렬하게 일어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릇과 국자를 준비했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방문이 제껴졌다. 그는 불에 덴 것처럼 얼른 국자를 떨어뜨리고 천연덕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었다. 마치 물을 먹기 위해 주방에 들어온 듯이.

“아범아, 뭘 하나야?”

“아아니요, 목이 말라서요.”

“들어가거라, 내가 갖다주마.”

그는 마치 못 들어올 곳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처럼 얼른 돌아섰다. 아암 사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체신머리없이 함부로 부엌간에 얼씬거려서는 안 되는 법이야. 어머니의 평소 가르침이 만고의 진리임을 다시 새기며 그는 쓰린 배를 움켜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둘러 출근준비를 했다. 회사 옆골목에 있는 해장국집으로 직행하기 위해서였다. 택시 합승에 겨우 끼어들어보니 앞과 양옆으로 모두 중년여자들이 타고 있었다. 화장품 냄새와 그녀들의 붉게 칠한 입술 등이 모두 역겨워졌다.

원 나이 지긋하면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하며 열심히 살 일이지 사대육신 멀쩡한 남자들도 일자리가 모자라는 판인데 저런 늙다리들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실업률이 자꾸 늘어나지.

그는 택시문을 신경질적으로 닫고 해장국집으로 급히 걸음을 떼었다. 그런데 이게 웬사람들인가. 회사 맞은 편 M방송국 정문앞에 사람들이 잔뜩 뒤엉켜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였다. 자세히 보니 도로에 아예 주저앉아 있는 무리는 모두 바지차림의 여대생들이였다.

서울시내 있는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라는구먼.

방송국에서 아예 병역필 대졸남자들만 채용한다는 광고를 냈잖어. 그러니까 와서들 항의하는 게지.

“취업기회 성차별이 웬말인가.”

“대기업은 남녀차별 철폐하라.”

플랭카드를 든 여학생 하나가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쥐고 선창을 하자 모두 같이 따라하는 일종의 데모였다. 목소리도 카랑카랑한 그 여학생은 바로 자신의 딸 혜영이였다.

♣작지만 알뜰한 공간!!♣~~~~~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의 땅 용봉골은 33만평!

무지하게 넓지요. 그래서 이런것 저런것 대학인으로서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알뜰 공간에서는 이런 학내에 있는 편의 시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호에서는 겨울방학에 새롭게 문을 연 미용실과 찻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학내 미용실

자신의 개성을 헤어스타일로!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더군다나, 민족 전대 8천
여학우들의 힘으로 만들어 낸
곳이니 더욱 의미가 깊겠죠?

어 디 : 2학생회관 2층

개장시간 : 9:00~7:00

따 르 룡 : 520 - 6212

찻집 작은마음

짜투리 시간!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벗들과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다면...

어 디 : 2학생회관 2층

개장시간 : 이른 9:00~늦은 9:00

따 르 룡 : 520-6218

이달의도서

새내기는 싯물이다.

막 쏟아져 나온 펄펄 끓는 싯물이다.

대학은 항상 새롭다.

거기에 새내기라는 싯물이 흐르고 있기에...

새내기 일년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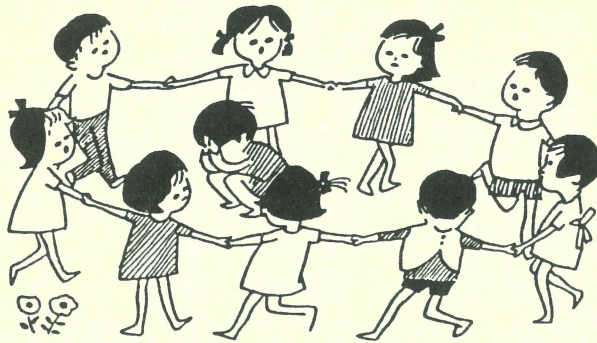
경험이 주는 교훈보다 더 나은 스승은 없습니다. 생활 속의 고민, 그것보다 진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책은 대학 1년생의 생활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만남. 학문. 학생운동. 역사와 철학. 사랑. 일...

이런것들은 어떤 한사람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새내기 모두의 생활과 고민이 흐르는 철로입니다.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꾼들이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따뜻한 비판을 기다립니다.

전화 : 520-7459

너나들이

제 9 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5. 4



● 이달의 특집

- 총여학생회 출범식을 보고서
- 공대인의 하나됨
- 너에게 한총련을 보낸다.
- 왜 남학우들은
여학생휴게실에 못들어갈까요?

● 함께 고민하는 마당

- 2만학우의 단결로
박승희 열사의 환한 웃음을

● 여성 이야기 주머니

- 단지 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 교사 성폭행 사건

『너나들이』는요... !!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과 여학생회가 항상 너나들이가 되면 좋겠네요 !!

임을 위한 행진곡

의문의 백고비를 넘긴 새벽
밤내 격랑의 비다가 잠든듯
이주 짧은 순간의 평온
젖은 눈동자가 검게 반짝이며 너는
5월 18일을 확인했다.
깊은 우물물에 목욕을 하고
정확수를 받는듯한 깨끗한 눈망을
터끝없는 이슬처럼 기지런한 네모습을 보며
왜 그렇게 내 가슴은 철렁 내려 앉았을까
붕대를 감은 손을 들어
언니 노래 좀 불러줘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이름도 명예도 남김없이
한평생 싸우지던 뜨거운 맹세
소리없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너는 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예감된 시간을 두려워 하며
너는 눈을 감았다.
세월은 흘러기도 산천은 안다.
태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이 도시에서 그렇게 사람들은 죽어갔다.
그 해 오월부터 애마다 애마다 노래부르며
앞서서 가나니 산지어 따르리
앞서서 가나니 산지어 따르리
이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노래일지라도
이것이 이시간이 우리들 마지막 눈맞춤일지라도
앞서서 가나니 산지어 따르리

코스모스 체전을 치루면서 단합된 힘과 체력(?)을 중간고사에
집중하고 계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 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학생에게 4월은 가슴 한 구석에 소중한 함으로 남
아있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배 열사들의 뜨거운 함성이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 하고, 영
령들의 영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1995년 4월.

35년만에 제 자리를 찾은 4·19혁명

4·19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 합니다. 혁명을 완수하려는 노력
이 우리 후손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91년 백주대낮에 정권이 휘두르는 외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강 경 대 열사.

2만 학우 단결투쟁! 노태우 퇴진!을 외치며 강경대 열
사의 죽음에 항의해 제 몸에 불을 당겼던 박승희 열사.

열사들의 애국적인 삶을 따라 배우며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중 간 고 사 살 보 세 요 !!

'95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김채희



그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 공과대학 여학생회 입방식

-3. 22

-공대여학생회의 킷찬 축하를 알리는 날
고사도 지내고요, 떡도 먹었어요!!

♣ 전체학생 대표자 대회

-3. 23

♣ 단대학생 대표자 대회

-3. 24

-정족수 미달로 운영위원회로 안건 상정됨

♣ 총여학생회 출범식

-3. 28

-제 11대 총여학생회 출범식을 독자적으로 치뤘던 행사.
랑탁연 꼬마 아이들이 축하한다고 공연을 해줬어요!

♣ 총학생회 출범식

-3. 28-29

-제27대 총학생회 출범식을 전야제와 함께 모두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 총여학생회 3월 총화 대회

-4. 5

-각 단대 여학생회 간부들이 모두 모여 3월을 평가하고 4월을 계획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꽃씨뿌리기

-4. 12

-박승희 영사 생일을 맞이하여 교내 곳곳에 코스모스 꽃씨를 뿌리는
행사를 가졌답니다.

♣ 공대 코스모스체전

-4. 13-14

-공대 최대 잔칫날

모두들 우승을 위해서 뭉뚱을 가리지 않고 악으로 깡으로 싸사!!
이번 체전은 여학우 경기도 종합전수에 가산되었어요!

♣ 4. 19 혁명 기념 민주당 이기택 총재 초청 강연회

-4. 20

그 리 고 이 령 게 살 기 예 요 ...

▶ 박승희 열사 분신 4주기 추모 기간

-4.26-29

-승희 열사의 애국적 삶을 따라 배우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남총련 출범식

-4.29

-자주의 햇불 제 4기 남총련 출범식이 민족전남 대학교에서...

남총련 의장님은 전남대 총학생회 회장 이몽석 학우

▶ 박승희 열사 분신 4주기

-4.29

▶ 과여부장학교

-5.1-2

-각 과 과여부장님, 회장님들과 함께 과 여부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

▶ 한총련 출범식

-5.4-6

-대구 경북대에서...

한총련 의장님은 고려대 총학생회 회장 정태홍 학우

▶ 익술문화제

-5.8-10

-현재 정세 안에서 학우들과 함께 여성 문제를 분석, 고찰해 볼 수 있는 익술문화제

총여학생회 출범식을 보고서...

고분자 정밀화학 공학과
1학년 최미리

출범식은 새내기인 나에는 무척이나 생소하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척이나 흥미스러운 것이었다. 학교를 왔다갔다 하면서 벽에 붙은 총여 출범식 포스터를 보아왔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 쑥스러웠다. 그런데 당일 정승사거리에서 공대 학우들이 함께 모여서 가는데 나도 함께 가자는 기자 언니의 말에 너무나 반가웠다. 나는 너무나 들떠서 과 남자애들까지 데리고 식당으로 갔다.

정전이어서 식은 지연되고 있었지만 각 단대마다 깃발을 휘날리며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 공대도 빠질세라 대학에 들어와 제일 많이 해본 스테레오 게임을 하였다. 그러던 중 채희 언니의 사회로 식이 시작 되었다. 광택연 아이들의 어설피지만 귀여운 울동시간도 있었는데 무대 가운데와 양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있기만 하던 꼬마는 그날의 대스타였다. 그 다음으로 법대 새내기들이 꾸민 폰트와 몇개 단대의 힘이 넘치는 울동또한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그 모든 것들이 총여 출범을 얼마나 축하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앞으로 8천 여학우들을 위해 온 힘을 쏟으실 총여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간부님들의 소개도 있었다. 소개되는 총여 임원들을 보면서 나를 비롯한 8천 여학우들이 믿고 의지할 곳이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자랑스러웠다. 모든 식이 끝나고 그 다음날 있을 총학생회 출범식 전야제가 있었다.

작년까지는 총여와 총학 출범식을 같이 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한다. 그 말은 듣는 순간 여학우들의 지위가 상승하였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여학생회가 빠른 기간 내에 없어져야 한다는 한 선배님의 말씀이 뇌리를 스쳐갔다.

성차별이 없는 대학, 학내의 꽃이기 전에 한명의 동등한 학우로서 인정받을수 있는 대학에서는 여학생회가 필요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민족전대 총여학생회가 아무일 없이 순탄하게 지내길 진심으로 바란다.

자주 총여 하이팅 !!

공대인의 하나됨

자동차공학계열 1학년

김지은

대학 합격에의 기쁨. 신입생들만의 호기심이 사라지고 슬슬 학교 생활에 권태(?)를 느낄 때 쯤. 또 하나의 shocking한 사건이 나에게 다가왔다. 바로 공과대학 체육대회인 코스모스 체전이다. 체육대회는 국민학교때부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치뤄오던 일이었지만 대학생이 되어 처음 맞는 공과대학 체육대회는 또다른 느낌으로 나를 자극시켰다. 물론 이들 동안의 휴강이라는 사실도 나에게 자극을 준 이유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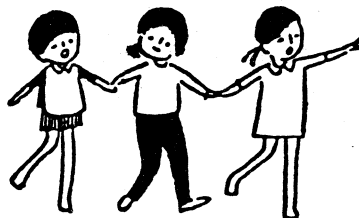
따뜻한 봄날 대운동장을 찾은 나는 약간의 실망감을 버리지 못했다. 정말 성대하고 화려할 줄만 알았는데 각 과마다 참여도가 너무 낮아 공대 체전이 아니라 동네 운동회 같았다.

마침 체전과 공과대학 학생회의 출범식이 함께 어우러져 나는 대학인의 자율성에 대해 새삼 느끼게 되었다. 단출한 출범식이었지만 우리의 23년 선배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한 율동이나 노래들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고등학교때까지 거의 12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윗사람들로부터 지시받고 그 사람들에게 의해 할 일이 정해졌던 것과는 달리 자신들 스스로가 뭘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모습에서 대학생정도면 이 정도의 자율성과 판단력 그리고 성숙한 정신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느꼈다.

출범식이 끝나고 기다리던 체전이 시작되었다. '공대인의 하나됨'을 기치로 댄스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우정을 다지는 모습은 젊은이들에 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번에는 여학생들의 인기도 대단했다. 불행하게도 내가 참가하고 구경한 것은 줄넘기뿐이다. 자동차공학계열과 컴퓨터공학과와의 경기에서 99 : 100으로 컴퓨터공학과가 승리하였다.

99 : 100이라니, 일부러 만들려해도 힘들 에피소드가 아닐까.

함께 땀을 흘리면 더욱 친해질 수 있다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닌 것 같다. 우승이 목적이 아닌 친목 도모가 목적이었고 코스모스 체전은 끝이 났다. 하지만 그 행사를 통해 만날수 없었던 다른 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짝튼 동지애는 행사의 끝과 관계없이 계속 이어질수 있을 것이다.



너에게 한총련을 보낸다.

TV나 신문등에서 많이 접해보았던 한총련의 모습!

그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과격” “폭력” “좌익” “수사파”등등 그러나 우리가 대학생이 된 이상 한총련이라는 대학생 조직에 대해 최소한 알아보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사실을 알아보는 것이 대학인의 최소한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총련에 대해 궁금해하는 400 공대 여학우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한총련은 어떻게 만들어 졌습니까?

예전 전두환 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계속 유지 시키려고 수많은 음모를 벌이고 불법으로 법까지 개정하면서 발악하고 있을때 학생들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 전두환 정권퇴진을 위해 투쟁을 하였던 때가 87년 6월이었습니다. 학생, 노동자, 회사원, 선생님, 교수님, 종교인, 주부 등이 모두 투쟁을 하였지만 그 선두에는 항상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전국적인 학생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전국 87개 대학의 총학생회장이 모여 전국 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을 결성하게 되었고 그해 여름 충남대에서 제 1기 전대협 출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계속 성장하여 드디어 93년 한국 대학 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으로 발 전된거죠. 현재는 전국 203개 대학으로 확대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되어 대학생의 조직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 한총련이 왜 필요합니까?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의 건설 과정을 보았듯이 전국의 대학인들의 전체적인 고민들을 모아내 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일제시대 부터 억압받던 국민들을 대변해서 세워왔던 학생운동은 지금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문제들을 모아서 투쟁하고 있고 나아가 조국이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한총련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군부독재시절 학생운동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지지하였듯이 지금도 김영삼 정부가 잘못하는 이를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야하고 그일을 우리 학생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인정한다면 한총련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 한총련은 몇몇 소수의 단체라고 들었는데요?

흔히 한총련 하면 100만 학도의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각 학교 학우들이 직접선거로 뽑은 단과대 학생회장, 총학생회장님이 한총련의 대의원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한총련은 전국 203개 대학이 가입되어있고 200여명이 운영하는 중앙위원회, 2000여명의 대의원이 참가하는 대의원 대회 속에서 한총련 1년의 사업을 결정하고 실천합니다. 또한 한총련 출범식은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모여 축제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출범식은 전국에서 8만에서 10만이 모이는데 이 인

원은 대학생 10명중 1명이 오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하지만 모이는 인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한총련이 전국의 100만학우들이 바라는 것을 얼마큼 모아서 이뤄 낼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93년부터 한총련에 학자위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학자를 고민하고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수의 과격학생들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한총련을 음해하려는 것입니다. 한총련은 절대로 소수의 모임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전국 100만 학우의 조직입니다.

ㄸ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는 무엇인가요?

93년 한총련이 처음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기치가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예전 투쟁을 중심으로 한 사업방식을, 학우들의 삶의 영역으로서 한총련 사업을 넓혀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는 생활/학문/투쟁을 각각 따로 따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에 생활/학문/투쟁의 내용이 모두 담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ㄸ 문민정부인데 한총련은 왜 데모를 할까요?

사실 요즘 집회를 하고 가두로 나가면 국민들의 호응이 별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집회에 나오는 학생들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사실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학생운동이 필요했지만 문민시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민시대라고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사정은 자신의 정적을 몰아내는 역할만을 했고 금융 실명제 등의 개혁작업은 알맹이가 속 빠진 개혁이었습니다. 또 문민시대에도 세금비리와 공무원 비리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부독재를 끝내고 문민정부를 만들어 낸건 국민들의 힘이었지만 이 문민 정부가 예전의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길을 간다면 그것으로 문민정부에게 기대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요즘 정부와 민자당이 바로 예전 군부독재정권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선거를 연기하려고 했었고 물가는 치솟는데 세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한총련은 이러한 문민정부의 실정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식의 대안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총련이 지금도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는 이유입니다.

<p>자랑친 전대협 선배들의 발자취를 이어 당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노래이며 실천하는 한총련 백만 애국자 모두를 한총련 출범식에 초대합니다.</p>	<p>연재: 5월 4·5·6일 어디서: 경북대학교 준비물: 라이타(?)</p>
--	--

여 남학우들은 여학생 휴게실이 못 들어 갈까요?

『여학생회실과 휴게실 벽 설치』

“왜 여학생 휴게실은 있는데 남학생 휴게실은 없어요?

이것이 남녀 차별 아니에요?”

으레껏 여학생 휴게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남학우들이 한번쯤은 던지는 말 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고정된 성관념은 남녀의 다른 행동양식을 요구합니다.

흔히들 잔디밭에 남학우가 누워 있으면 잔디밭의 편안함을. 그리고 그 남학우의 평온을 이야기 하지만 여학우가 누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여학우에게 돌아갈 찌푸린 눈살. 여자의 행동거지가 저래가지고 되겠냐는 뒷 이야기!

이러한 여학우들의 존재적 특성에 기반해 여학생들만의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죠.

여기서 공대의 상황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몇년 전부터 여학생회실과 휴게실의 분리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겨우 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실 뿐아니라 화장실 자판기, 여자 화장실의 부족등 여학우들의 복지 사업 수준은 현저히 낮은게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학우들만의 공간. 여학생 휴게실. 여학우들이 직접 찾아와서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여학생회 두리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지난 달에 실시한 공과대학 여학생회 설문지 분석 및 결과보고

대부분의 학우(78%)들이 여학생회실과 휴게실의 분리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휴게실 공간을 따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48%)이 벽을 설치하자(30%)는 의견보다 좀더 많았습니다.

이에 여학생회실에서는 일단 5호관에 있는 여학생회실에 벽을 설치하여 휴게실과 여회실을 분리시켰고 6호관이 완공되면 계속적으로 6호관에 별도로 여학생 휴게실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휴게실에 상비약, 여성관련 서적, 신문 등을 구비하고 화장실에 생리대, 화장실 자판기 설치 문제도 계속적으로 본부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만 학우의 단결로 박승희 열사의 환한 웃음을...

4년전 91년의 봄은 참으로 따사로웠다. 하지만 우리 청년 학생들은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다. 고 박 승 희 열사!

전남대학교의 역사에 아니 서러운 한반도의 역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아픔으로 남을 뜻다운 스무살, 어린 사슴 소녀의 분신은 91년의 봄을 투쟁의 불길로 타오르게 했다. 91년 4월 26일. 백주 대로에서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한 청년이 맞아 죽었다. 그 청년은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자 투쟁했다는 이유만으로 짧은 열아홉의 생을 마친 것이었다.

명지대 학우 강 경 대 열사! 그리고.....

전남대 교정에 검붉은 화염이 타올랐다. 4월 29일이었다.

불감증의 시대. 무관심의 시대를 안타까와하며 전남대 식품영양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던 박승희 열사가 “2만학우 단결 투쟁!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미국놈을 몰아내자!”를 외치며 분신 항거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온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민중들의 삶을 외면하고 오직 미국의 이익에만 충실했던 노태우 정권은 이렇듯 이땅 한반도의 꽃다운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박승희 열사는 여리디 여린 여학우였다. 최루탄에 맞아 눈이 실명되고,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는 학생이 있는 이땅 한반도의 현실에 마음 아파하며 미국의 지배와 정권의 탄압에 자신의 몸을 불태워 항거할 수 밖에 없었던 스무살의 가녀린 여학우였다.

4년이 지나고 95년의 봄이 왔다. 평범하고 여린 한 여대생을 망월동의 차가운 땅 속에 묻고 우린 살아가고 있다. 박승희 열사가 외쳤던 2만학우 단결과 생활속에서 보여주었던 커피, 콜라 안 마시고, 비누로 머리를 감고 식초로 헹구어내던 성실함 그리고 하루의 건강한 시작은 자신의 생활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며 청소도 잘 하고 주변 사람들을 항상 챙기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2만 학우의 단결로 박승희 열사의 환한 웃음을...

평양 경공업 대학에서 박승희 열사에게 졸업증 수여!

박승희 열사의 분신 직후 1991년 6월 3일 북한의 평양 경공업대학에서는 박승희 열사를 자기대학 식료공학부 실료가공공학과에 명예학생으로 등록하였었다.

이어 4년이 지난 1995년 3월 12일 평양경공업대학 제 35회 졸업식에서 이 대학 최효지 학장에 의해 졸업증이 수여 되었으며, 졸업증은 박승희 열사를 대신해 한승준 부학부장이 받았다.

미국반대와 조국의 통일,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태우신 박승희 열사의 영전에 우리 대학의 졸업장이 평양경공업대학의 졸업증과 나란히 놓일 수 있는 진정한 자주 민주 통일된 조국을 그려 본다.

당지 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긋해 씨는 참담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세상에 이럴수가 있는가 싶었다. 아무리 직장 상사라지만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닌 현나영 대리가 조금 전 경제 서류를 내팽개치며 한 말 때문이었다.

“남자들이랑, 장가나 가지. 뭐하러 직장에 꾸역꾸역 기어들어 오는지 몰나.” 이 말을 들은, 같은 사무실의 남자 사원들은 모두 울분을 느꼈지만 하루 이틀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투로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었다. 어긋해 씨는 대학을 졸업하여 입사한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선배들이 말한 것을 하나하나 겪고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도 부모님들이 남자가 대학엔 가서 뭐하냐는 구박 들어가며 어렵사리 대학 와서 남자들은 취업이 어렵다는 선배들 말을 듣고 3학년 때부터는 서클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영어학 상식에란 매달려서 여자들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들어왔는데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긋해 씨는 친구들이 어긋해 씨의 취업을 굽지 않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긋해씨는 1미터 80센티의 키에 수려한 눈매, 짙은 눈썹, 건장한 체격으로 학교 다닐 때부터 여선배들이 군침을 흘려온 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긋해 씨는 연애 한 번 잘못했다가는 장가도 못 갖까 봐 마음이 드는 여자는 있었지만 쉽사리 사랑에 빠지지도 못하고 4년을 보냈다. 하지만 어쨌든 입사 면접에서 어긋해 씨보다 훨씬 성적이 좋은 군대동기가 못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졌노라고 분해하는 것을 보면 역시 학교 다닐때 돈들여서 헬스클럽 다녀서 군살 빼고 웃을 때도 멋있게 웃는 연습을 평소에 착실히 해둔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장가 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어차피 이 직장도 장가가면 그만두어야 할 판인데, 자기 실현은 고사하고 매일 복사나 시키질 않나 여자들 은행신부늬를 맡기질 않나 심지어 입사동기인 서정연 씨는 자기 생리대까지 약국에서 사다달라는 판이니 열불이 나서 견딜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일언지하에 그런 부탁을 거절하자니 저 남자는 싸가지가 없다느니 장가가길 튕겼다드니 별 소리를 다 들으니 안 할 수도 없는데다 같은 입사동기 남자들 중에서 자진해서 “자영 씨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커피 뽑아드려요?” 그러면서 아양을 떨니 그런 걸 문제삼는 남자들은 아예 성격파탄자 내지는 비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로 낙인찍혀 회사 안에서 좋은 신분감 얻을 생각을 애시당초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런 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자사원들이 노골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며 자기가 당함하는 걸 즐기는 것은 도저히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

이었다. 여사원들의 응담패션은 어긋해 씨가 몰라하면 더 강도가 심해지고, 어긋
해 씨가 그말하라고 한나도 낼라치면 또 성격이 이상하네, 농담도 못하네, 어쩌구
그러면서 뺄뺄하고, 락 웃어대면서 락장구를 쳐주면 지들끼리 술자리에 가서 저
남자는 날라리네 걸레네 어쩌구 떠들어대니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일이었
다. 선배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신경쓰지 말고 아무 표정도 짓지 말고 그저 다소곳
하게 있으라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도 말하 하는 건 나은 편이다. 세숫대야와 뽀뽀가 좋은 덕분에 어긋해 씨는
온갖 일을 다 당하는 것이다. 입사면접 때도 중역으로 보이는 40대 아줌마가 느물
느물 자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는가 하면, 친진실 대리는 노골적으로 술 향잔 하자
며 자기를 데리고 가서는 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바깥에 하마터면 퍽박할 뻔한 적
도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30대 중반의 김미숙 과장은 경제서류를 넘겨 주면서 은근슬쩍 손
을 짚는가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부딪히면서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손으로
슬쩍 치고 가며 어긋해 씨가 놀라 쳐다보면 씩 웃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쪽팔려서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집에 가서 이를 수도 없고 정말 사람 미치게 하
는 거다. 그래서 분을 못 참고 가서 따졌더니, “아니 이 남자가 어디 가서 행패
야? 이게 누구 가정을 파괴할려구 이래?” 하며 장아떼는 데는 당할 도리가 없는
것이였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이지 회사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직장 가진 남자
좋아하는 요즘 여자들 취향 땀에 그말들 수도 없었다. 그래서 사무실에선 여자는
총에 피우지 못하니 욕상으로 몰나가 담배나 한 대 피워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욕상에 몰나가니 한기통 저편에서 아늑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게 영 이상해
서 몰래 가보니 입사동기 김현수 씨가 영업담당 이사인 김순자 씨와 찢한 신을 벌
이고 있는 게 아닌가.

에구 못 볼 걸 봤다 싶어 들어가려는데 그만 이사와 눈이 마주쳐버렸다. 에구 낭
패다 싶어 황급히 뒷걸음질치는데 갑자기 발걸이 허전하더니 으악 하는 비명소리
와 함께 어긋해 씨는 욕상에서 곤두박질을 쳤다.

“어긋해 씨 일어나세요…… 무슨 잠을 그렇게 주무세요? 자 커피 드세요. 아까 3
시에 커피 빼다 달라고 그러시고선……”

어긋해 씨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회사 사무실의 시
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눈 앞에는 미니 스커트를 입은 서정연 씨가 자
판기 커피를 받쳐 들고는 교태로운 웃음을 짓고 있었다.

‘아 꺾이었구나!’

어긋해 씨의 와이셔츠는 온통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서정연 씨 커피 고맙워요, 으…… 다음엔 제가 빼다 먹을게요……”

..... 산업공학과 2학년 최 기 자

교사 성폭행 사건

‘태인여중 김교사 성폭행 사건’은 성폭력 특별법 제정 이후 직장 상사에 의한 상습적인 성폭행 사건 1호로 불리면서 특히 사건발생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다.

89년 9월 김교사는 무용교사로 처음 부임한 태인여중 (교장 정병모)에서 동료교사는 물론 학교 경영자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시골학교에서 가당치도 않던 무용부를 만들어 전국무용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다. 이렇게 희망만이 있을 줄 알았던 앞길에 먹구름이 낀 것이 93년 9월 상상도 못했던 성폭행사건이 자신의 일로 닥쳐왔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덮어두려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위력을 동반한 은교장의 상습적인 성폭행과 조직폭력배의 협박 앞에서 김교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교직에 대한 미련은 물론 개인적인 명예마저 버릴 수 있다는 결심을 했다. 그래서 94년 5월 은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피고 은씨에게 무죄를 선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8차공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피고 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학교측은 은씨의 부인을 재단 이사로 임명해 김교사를 해임하였고 이에 불복한 김교사가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해 신분을 회복했으나 학교측에서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교사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언론 기관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의 경우 1심 판결 이후부터 김교사와 결합하면서 ‘김교사 성폭행 사건 공동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공동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의 박상희목사는 “고소율이 과거 2% 수준에서 최근 25%로 엄청나게 높아지는 등 여성들의 의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성폭행 사건을 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나 사건현장의 수사관계자, 사법부의 재판 태도는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취지를 다시한번 환기시키겠다고 밝혔다.

내 전공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에게 졸업후의 진로를 생각하라고 한다면 아직은 아주 먼 얘기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장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봄으로써 학과공부를 통해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과 공부에도 충실하게 되고 보다 알찬 학창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학과별 자격 취득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학과와 관련된 자격 취득 방법에는 재학중에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과 동시에 얻어지는 자격인 취득자격과 재학중에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과 동시에 수험자격을 얻을 수 있는 취득 수험자격, 그리고 학과 과목이 시험과목에 포함돼 다른 학과의 수험생보다 자격 취득에 기득권이 있어 목표로 하면 좋은 목표자격 등 세 가지이다.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자기 학과가 어떤 자격 취득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백도에 위치한 장학담당관실에서는 저학년을 위한 진로가이드북을 무료로 배부중인데 진로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다음(10호)에는 「여학생 취업전략」이 소개됩니다.



.....무기재료공학과 2학년 정 인 옥

♣작지만 알뜰한 공간!!♣~~~~~

면학분위기 조성 위한 방음벽 설치

어느날 아침 버스에서 내렸는데 빨간 벽돌 담은 어디로 사라지고 학교가 흰히 내다보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 공대학생회 인복위원장님을 찾아가 물어보았는데 이유인즉 후문에서부터 기숙사 쪽문까지 방음벽이 설치된고 한다.

광주시는 오치 간 간선도로(우치로)의 **차량 소음과 매연**, 그리고 **면학 분위기 조성**, **크게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방음벽 설치는 93년부터 공대에서 먼저 건의되어 이어져 온 것이고 총학생회의 공약사업으로도 내걸어졌던 것인데, 드디어 지난 2월 광주시에서 공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공사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북구청에서 주관하며오는 6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후에 생겨나는 딱딱함과 미관의 좋지 않음을 막기위해 양면에 모두 **벽화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공대 쪽문은 현재 크기대로 유지시켜 설치하기로 했다.

방음벽이 설치되면 우선 공대 도서관, 5호관, 4호관등 도로와 가까운 강의실 연구실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것 같다. 공과대학의 큰 발전이 기대된다.

이달의 도서

껍데기를 벗고서 3

일그러진 현실의 틈바구니 속에서 미래를 위해 싸우고 고민하는 대학생들. 특히 여대생의 시선으로 여대생 자신의 문제를 다룬 책이다. 대학생 활에서 경험하기 쉬운 성·사랑을 둘러싼 고민, 취업과 결혼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평등하다고 하는 학교에서조차도 여자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했던 생활과 시선들, 거기에 더해 졸업 후의 더욱 거세어지는 여자로서의 차별대우 등을 현실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지표를 정립하고, 성숙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사회구조적인 문제의식과 연결하여 조언하고 있는 이책은 각 분야에서 껍데기를 벗고 거듭나기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컴퓨터 공학과 1학년 김수진

여학생회 소식지

너 / 나 / 드 / 이 를

마치고 나서 한 마디 ?

* 보고하세요,
우리 95 세대기들만 보면
오전당께.
- 근기개 -

끝났다.
- 두렁 -

report도 해야 네사들이도 해야...
이러야 리 해야방사 되겠네요...
다음부터 제가 직접 할게요.
그리고 언니들 수고 했어요.



처음이어서 무지
생경 썼으랴!
재밌게 봐주세요 -
순먹을때 나 빼면
안티눈겨 안겨요? 히히히

- 美 -

체육대회 하나라
시험공부 하나라 바블텐데
고생 많. 슈다.
글고 우리 고생했음께
드디어는 매주론 하나자.
즈즈즈 수건. 17가 절 좋아하네.
- 눈자. -

싫어. 배부른다.
나는 신 마설게여.
채희 언니랑 ~ .

- 기영 -

첫 원고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무척 다행이예요. 소식 전해준
공대 창호 오빠께 감사 드리고
모두들 애썼어요.

모두에게 쪽 ♥ 인

- 수지 -

커피전문점

MEZZO

☎ 261-4001

(전남대 공대 쪽문앞 1층)

전통차

마당
깊은 집

☎ 265-4192

(전남대 공대 쪽문 맞은편 3층)

신토불이

신세대 소주방

☎ 265-1323

전남대 공대 쪽문과 후문 가운데(지하)

일반대중식당

선비촌

☎ 261-0861

(전남대 공대 쪽문 맞은편 1층)

너나들이

제 10 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5. 5



- 이달의 특집
 - 깨어있는 대학생
 - 5·18 민중항쟁 15주년 오늘의 여성
 - 민족의 아픔, 정신대 할머니들
- 만나보고 싶었어요.
 - 남·여대협 의장님
- 함께 고민하는 마당
 - 이적행위를 하는것은 바로 김 0 3 이다.
- 여성 이야기 주머니
 - 모임의 주인으로 내삶의 주인으로
-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 주한 미군의 범죄는
 - 우리의 무관심이 부른다.
- 취업 소식란
 - 여대생 취업 전략

《너나들이》는요... !!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과 여학생회가 항상 너나들이가 되면 좋겠네요!!

꽃 들

꽃은 계속 피어야 아름답다
꽃이 피면 지기 마련
한번은 꽃이 시들어간 젊음이여
먼 기억의 편으로 떠나간 꿈들이여
바람으로 흩어진 꽃들은 말고
흙으로 돌아간 꽃들은 말고
아직 이 강토에 서성대는 발길이여
너희 돌아와 꽃으로 필 그날이여
꽃은 계속 피어야 아름답다
한때는 지천을 흔들며 피어난 너를
조국은 서슴없이 꽃으로 불렀나니
머나먼 과거의 추억으로 말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도 말고
떨리는 피와 살로 다시 필 꽃들이여
꽃은 계속 피어야 아름답다
이제는 다시 돌아와 들꽃이 될
너희여!
그리움만 남기고
목마른 창살의 기인 긴 기다림만 남기고
떠나간 젊음이여
어둠을 뚫던 백주대낮의 허위를 뚫던
꽃이여 다시 찾은 시대의 정신이여
꽃은 계속 피어야 아름답다.

5월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싸우자던 뜨거운 맹세...

해마다 5월이 되면 악몽처럼 떠오르는 기억들!

그러나 5월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15년전 우리의 선배님들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한목숨 아낌없이 바치며 투쟁하였습니다. 광주 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정권이라 말하는 문민정부는 5.18을 역사에 맡기겠다고 하여 우리 광주를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 때 백만 학도의 우뚝 뻗은 손으로 함께 외쳤던 5월 학살자 기소관철 학살자를 법정으로 5월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5월은 광주만의 5월이 아닙니다.

애국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4천만 국민. 7천만 겨레 모두의 5월입니다. 80년 5월. 우리 여성들은 23일을 기점으로 YWCA 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두방송, 대자보 선전, 시민군의 음식물 제공, 부상자 치료, 헌혈활동등 광주 민중 항쟁의 주체로서 함께 떨쳐 일어섰습니다.

95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고민해보고 그 분들의 혁명 정신에 욱되지 않게 치열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

♫ 박승희 열사 분신 4주기 추모 기간

- 4. 26~ 29

- 승희열사의 애국적 삶을 따라 배우는 기간이었는데 학우 여러분들은 많이 배우셨어요?

공대 5호관 1층 분향소에 마련한 노트에 학우들이 좋은 말 많이 써 주셔서 지난 5월 19일 박승희 열사 기일에 5·18묘역에 게시는 승희열사에게 드렸습니다.

♫ 남총련 출범식

- 4. 29

- 자주외 햇불 제 4기 남총련 출범식이 용봉골에서 있었습니다. 새내기의 문예공연이 너무 재밌거 않았어요?

♫ 과 여부장 학교

- 5. 1~ 2

- 여부장님들 많이 배우셨어요?
더욱 열심히 살게요.

♫ 한총련 출범식

- 5. 4~ 6

-우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대학생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게 너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 학술문화제

- 5.8~ 10

- 정신대,김영삼 학점 매기기,거자체의 거리로 봉저 주변에 꾸며진 학술문화제를 보셨어요?날씨가 안 좋아서 오랜 기간 학우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모란꽃 상연

- 5. 16
- 80년 5월 당시의 상황, 그 격동의 현장을 체험했던 한 여인을 통해 극명하게 재조명하는 연극을 대강당에서 상연했어요.

♪5·18 광주 민중 항쟁 15주년

- 17일 전야제, 5·18 재현극
- 18일 5월 민중항쟁 기념식 및 국민대회.도청 앞
- 학살자에 대한 공소 시효가 만료되는 오월 민중 항쟁의 진상 규명과 학살 책임자 처벌로 오월 영령의 핏값을 되찾고 역사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살아남은 자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투쟁! 나가, 나가, 도청을 향해……

♪오월 여성제

- 5. 20 YWCA에서
- 80년 오월 그날의 여성들의 항쟁 정신을 계승하여 후에 여성들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자 모인 자리!

♪봄농활

- 5.25~ 28
- 흥내음이 가득한 시골, 가자! 어머니의 땅, 농촌으로!



그리고 이렇게 살거예요

♫ 승희학교

- 5. 30 ~ 6. 2 매일 5시 30분 부터
 - 입학자격: 열린 마음을 가진 2만 용봉학우라면 모두
- 입학방법: 입학원서와 소정의 입학금을 내시면 됩니다.

입학금: 5000원

원서 교부 및 접수 : 5월 23일 ~ 5월 29일 까지

단대나 총학생회 학술국에서 교부 및 접수

첫째날(30일)은 입학식과 전체강의 “시대와 청년의 삶- 권
낙기” 를 듣고

둘째날부터는 4개의 분반(통일반, 역사반, 여성반, 문화반)
으로 나뉘어서 좀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강의
를 듣습니다.

여성반 소개를 해 볼까요

31일- ‘반쪽에서 하나되기’ -올바른 여성관, 성과 연애

1일- ‘여자! 남자!’ -실생활 속에서 그릇된 성차별

2일- ‘1930년 정신대..... 1995년 기지촌’

- 풀리지 않는 민족 수난사! 여성 수난사

강사 : 정신대 할머니의 증언과 강연

♫ 6·3 대회

- 6. 3
- 6·3 조국통일 실현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저지를 위한 남북
해외 청년 학생 공동 결의 대회를 엽니다.
- 8·15 민족 공동 행사를 전 민족적 행사로 만들기 위한 청년학
생들의 결의의 장!
- 95년 통일 운동의 목표인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실현한다.
-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미국과 김영삼정권을 심판한다.

깨어있는 대학생

한총련 출범식을 다녀와서.....

'95등무새 이진경

한총련 출범식에 가기까지 참 많이도 망설였었다. 출범식에 가는 사람은 웬지 '운동' 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막상 출범식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는 선배들은 지극히 평범한(?)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마음은 벌써 '한번 따라가보지 뭐!' 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하루는 전야제, 하루는 출범식, 하루는 선전활동.

행사일정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때로는 지겹다는 생각도, 때로는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다가,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한총련'이라는 조직아래 일제히 하나되어 행동하는 모습을 볼때는 그 조직적임과 규모적임에 매료되기도 했다. 삼시세끼 꼬박 나오는 식사와 공연 일정 속에서 내가 느꼈던 출범식은 과거의 '혁명적, 투쟁적'인 모습에서 '축제'라는 이미지로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코 출범식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올 한해 학생운동의 장을 여는 시작이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삼일재 날의 선전활동에 직접 같이 뛰면서, '혁명', '투쟁'이라는 단어들 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학살자를 법정으로”

어색하게 구호들을 따라 외치면서 대구 사건과 5·18항쟁에 대한 선전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여기저기 붙여진 자보를 대충 훑어보며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되었다. 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때에는, 비로소 '한총련은 나의조직'이라는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한총련'은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의 준말이며, 학생운동은 결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대학생들과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

출범식에 다녀온 후로 나는 신문을 읽고, 거리의 자보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작은 실천을 하게되었다. 그 작은 실천이 '깨어 있는 대학생'이 되는 첫걸음이길 바라며,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 땐 좀더 넓은 시각으로 많은 것을 배워오고 싶다.

5·18 민중항쟁 15주년 —오늘의 여성

빛방울이 떨어지는 5월 20일 오후 2시, YWCA회관 1층 대강당에서는 5.18민중항쟁 15주년 행사위원회가 주최한 **‘1995년 5월 여성제’**가 열렸다. 5월 여성의 날로 제정된 5월 23일을 기념하여 **80년 5월 그 날의 항쟁 정신을 계승하여 여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자 모인 것이다.**

주제는 **‘분단 50년 5.18민중항쟁 15주년 -오늘의 여성’** 이었고 5월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5월 여성상 특별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광주전남 여성문제 특별위원회 이명자 위원장의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정한 생활정치의 새 장을 열자는 대회사로 행사는 시작되었다.

무진교회 강신성 목사님의 축사와 내빈소개에 이어 서강전문대 노래패의 노래와 율동이 이어졌다.

5월 여성상은 5월 항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가 척추부상을 당한 부상자의 부인 4명이 수상하였다.

그리고 정신대 증언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정신대의 산증인..... 할머니의 피맺힌 한이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80년 5월 우리 여성들은 5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된 와중에 광주 YWCA회관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쳤었다.

가두 방송, 도청앞 쫓기 대회 투사회보 대자보 제작등의 선전활동과 시민군에 대한 음식물 제공과 부상자 치료 헌혈 활동에 분연히 펼쳐 일어섰었다.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남성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서 한국여성운동에 새 지평을 열었던 것이다. **이러한 오월 여성의 정신을 계승하여 올해 우리 여성의 최대 현안인 지방자치선거에서 80년 이후에 보여준 민주시민 의지로 우리여성들은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우리의 요구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민족의 이름. 정신대 할머니들 !

정신대. 종군 위안부. 이말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직한 말이다. 이 정신대 문제는 요즘 '여명의 눈동자' 같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제를 대표하는 주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대에 대해서 증언하신 할머니들에 대해 동정과 연민의 눈길대신 냉정의 눈길로 보는 눈이 많다. 여자들의 순결문제를 증시하는 권위주위적인 관점을 없애는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1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에 이런 말을 들은적이 있다.

독일 국민의 90% 이상은 나찌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의 90% 이상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내 스스로도 모르겠다.

하루에 40명 이상의 남자를 상대해야만 했던 할머니들. 이 할머니들의 아픔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이 문제를 우리나라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왜 부끄러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나쁜것이지 당한 사람들이 나쁜것은 아니지 않은가.

역사의 산 증인이신 정신대 할머니들은 돈을 달라는게 아니라 양심적인 사죄와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도 외치고 계신다.

일본인들로부터 받은건 오직 인간적인 모멸감과 질병뿐이라고 증언하신 김일대할머니.

고향에 돌아갈 수 없고 아이도 낳을 수는 더더욱 없다고 증언하신 이복녀할머니 등등.

이 분들은 우리가 따르기 힘든 용기를 보여 주셨다.

우리는 이 분들의 용기를 헛되이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정신대 문제는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아픈 과거요 아픈 상처이다. 우리가 이땅의 주인이라면 이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금의 현상태에서 한걸음 더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만나보고 싶었어요 ♣ ~~~~~ ♣

너나들이에 새로운 코너가 생겼어요.
우리들이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나, 가보고 싶었던 곳을 탐방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만나보고 싶었어요」.
가까이 공대 회장님, 총여학생회 회장님, 총학생회 회장님을 만나볼 수도 있고 탁아소나 여성문제 연구회를 방문할 수도 있고, 또 학우 여러분들이 자랑하고픈 과 친구나, 선배님, 과 회장님을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즉시 달려가 취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 . 여 . 대 . 협의장님을 만났어요 .”

이번달에는 우리 민족 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 회장님이며 광주 . 전남 지역 대표자 협의회 (이하 남여대협) 의장님이신 ‘이 현 아’ 언니를 만나 보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우리들은 수머니 털털 털어 과자 몇봉과 음료수를 사가지고 1생 2층 총여학생회를 찾아갔다.

남여대협 의장이라는 조금은 어색한 이름표를 달고 있는 의장님은 옹골꼴 여기저기에서 학우들과 인사하고 유인물을 나눠 주시던 모습과는 또 다르게 무척 편하고 재밌었다.

처음에 우린 취재나온 기자들 답게 남여대협이 뭔지?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조금은 딱딱하지만 원론적인 것부터 물어볼 수 밖에 없었다.(물론 나중에는 농활이야기 등등을 하면서 취재는 무슨! 웃느니라 정신 없었지만)

의장님도 조금은 긴장된듯한 모습으로(?)남여대협에서는 올해 정신대 할머니들 문제를 다뤄볼거라며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정신대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해 주셨다.

어릴적 오빠로부터 들던 5·18 민중항쟁과 1학년때 있었던 박승희열사의 분신으로 사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운동을 시작했고, 특히 여성운동은 1학년때부터 절실히 느껴 2학년때 경영대 여부회장, 다음해엔 경영대 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학술부장을 해오다가 마침내 총

여학생회 회장에까지 오셨다한다.

여학생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건 모든 여학생들이 여성문제는 인식하면서도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라 했고 그 말에 우리들도 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다. 올해는 단어 간부님들과 8천 여학우 모두가 여성문제를 함께 어우러져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것이 가장 큰 바람이시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8천 여학우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성임을 당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삶!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밝고 당찬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하셨다.

남여대협 의장님! 우리 모두 사랑해요!



.....컴퓨터공학과 1학년 김수진

이적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김 0 3이다 !!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한국통신 파업위기” 소식 곧 큰일이라도 터질것처럼 진압봉과 방패를 들고 회사앞, 농성장 주위를 포위하고 있는 경찰들. 언론에서는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한국통신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정권의 압력으로 인해……

그렇다면 “통신대란” 위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보자.

첫째로, 한국통신의 민영화 문제

하루에도 수십개씩 무너지는 중소기업의 피를 야금야금 빨아먹고 날로 커지고 있는 대기업(재벌)에게 국가의 혈맥, 중추라고 하는 정보통신을 넘기려고 하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 대기업에 귀속되었을때 경영합리화 정책으로 나타날 대량 감원 사태에 대한 문제

둘째로, 97년 통신완전개방 전면화에 대해 국가안보의 핵심 정보통신에 대해 대책이 없는 정부와 회사측에게 대안마련을 요구했으나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그들.

언론에서 나오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푼돈을 받기위한 싸움이라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을 볼모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배가 불러서 저런 짓거리 하지” 라는 노동쟁의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투쟁은 공영기업으로써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실천하는 한국통신의 투쟁임을 알았으면 한다.

이미 지난 19일 우리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통신 대의원 대회”에서는 25일 까지 단체행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5일까지 파업으로 야기될 통신대란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단체행동을 중지하고 사업장으로 돌아간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으로 과연 노조의 파업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지, 부채질하고 있는지 알수없는 정부이다.

“정보통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 전복의 음모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일”이라며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무색케 하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영삼 정권.

최소한의 생계비를 요구하고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과 재벌의 한국통신 분할요구에 대해 국민의 기업인 한국통신을 지켜내어 전화요금 인하와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 시키려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해온 것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인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이 나라의 농업을 망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통신망을 미국과 재벌에게 팔아넘기고 통신대란을 자초할 파업을 부추켜 이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인간 김 영 삼!!

4천 학우의 노조 활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때이다.

노조의 단체행동(파업)은 사용자와의 교섭의 실패로 온다.

이 책임은 회사측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궁지로 몰아 넣은 회사측의 문제는 가려지고, 노동자들만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사회 분위기로는 정부에서도 말하는 노사화합은 기대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의 일차적 책임은 이 사태들의 전모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언론과 노사문제를 국가안보의 차원으로까지 비약시키는 정부에게 있음을 기억하자.



모임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아후, 베고파 연익아! 내려가서 손대하고 떡볶이 좀 사와라."

시화전을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동아리 방에서 푹푹거리다가, 동기인 연익이에게 이런 주문을 했다. 그런데 연익이는 얼른 내려가지 않고 머뭇거리더니 베짱을 보냈다.

"나도 내려가기 싫은데? 저 138계단을 어떻게 혼자 내려갔다 오나?"

"어우, 남자가 좀 후딱 다녀와라. 오밤중에 여자가 어떻게 내려갔다 오니?"

"여자 혼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같이 다녀오자는 건데 어때? 너희는 맨날 여성 예방이니 남녀 불평등이니 하면서, 실상 너희 스스로도 그런 의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 같더라. 이 일은 여자가 할 일, 저 일은 남자가 할 일, 이렇게 못박아 놓고 지내는 것 같아. 맨날 귀찮고 하기 싫은 일들은 남자들한테 미루잖아. 지금만 해도 떡볶이 사러 같이 내려 가면 좀 좋아? 남자가 밥이나, 우리만 부려 먹게. 사실 남자들도 알고 보면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연익이의 말이 우리들은 모두 그걸로 프덕이며 동감했다. 특히, 평소에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여자들끼리는 서로 눈짓을 하며 부끄러운 웃음을 지어아 했다. 이렇게 작은 일부터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자에게 미루고 있는 모습을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이다. 나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떡볶이를 사러 연익이와 함께 학교 언덕을 내려 갔다.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우리 여학생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한 발짝 물러서고 싶어 하고,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반 여자 선배 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때 나는 어느 남자 선배로부터 후종을 듣고 와서 친구들에게 투덜거리고 있었다.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럴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참견하고, 말은 많은데 실제로 일하는 데는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는 비판이나 참견들이 오히려 우리 동아리 사람들에게는 잔소리 처럼 들린다."

"그래, 우리 여학생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말은 많으면서도 실제로는 소극적인 면들은 극복해야 될 점이야, 그렇지만 남자들은 우리가 자라 온 환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 같아. 항상 양면하고 수동적이고 그분그분해야 여자답자고 길러진 우리가 대학생이 됐다고 하루아침에 태도가 달라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들보다 수줍어 하고, 수동적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남자들은 오히려 여학생들의 그런 면들을 더 부추기고, 보호한다며 여자다음의 율타리에 가두어 놓잖아. 우리 동아리의 괴이한 꽃이라는 등, 공주라는 등 하면서

말이야.”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자 동기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잘 풀어 나갔다. 가만히 듣고 있던 여자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을 털어 놓기 시작했다.

“저번에 세미나를 할 때, 어떤 남자에랑 의견이 달랐는데 그 남자가 워낙 말을 조리 있게 잘해서 내가 아무 말 안했더니 비웃다고 자꾸 늘리는 바람에 혼이 난 적이 있어. 우리는 정말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고 토론하는 데 아직 익숙치 못하잖아. 그런 걸 가지고 여자들은 속이 좁아서 잘 트라진다고 그럴 때는 속상하더라.”

“그래,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주부들이 직업을 가질 때 강요되는 ‘슈퍼우먼’상이 기대되는 것 같아.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에게 미루어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 그런데 난 지금까지 정말 남학생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간부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망설여지더라. 여자인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 그냥 다른 남자들이 시키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 그 동안의 수동적인 습성에서 벗어나 지내느라고 했지만, 아직도 내 내면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식들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

끊이지 않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평소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얻을 수 있었다. 막연한 불만의 원인들이 무엇이었던가, 그 가닥이 조금씩 잡히는 듯 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빙긋이 웃으며 듣고만 있던 선배 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지금까지 여자라면 길들여져 왔던 우리들이 대학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갑자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신한다는 것은 무리야. 거기에 따른 남학생들의 물이어나 보수적인 면이 우리 여대생들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기도 하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변화하고 깨쳐 나가려는 자신의 의지인 것 같아. 여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둘러싼 편견의 벽과 내면화된 관성들을 느꼈을 때, 힘들지만 주체적으로 깨트려 나가는 작업이 중요해. 이런 문제들은 일차적으로 여학생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만큼 자신의 동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나가야지. 결코 혼자 하려는 생각 갖지 말고, 힘든 사람끼리 도와가며 함께 말이야. 나는 동아리의 활동을 내 일처럼 열심히 했고 작년에는 대표까지 맡아서 했는데 내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잊지 말건 ‘자신감’이야. 나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도 확실히 틀어쥐어야 해. 너희들이 먼저 자신감 있고, 주체적으로 살아 나간다면, 주위에서도 성에 관계없이 인정하게 될거야. 너희들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필요할 때야, 자신감을 잃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선배 언니의 얼굴 가득히 당당한 미소가 번졌다.

주한 미군의 범죄는

우리의 무관심이 부른다.

19일 밤 만취한 주한 미국 군인과 그 가족 등 13명이 지하철 안에서 부녀자를 희롱하고 이를 말기던 시민을 마구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연행한 경찰은 피의자 진술조차 받아 내지 못한 채 신병을 미군 당국에 넘겼다. 이와 같은 주한 미군의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미군은 한국에 첫발을 내디딘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67년부터 87년까지 총 39,452건의 미군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죄에 가담한 미군 수는 무려 45,183명에 달했다. 또 45년이후 미군에 의해 강간당한 한국 여인은 백명도 훨씬 넘는다. 즉, 45년 9월 8일 우리 민족의 땅을 헤집고 들어온 첫진주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만 명이 넘는 미군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매년 세금을 통해 미군 한 사람에게 약 6천 2백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고 있고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의 특혜 지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9억 600만 달러나 된다. 미군에게 주어질 특혜는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만도 아니다.

120여개의 미군 기지를 둘러싼 기지촌에서 양공주, 양갈보 등으로 불리는 100만의 매춘 여성이 있고, 미군이 나이와 지위를 가지지 않고 언제나 마음 놓고 범할 수 있는 2천만의 한국 여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군 범죄의 피해자들의 심사를 뒤틀리게 하는 것은 미군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결과이다.

실제 우리 검찰은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도 피의자 심문 조서 하다 작성하지 못한 채 미군 측에 범인을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했다. 국민의 관심이나 그 분노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안보논리로 미군의 범죄를 묵인해 온 정부와 주둔하는 이상, 계속되는 미군의 범죄를 견제할 주체는 국민 즉 '우리' 밖에 없다.

그러나 정작 미군 범죄를 근절할 주체라는 '우리'의 대부분도 주한 미군 범죄를 보는데 있어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 당장 내일이 아니라는 태도로 보여 온 무관심이 50년동안 주한 미군 범죄를 방치해 왔다. 이제 적어도 미군이나 재판 능력이 없는 정부가 아닌 **'우리'의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해 미군 범죄가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대생 취업 전략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은 자신의 취업 목표 기업과 부서, 필기 시험 일정, 인턴 사원 실시 요강, 기업체의 전망 까지 꿰고 있는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취업의 필요성만 느낀 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여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의 진로를 비교적 늦게 걱정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전체 대졸 여성의 70%가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를 졸업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여성 인력의 과잉 공급이 기업의 고용주들에게 더 낮은 임금으로 여성 노동 인력을 작업장 밖에 대기하는 예비 인력으로 만들도록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은 다 알겠지만 몇 가지 취업 정보를 소개하겠다.

첫째로, 학점 관리 는 취업 준비의 가장 기본이다. 대기업의 경우 학점은 최소한 3.0 이상을 획득해야 하고, 고학년 점수의 비중이 높으므로 저학년 때 학과 공부가 미진했던 사람들은 학과 점수를 높이는 데 전력을 야 한다.

둘째로,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지만 어학 실력 을 제대로 갖추면 취업의 문은 훨씬 넓어진다. 남녀 차별이 거의 없는 외국인 회사(은행, 무역회사)로의 등용문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DTP(Desk Top Publish).CTS(Computer Typesetting System) 업무의 전사화 작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의 경우 전상 관련 직종으로의 진출이 많은데, 컴퓨터에 관한 지식 은 여성의 전문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넷째로, 입사 시험에서 의외로 어려운 과목이 상식 이다. 최근 상식 문제는 '전문화 상식' 으로 각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묻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스포츠, 정치분야에 관한 상식이 부족한 만큼 일찍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여학생들 자격증이나 전공 관련 지식, 그리고 경험(인턴 사원.아르바이트 등)이 남학생보다 부족하다는 것이 인사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 서려면, 여성들의 직업 환경이나 여건도 일조해야 하겠지만 1/10정도 적은 등용문을 뚫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야 한다.

♣작지만 알뜰한 공간!!♣~~~~~

신세대 학생증

세상이 정말 편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일이 생겼다. 바로 **신세대 학생증 IC 카드 학생증**이다. 발급전부터 소문이 무성했던 IC 카드는 알려진 것 이상으로 우리가 모르는 혜택이 많다. 먼저, 도서관 및 전산실과 같은 출입 통제 구역 출입 제한 체크 기능의 부여로 인건비를 절감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비밀 번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현금 카드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다. 또, 만약 추가발급 재발급을 하려면 학생처에서 학생증 카드 발급 신청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2000원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혜택 중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전화 카드 사용은 아직 한국 통신과 계약 체결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미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 말고도 판매점에서 POS단말기를 통해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는데, 이번이 처음 발급 되는 것이니 편한 만큼 많은 폐단이 나타날 것이다. 올바른 사용을 통해 편함을 누릴 만큼 누리보자.

미달의 비디오

벤디드 퀸

벤디드 퀸은 인도의 한 여성 폴란 데비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다. 폴란 데비는 인도의 가장 하층계급에 속하는 한 어부의 딸로 태어나 어렸을 때 지주들에게 팔려 성적 수탈을 당했다. 그러나 새로운 인생관을 깨우쳐 지주를 상대로 투쟁을 한다.

벤디드 퀸은 여성을 상품화하는 요즘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꼭 봐야 할 영화다.

백

백 / 상 / 기 / 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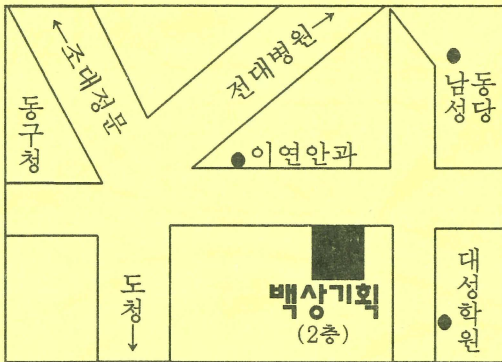
사

WHITE ELEPHANT

신뢰를 바탕으로
항상 고객과 함께 합니다.



기획에서 편집까지 최고만을 추구합니다.



남동성당과 대성학원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

획

너나들이

제 11 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5. 9.



◎ 이달의 특집

— 정신대! 미해결 50년

— 농활의 멋

—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걸음

◎ 만나보고 싶었어요.

— '94년 제10대 총여회장님

◎ 함께 고민하는 마당

— 성공한 우리라는 영원히

역사의 편지부로 남는다.

◎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 가장 “한국적인” 판결

◎ 취업 소식란

— 기업 인턴 사원 제도

◎ 여성이야기 주머니

— 잘난 여자

『너나들이』는요...!!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과 여학생회가 항상 너나들이가 되면 좋겠네요!!

바보 같은 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열 번만 해서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있다면

오늘 온다면
그리운 얼굴은
해가 저물도록 기별이 없네

드물게도
서울 하늘에 눈이 날리는데
발자국 새기며 걸어도 보고
이름 멋있는 찻집 있으면
그대 얼굴 마주하고
바라만 봐도 좋으련만

아아 그리나
그대는
한 사람만의 사랑이 아님을

투쟁하는 사람은 커다랗게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숨쉬며
그렇게 살아야 건강해지더라는 것을

만나는 동지들의 모습에서
그대의 체온을 느낍니다.

사랑합니다.

개강입니다.

방학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겉코 째지 않았던 여름방학동안 활기찬 학우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리며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쳤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동안 5월 학살자 기소 관철 투쟁,

광복 50주년인 올해 95년,

분단 50년을 끝장 내기 위한 통일 투쟁,

이와 함께 민족의 문제인 정신대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투쟁을 함께 전개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2학기 때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고요, 지켜 봐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95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김채희

그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민족 전대 1학기 총화 대회

- 7월 1일
- 민족 전대 2막 학우들이 1학기를 계획대로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여름 농활

- 7월 4일~7월 11일
- 피약별 아래 수행했던 여흥 농활. 7박 8일이라는 그리 짧지 않는 기간. 여흥 농활을 수행했던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전여대협 간부 수련회

- 7월 30일~31일
- 대전 목원대에서. 전국에 있는 여학생회 일꾼들이 다 모여 싸사!

◆남총련 통일 축전

- 8월 1일~3일
- 조대 1·8 광장에서 통선대 학우들과 함께.

◆통일선봉대 출발

- 8월 3일
- 14박 15일 동안 전국 곳곳에 통일의 여기를 심어주고 돌아온 통일선봉대 여러분들! 여러분의 여기로 굽방이라도 통일이 될것같아가슴이 벅칩니다.

◆8·15 민족 공동 행사, 제 6 차 범민족 대회

- 8월 13일~16일
- 광복 50주년을 맞아 더욱 대중적인 통일 투쟁을 위해 제기된 8·15 민족 공동 행사.
통일의 여기는 보라매 공원에서 판문점을 거쳐 평양까지, 백두산까지

◆통일 선언 운동

- 8월 1일~
- 해방 50주년을 맞아 남·북·해외 칠푼만 겨레의 통일을 위한 마음과 의지를 통일을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정 · 신 · 대 ! 미해결 50년

광복 50 주년이다. 이에 따라 분단 50주년이고 정신대 문제 미해결도 50년이나 되었다. 88년 정신대 문제가 거론된 이후,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발족 이 후 연로한 할머니들이 한분 두분 세상을 뜨고 있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정신대 문제 해결 열정은 더해만가고 있다.

이번 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그림 전시회를 앞두고 김순덕(75)할머니, 강덕경(67)할머니, 이용녀(71)할머니들은 한창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림에는 할머니들의 개성이 나타난다. 섬세하고 맑은 표현이나 과감하고 자유로운 표현 등 그림 스타일도 대단하시다. 아마 가슴속에 응어리짐이 나타난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일본 위안부에는 한국 여인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인도 있었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얀” 할머니도 일본군의 위안부였다. 얀 할머니는 우리나라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과 하나가 되어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으로 고백을 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그 해결책을 뒤로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위로금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 참 기만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할머니들의 항의 집회가 열린다. 지금도 190여 차례가 넘는 수요집회는 계속된다. 할머니들의 정신대 해결 투쟁은 계속되는 것이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기쁨에 들뜨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 더 찾아보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인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만 한다.

가장 고귀한 것은 그만치 처절한 아픔속에서만 이 잉태될수 있다.

..... ♪ 컴퓨터공학과 1학년 김수진

농활의 멋

컴퓨터공학과 3학년

오명훈

작년 여름농활을 가지 못해선지 이번 여름농활은 며칠 전부터 은근히 기다리던 농활이었다. 제작년엔 선배들을 따라 오는 입장이어서 그리 부담도 없고 그냥 일만 하면 되려니 하는 생각이었지만 이번에는 학생회 간부도 맡았고 같이 갈 후배들도 적잖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도 있고 또 뭔가 새로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거란 느낌도 들었기 때문이다.

7월 6일 아침!

다른 과보다는 이틀이나 늦게 출발해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푸르고 널따란 영광의 논과 밭들을 생각하면서 학교버스에 몸을 실었다.

영광 농민회에 도착하자 우리과는 군남 장혈리로 배치를 받았다.

장혈리는 주로 담배농사, 수박농사를 했었고 장년 봄때 갔었던 남창리에서 하던 고추농사는 하지 않았었다.

거기서 그 다음날 7일부터 주로 논에 피뽑기, 담뱃잎따기, 수박따는 일을 했다.

작년 농활때 또 올 봄 농활때 보다 훨씬 적은 수가 가서 일하면서도 좀 더 많이 왔더라면 하는 생각에 어머님 아버지께 미안했다.

8일은 영광발전소에 갈 예정이었지만 우리과는 늦게 왔고 더구나 7일날 비가와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마을에서 일을 했다. 마침 후발대 애들이 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9일은 다른 때 같으면 일요일날. 시간이 나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였지만 논 3마지기의 피를 뽑았다. 뽑아도 뽑아도 끝이 보이지 않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 다시 그 피를 뽑으라고 한다면, 으악~! 어머님 아버님은 이 힘든 일을 해마다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10일은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잔치 준비하고 저녁에는 잔치를 했다. 마을 어르신들, 농사일에 집안일까지 하시느라 더힘드신 어머님들, 동네 꼬마들 모두 모여 함께 음식도 장만하고, 돼지도 잡고, 풍물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춤도 추고.... 그러나 밤새는지 모르고 계속 술에 노래를 하시

던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이 그 이면에는 우리의 농촌의 힘든 실정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마을 잔치는 농활 속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다.

올 여름 농활에서 느낀 점은 다른 때에 갔었던 그것과는 많이 달랐다.

지역이 핵발전소가 있는 영광이라는 점과, 농산물이 수입이 이미 되어 버린 시점, 또 한참 이농현상이 일어나는 요즘의 상황, 5·18문제의 사정화가 거의 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때 등 여러가지 일들이 나를 뭔가 좀더 생각하게 했었다.

나는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게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9일날 저녁에 식사를 했던 집의 누나는 발전소에 취직을 했다면서 좋아하던 모습을 보고 내가 좀더 깊이 생각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논의 피를 뽑았던 주인 아저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벼농사보다는 벼섯농사가 훨씬 많이 남지만 벼섯농사는 워낙에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때는 마을에 청년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게 안타까웠다.

또 신문을 보시면서 5·18관련기사가 나오자 우리들과 얘기를 하자며 나랏일을 걱정하시던 이장님 모습도 선하다.

요즘에 패기없는 대학생들을 나무라시던 주체분 아저씨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우리 모두 반성하는 얼굴이었다.

낮에는 설새 없이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평생 해보지도 못한 일을 해내고 밤에는 쏟아지는 잠을 참아내며 총화때 한마디씩하던 후배들이 자랑스러웠다. 총화가 끝나고 수없이 반짝이는 하늘의 별을 보며 마시던 막걸리 한사발. 카! 이게 바로 농활의 맛이 아닐까?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걸음

— 8·15 민족 공동 행사,

제 6 차 범민족 대회를 다녀와서—

보라매 공원에 모인 학생, 시민, 시민 단체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함성은 공원 구석 구석까지 찾아가 가득 메웠다.

“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걸음 ”

8·15 광복 50돌 민족 공동 행사 남북 통일 음악회, 전야제, 남북 해외 통일 가요 제전이 열린 보라매 공원 행사장은 한총련 학우들, 시민단체들, 시민들이 통일 의지가 담긴 하나된 소리 하나된 몸짓으로 한데 어우러져 경축의 장이 되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96년도 방위비 삭감을 위해 대통령께 보내는 1만인엽서 보내기 운동, 정신대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 요구 서명 운동을 벌였고 남북 통일을 주제로 한 소공연, 장기수 선생님 사진전, 주한 미군 범죄 행태 고발 사진전이 열렸으며 자료집(윤금이 사건), 기념품 판매 등이 줄을 이었다.

8·15 광복 50주년과 더불어 통일 원년을 맞이하여 통일 운동 저변 확대를 위시한 이 행사에는 장기수선생님, 해외 동포들, 삼천리 대행진단, 통일 선봉대등 통일 염원을 가진 이들은 다 자리했다.

한편 서울대에서 열린 제6차 범민족대회 전야제는 범민족연합(범민련)과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그리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을 기치로 깃발을 높이든 범민련은 평화협정체결,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동포대중 속에서 90년대 민족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강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지난 통일 운동의 역사와 총화의 상징이고 지난 통일 운동을 계승하는 민족의 대표적인 정치회담으로 자리 매김 되어지는 범민족 대회는 민족 통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통·일·원·년!!

입학해서부터 많은 선배들에게 들어왔고 지금은 나 자신도 기필코 올해에 통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질 정도로 통일에 대한 열기가 4천만 국민 속에서 높아만 갔다.

그런데 서울은 왜 그다지도 더운지 전철안에서도, 건물 앞에 앉아 쉬면서도,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지하철역 입구에서 '일본의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도, 정민주,이혜정 학우들을 맞이하기위해 판문점 진격투쟁에서 최루가스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냥 걸으면서도 땀이 흐르고 목이 타서 저마다 물통 하나씩 손에 꼭 쥐고 다녀야 했다. 덕분에 학교 화장실 물은 예사로 마시고 가는 곳마다 물만 보이면 물통을 들이댔다. 우리의 통일의지 만큼 땀을 흘리고 우리의 통일의지 만큼 물을 마셨다.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서울에서 무엇을 했나 돌이켜보니 기억에 남는 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모습이 가장 깊이 남았다. 박수를 치시는 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고생한다고 한마디 해주시는 분,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라는 분, 가시내가 되가지고 무슨 짓이나 하신 분, 무뚝뚝한 표정으로 피해가시는 분등 천태만상의 시민들의 모습.

통일을 위해서 상경한 내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는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하다.

1995년 통일 원년!!

4천만 국민이 아닌 7천만 동포 모두가 하나의 조국에서 살수 있는 그런날이 2000년이 되기 전에, 아니 1995년에,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 ♪ 무기 재원 공학과 2학년 정인옥

♣ 만나 보고 싶었어요 ♣ ~~~~~ ♣

'94년 제 10대 총여학생회장

“강정희 언니를 만나고……”

무덥고 짜증나는 여름 방학!

친구들과 가족들과 시원한 산으로 넓은 바다로...

하지만 이 무더운 여름 방학을 오직 학교 안에서만 보내야 하는 많은 학우들이 있다는걸 혹 아세요?

모순된 사회에 적당히 길들여가지 않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뜨거운 청년의 양심을 지녔기에 수배자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호엔 그 중에서도 작년도 총여학생회 회장님이신 강정희 언니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정희언니를 찾아간 날은 개강하기 며칠전이라선지 총학생회실은 분주하고 정희언니도 무척이나 바쁘셔서 1시간 정도를 기다려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점심도 우리가 가져 간 포도 한송이로 대신해야 한다니... (난 속으로 살빠지겠다고 생각했음☺)

굳세고 야무지게 생기셨으면서 웃는 모습이 친 언니처럼 정이드는 정희언니. 작년 한해동안 10대 총여학생회 회장님으로 8천여학우와 함께 하시다가 지금은 총학생회에서 선전 일을 하고 계신다.

포도를 먹으며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가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 3때 반 실장이었는데도 땡땡이(?)를 많이 쳐서 담임 선생님한테 죽기 직전까지 맞아보기도 한 참 말괄량이셨다고 한다.

또 애인 있냐는 질문에 제일 기다리던 질문인것 처럼 자신있게 있다고 대답하시는데 우와! 디게 부럽더라.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쭙보니 1학년 때 고등학교 땀 잘 워지 못했던 신문도 읽고, 여러가지 책도 읽으면서 여러 사회적 모순을 알았고 아! 이런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양심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을 잊지 않으며 살고있다고 했다.

여학생회 일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해 했더니 여학생 수가 적은 법대생이다 보니 여학생들의 개별적·개인적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하나로 묶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씩 배워가면서 여학생회 사업을 했다며 겸손해 하셨다.

정세에 관해 물어보면 농담하실때완 다르게 자상하고도 심각하게 설명도 잘 해주셨다.

또한 공대 여학생에게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학생회에 많은 참여를 하길 바란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공대 여학생회를 격려해 주시면서 많은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다.

정희언니처럼 이렇게 굳세고 열심히 사는 학우가 있기에 민족 전남대학교는 항상 깨어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희언니 힘내세요!!



.....♫컴퓨터공학과 1학년 김수진

성공한 쿠데타는 영원히 역사의 면직부로 남는다.

요즘 5·18관련 검찰발표를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다고 한다.

“나도 쿠데타 한번 일으켜 봐, 성공만하면 만사 땡 아니야!”

이것은 물론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에 깔린 정권에 대해, 정권의 시너 사법부에 대한 야유섞인 푸념을 느낄 수 있다. 이천명을 넘는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자에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전·노 두 살 인마를 위한 법으로 전략하는 모습을 보면 쓴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권의 논리는 이렇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8월 16일로 만료되었고, 12·12는 쿠데타로 인정은 하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하나의 통치권 행위이므로 내란, 반란의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의 정권 논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우와 이들의 처벌은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화해와 용서로 하나가 되는 국가를 만들자”

과거의 논리와 현재의 논리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물론 학살자, 반란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똑같다. 하지만 현재의 논리는 계속적인 국민들의 학살자 처벌에 대한 요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지난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 대한 탄압으로 대한민국 정부, 정치인들이 일제의 앞잡이들이 어떻게 다시 복귀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전 민족적인 일제의 잔재를 뿌리뽑기 위해 구성되었던 “반민특위”가 미국과 친일파들에 의해 파괴된 것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해서 지금의 현실과 적용을 시켜볼때 너무나도 흡사하다. 반민특위가 그 활동들을 다했을 때 5·16과 5·18이 과연 일어났었겠는가? 이런 학살자 독재자가 태어날 수가 있었겠는가?

5·18학살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먼 훗날 제 2, 제 3의 전두환, 노태우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역사의 정통성, 민족정기를 바로 잡자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인가? 국민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외세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는 민족의 자주정권을 수립한다는 말일 것이다.

5·18학살자 기소관철을 위한 투쟁은 바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다. 현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의 방법으로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힘차게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전국 87개 대학교수들과 전국 기자연합의 잇따른 5·18성명서 발표 능력으로 그동안 어떻게보면 한정된 사람들의 요구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학살자 처벌투쟁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있다.

“5·18 특별검사제 도입하라”

변협·민주당·재야 시민단체들 강력추구...범국민 운동 퍼기로

‘정치 검찰’ 직무유기에 분노

‘성공한 쿠데타론’에 자신감
최종결론 수뇌부 입김 시사

“검찰 스스로 ‘권력시녀’ 입증”

양심세력 힘 모아 현정권 퇴진·학살자 기소관철 다짐

전·노씨등 전원 ‘공소권 없음’ 결정

신군부에 ‘면죄부’

검찰, 5·18수사발표...“집권성공 사법심사 불가능”

다음 글을 최대한 들여 말하십시오.



“학살·쿠데타 합법화 결정” 비난 쏟아져
피고발인 사법처리 촉구 국민운동 제안



가장 ‘한국적인’ 판결

서울 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7월 25일 전 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모(27.여)씨가 지도교수 신모(54)씨와 서울대총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우씨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은 고용 관계와 관련해 행해지는 불쾌한 성적 접촉과 언동이 있고 강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성적 요구의 수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고 이에 따른 손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 피해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행위 자체도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만큼 성적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가 조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해온 성희롱은 인정되나 무의식적이거나 경미한 ‘실수’ 였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 이후 여성계와 시민단체 규탄대회가 줄을 잇고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이번 판결은 성희롱을 보는 시각이나 증거채택에서 공정하지 않았으며, 남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결이라는 지적을 가했다.

배금자 변호사는 성적 괴롭힘 정의에 있어서 ‘성적 의도가 노골적이고 분명히 간취될 수 있는 경우만으로 한다’는 판결은 “지능적이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호의를 가장한 음험한 성적접근’을 규제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일반 평균인의 관점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가해자만 두둔한 이번 판결은 한 판사의 중대한 오판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뿌리 박혀 있는 왜곡된 성관념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 규탄했다.

이번 판결은 남성들의 성적 부도덕성을 ‘실수’ 로 보려는 그리고 ‘실수’ 에 대해 관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을 반영한 가장 **‘한국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웬만한 성희롱쯤은 그것이 성희롱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참을것을 강요하는 관례가 될것이다. 가해자가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여성들은 성희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성희롱은 그것이 악의를 동반한 것이 아니고 장난이러는데, 그리고 그것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도외시켰거나,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인턴 사원 제도

우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기업과 보다 나은 대우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인력들 모두에게 솔깃한 제도가 있다. 인턴 사원 제도이다. 방학의 일정 기간 동안 학생들을 실습시키고 실습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선 채용하여 전략학과의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채용 제도이다.

84년 LG그룹이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이후 확산되어 선발 업체 규모가 12배 증가, 90%이상의 정착률을 보이고 있다.

2~6주 대략 3주의 실습 기간에 보수는 35만원 정도, 학생 자신의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또한 기본적인 자질, 실행력, 가치력, 지력, 행위력 등을 중요시하는 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채용시 우대를 받는다. 가령 공개 채용에 재 응시할 경우 무시험이나 면접시 가산점이 주어진다.

기업들의 인턴 사원 모집은 4월초 본격화되어 하계는 4월초~6월초, 동계는 9월말~11월 중순 정도에 신문 공고나 대학에 직접 모집 홍보 활동이 이루어진다. 지원 자격은 대학 재학생으로 군필자 전학년 평균 평점 B° 이상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된다

인턴 사원 선발은 공개(추천)→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2-3차정도) →인턴 사원 선발→실습→면접→입사 내정 의 전형 절차를 거친다. 서류 전형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므로 평균 평점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직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에 적합한 회사인지 파악하고 지원해야하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잘 난 여자

그는 여대생이다. 그러나 여대생으로 불리우는 것이 불쾌하다. 남들 못지 않게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대학생이면 대학생이지 여대생은 또 무어란 말인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위의 남자애들과 아무 차이가 없고 오히려 뛰어나면 뛰어날망정 모자람이 없는데도 늘 너는 '여자니까'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여자라는 걸 인식하고 싶지 않다. 여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어머니만 해도 그렇다. 아버지는 친구들이랑 어울리시느라 일주일 내내 얼굴 한 번 뵈기가 힘들어도 '칼로 물이나 몇번 빼고'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지만 어머니는 어쩌다가 친구들을 만나도 저녁 시간에 늦을까봐 초조한 마음에 그나마 재미있게 노시지도 못한다. 그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그가 집안일에 서툴러서 부엌에만 들어가면 접시를 몇 개 깬다거나, 남동생처럼 청소를 시키면 시늉만 해서 꼭 한 번 더 손이 가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일에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뿐이다.

그는 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는 여자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학생들에게는 유독 점수를 박하게 주시는 교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여학생들은 학자의 재목이 될 성 싶은 학생을 애써서 키워도 결혼 전만큼 치열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학생들에게는 기대를 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억울한 일이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일이 밀려서 야근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여직원들은 으레 빠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중요한 자리를 맡기기 곤란하다고 하신다. 그는 자신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나 언니가 외출 한 번 마음놓고 못하는 것이 억울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능력이 모자라지도 않으면서 사회 생활을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한 그들이 못나 보인다. 동료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못나게 행동하니 남자들이 더욱 여자들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여자'라는 울타리에 안주하는 그들 때문에 자신까지 도매금으로 당하는 피해가 못견디게 억울

해져 그들이 더욱 못나게 느껴진다.

그는 이른바 여성 운동에 열을 올리는 여학생들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긴다. 그래도 '여자답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자들이 특수한 권익을 주장할수록 남자들은 그것보라는 듯이 여자를 귀찮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과 제약들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여자도 남자와 똑같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보호받는 것도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러한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차별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도 어느샌가 어느 남자들처럼 여성 운동을 여자들이 가지는 콤플렉스가 아닐까 의심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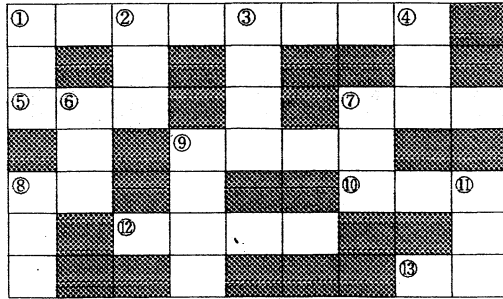
그는 요새 와서 혼란에 빠진다. 처음에는 그가 하고 싶어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여자이기를 강요하는 것이 싫어서 여자로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여전히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일이 있으면 남학생들도 멋을 부리고 나타나는데 그라고 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마는, '그동안 애써 잘난 척했다만 꾸밈 줄 아는 걸 보니 너도 어쩔 수 없는 여자다.'라는 시선을 받는 것이 싫어서 참는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몹시 혼란스러워진다. 그리고 그 혼란 때문에라도 더욱더 자신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는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묘사되어 선뜻 자신의 이야기라고 동의하기는 힘들겠지만, 조금만 찬찬히 돌이켜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대생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같은 여대생의 입장에서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혼란에 빠뜨린 그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따져 보고 또 누구나 그와 비슷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좀더 현명하게 이러한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결코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그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기 위하여 '여성다움'으로 의식될 만한 행동을 회피하고 있을 뿐,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여성다움'이라는 편견은 고스람히 가지고 있다. 진정한 인간다움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지양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여성다움'의 포기는 현실적으로 '남성다움' 이외의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여성다움'을 강요당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 '여성다움'이 더이상 여성만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이 여성답지 않다는 것이 반드시 '인간다움'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여성다움'을 상대적으로 전제하는 '남성다움'일 뿐인 것이다.

이제 그는 '여대생'이어야 한다. 물론 '여성다움'을 인정한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성다움'이라는 이름 아래 여성들만이 경험해야 했던 현실의 한 주체로서 스스로를 의식해야만 한다. 다행스럽게도 적지 않은 여대생들이 '그'의 혼란을 극복해 내고 있다. 또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결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할 수 없으며, 단순히 남성들과 동등해지기 위해 스스로가 여성임을 부정하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진실로 동등하게 살아가는 조건을 이루기 위하여 여성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는 '여대생'이다. 그는 여전히 '여대생'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불쾌하다.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업데기'로 보는 현실이 못마땅하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여대생'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가 해결해야 할 현실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한시도 쉬지 못하고 집안의 굶은 일을 하시는 어머니가 이제는 못나게 생각되지 않는다. 어머니나 언니가 '부업'에서 해내는 일들까지도 모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여성다움'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 내는 것이 바로 그가 모든 어머니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질 때면 그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자랑스럽다. 그를 혼란스럽게만 하던 자기 혐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가 로

- ① 공대에 있는 여학우들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학생회 조직의 공식명칭
- ⑤ 보수를 받고 집안 살림에 딸린 일을 하는 사람
- ⑦ 칠석날 견우와 직녀 두별의 상봉을 위해 까막 까치가 모여 놓는 다리
- ⑧ 전남대학교 전투조직 오월대 중 공대·사범대·약대·가정대가 이루고 있는 중대
- ⑨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⑩ 고향을 잃고 타향살이를 하는 백성
- ⑫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
- ⑬ 조선시대 농민들이 농번기에 협력하기 위해 이룬 모임

세 로

- ① 아내에게 눌러 지내는 남편
- ② 사내답고 씩씩한 남자
- ③ 사회적 지위나 권리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한 현상
- ④ 자기 작품 중에서 자기 마음이 흐뭇하도록 잘된 작품
- ⑥ 95년도 공과대학 학생회장 이름
- ⑦ 오락에 필요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방
- ⑧ 새이름. 통신용으로 이용함 평화의 상징
- ⑨ 시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나사
- ⑩ 영거시과의 다년초 민중가요
“○○○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투혼“

‘2학기 개강 맞이 선물 대잔치’

날말 퀴즈의 정답을 9월 25일까지 여학생회실로 보내 주시면 5명을 추첨하여 예쁜 선물을 드려요.

착한 여자 콤플렉스

흔히 여자는 ‘착한 여자’ 인지 아닌지로 평가 받는다. 그래서 여자는 늘 착한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는다. 중요한 일은 남성과 윗사람의 의견에 따르고 남자 앞에서는 자기를 세우지 않도록 조심한다. 말의 꼬 앞에 놓은 당근처럼 ‘착한여자’ 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 여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에서 만들어 낸 여성 신화, 즉 여성다움에 사로잡힌다. 여자는 순종, 유순, 정숙, 겸양의 덕을 타고난다고 믿는 사회에서 착한여자로 길들여져 온 여자는 주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자아를 억제하고 개성이나 감정, 욕구를 희생한다.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학교, 대중 매체를 통해 “여자답게 얌전히 행동하라”, “참는 것이 미덕이다.”, “보기도 문 착한 여자네요” 같은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란다. 그리하여 사회가 여성다움의 속성이라고 지어낸 희생, 모성, 수동성, 감성들을 타고난 성품으로 받아들인다. 이리하여 여성은 어른이 되어서도 나비가 되지 못한 애벌레처럼 미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성은 ‘여자는 여자답게’, ‘착한여자’ 로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어 항상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의식하는가 하면, 자아 실현의 잠재력을 희생하면까지 남편, 가정,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드려 한다. 만약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칭찬을 받지 못할 때는 자신을 비하하고 스스로 못된 여자라고 생각하는 열등 의식을 갖는데, 이를 **착한 여자 콤플렉스**라 부른다.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차고 밝은 출발

공과대학 여학생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 통 차

마당김은집

☎ 265-4192

(전남대 공대 쪽문 맞은편 3층)

세단장 했어요

공과대학 여학생의
네나들이 소모임 모집

☎ 520-7459

컴퓨터 종합백화점



무 등 정 보

HP/삼보/삼성/대우/현대
각종 주변기기. PC 업그레이드

☎ 265-7869

전대후문과 공대 쪽문 사이

무등정보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쇄 : 재승문화사 ☎ 227-7486

너나들이

제 12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5. 10.



◎ 이달의 특집

- 용봉골에 이런 일이
- 주말미군 국교생 성폭행
- 5월 정신을 찾기 위해

◎ 만나보고 싶었어요.

- 용봉사 주지스님(?)

◎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 세계 여성대회 보고

◎ 함께 고민하는 마당

- 계속되는 5·18
- 계속되는 민중의 함성

◎ 여성 이야기 주머니

-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 작지만 알뜰한 공간

- 전남대학교 최고의 휴식공간

『너나들이』는요...!!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과 여학생회가 항상 너나들이가 되면 좋겠네요!!

여자식으로 바둑판을 놔다가
남자식으로 수를 두는 날들이 있었다
여자식으로 씨를 뿌렸다가
남자식으로 추수를 하는 날들이 있었다
여자식으로 뿌리를 내렸다가
남자식으로 꽃피는 날들이 있었다
남자식으로 또 여자식으로
커다란 대문에는 빗장을 지르고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를 잘랐다
이 온전한 평화
이 온전한 행복
그러나 어느 날
여자식으로 사랑을 꿈꾸며
남자식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우아한 중년의 식탁 위에
겉고 무서운 예감을 엮질렀다
어둡고 불길한 예감 속에는
산발한 유행들이 만찬을 즐기고
사랑의 과일들이 무덤으로 누워
피 묻은 달을 하관하고 있었다
먼에서 어른대는 황혼의 그림자
적막 속에 흔들리는 지상의 척도……

왜, 왜 사느냐고 메아리치는 강변에
여자 홀로 바라보는 배가 뜨고 있었다

용봉골의 화제로 떠올랐던 학내 성폭력 사건!

그 동안 우리는 '설마, 설마' 했었고 모르는 척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사건이 밝혀지자 우리 많은 분노를 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언제부턴가 피해자는 숨을 죽이고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도 못하고...

가해자는 똥똥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80년 5월 2천여 망월 영령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는 4천만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유지에 눈이 먼 김영삼 정권에 의해 연희등에서 호의호식하며 똥똥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 광주 시민들은 학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가슴깊이 생각하면서도 말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한사람의 생명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 사회의 총체적 모순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좀더 이러한 현실에 관심을 갖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95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김채희

그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 특별법 서명운동 기간

— 9월 4일 ~ 14일

— 학살자들에게 공소 시효란 없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처벌합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우리 전남대, 아니 우리 광주에서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 천주교, 불교, 교수님들, 고등학생, 선생님들, 정치인들까지 학살자 처벌은 4천만의 분노입니다.

◆ 5·18 관련 토론회

◆ 민족 전대 5월 투쟁 결의대회

— 9월 13일

— 민족 전대 중앙위원 무기한 단식투쟁 결의식, 문창인 부총학생회장님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 학내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족전대 대 토론회

— 9월 14일

— 농대 사건으로 인해 용봉골을 술렁이게 했던 성폭력, 성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 5·18 특별법 서명자 대회

— 9월 16일

— 서명에 참여한 남충련 10만 학도와 130만 광주시민이 도청에서 모여 80년 5월을 잊지 말자고 투쟁! 투쟁! 투쟁!

◆ 전학대회

— 9월 18일

— 민족 전대 역사상 가장 많은 대의원이 참여하여 가장 빠른 시간에 시작된 전학대회!

상반기 사업보고, 하반기 사업의결, 학생회 선거 일정, 선거관리 위원장, 감사위원장을 선출했고 특별안건으로 학살자 처벌을 위한 총투표 및 동맹휴업을 힘차게 결의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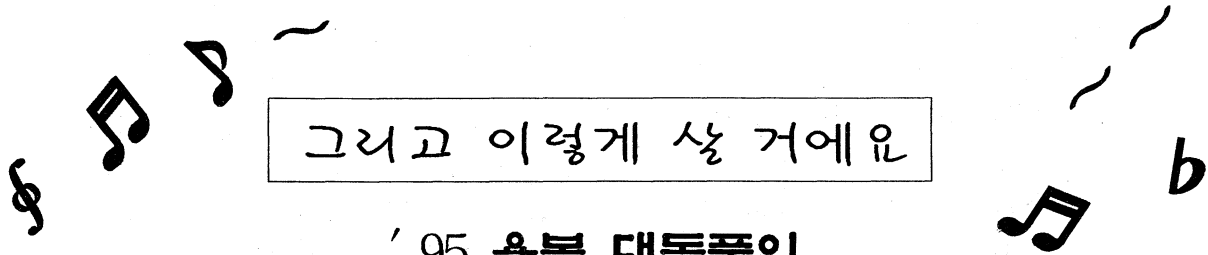


◆ 민족 전대 시극 선언대회

- 9월 21일
- 천막 단식 농성장 결의, 과학장 중심의 2차 동조 단식결의, 삭발식

◆ 영·호남 청년 학생 대회

- 9월 23일 ~ 24일
- 시대의 개척자 청년학생이 영·호남 지역의 단결을 위해 이 시대의 과제인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해, 통일을 위해 민족 전대에서 모여, 초청으로 초청으로



그리고 이렇게 살 거예요

'95 용봉 대동놀이

■■■■■■■■ 행동하는 지성의 아름다움
그 모습이 용봉인입니다 ■■■■■■■■

	4 일	5 일	6 일	7 일	8 일
오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 그리기 ◆공대방송국 개국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학생·교직원 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로스 컨츄리 (총화) 단축마라톤 (총화) 	
오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영화제 ◆공대갈고다니 ◆용봉골 아저씨, 아줌마 한마당(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영화제 ◆성화봉송, 자전거 선전 거리행진(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사초청 강연회 ◆여성영화제 ◆자주여성 민주남성(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잔치(총) ◆총장배 축구 대회 결승 및 폐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지역 시민·학생 한마당(총)
저 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모스 열린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림제 ◆시상식 ◆열린마당(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만 화우 장기자랑 및 노래자랑(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미 기쁜 물 (총) ◆광주시민 장기자랑(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함마당(총)

용봉골에 이런 일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접하고)

몇 일 전 민족 전대의 학내를 온통 놀라움과 분노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던 사건이 있었다. 농대 한 여학생이 잘 알던 어떤 선배로부터 당할 뻔한, 강간 미수로 그쳤던 일이었는데, 용기 있는 피해자의 고발로써 사건은 전대 곳곳에 알려지고 한 동안 2만 학우의 가장 큰 화젯거리로 떠올랐던 사건이다.

‘용봉골에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이란 제목의 성폭행 사건의 경위와 상황 설명이 돼 있는 대자보가 처음 붙던 날부터 학우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남자는 다 늑대라느니, 여자도 잘못했다라느니 등등 자신의 의견을 서슴없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학생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과 그 ‘추학형’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점은 2만 학우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을 한 개인의 문제나 한날 관심거리로 국한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매번 피해자의 침묵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한 개인의 실수로 생각해 버리는 성폭력 사건들! 이러한 것은 잘못된 성 인식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 봐야만 될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총여학생회측은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남·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성 인식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의 실정을 묻는 설문지를 돌렸고, 많은 학우들의 동참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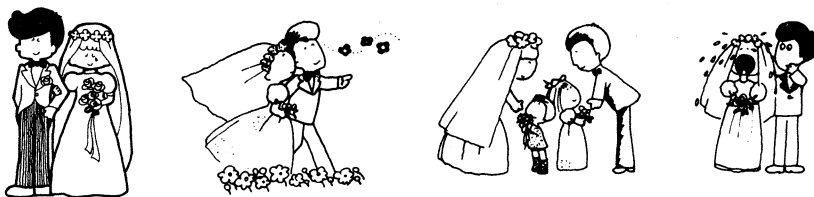
설문 조사 결과, 학우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부재함을 알 수 있었고, 성폭력의 어려움을 75%의 학우가 대책 없이 참아야만 했다고 했으며, 가해자는 그냥 아무일 없었다는 듯 지나친 경우가 94.4%에 달했다.

그리고 이 설문 조사를 하면서 민족 전대 처음으로 ‘학내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2만학우 토론회’가 5·18 광장에서 열렸다. YMCA 염미봉 선생님의 초청 강연회와 가정대 김정신

교수님의 말씀도 있었다. 또한 도서관 학우들도 의견을 함께 했었는데 대부분 성교육이 부재하다고 했으며, 일상적인 문화 속에서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이 변해야지만이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토론회에 대한 보고의 자료가 붙은 뒤 1차적으로 제도적인 성문제에 대한 상담전화·상담소 개설, 가해자의 법적 처벌, 여성학 강의 개설, 방범 활동 강화, 가로등 설치 보수 요구의 5가지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2만 학우 서명 운동이 실시되었다. 용봉골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졌던 서명 운동은 마침내 본부 측에 5가지 요구안을 요구하였고 드디어는 2081명의 서명 운동 참여와 본부와의 협상으로 요구안 실현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 전대는 5가지 요구안의 실현이 진행 중이라 해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학내의 성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진정한 자주 여성·민주 남성이 되는 그날까지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클린턴대통령 공식 사과 일 미군 지위협정 개정 검토

— 주일 미군 국교생 성폭행사건 계기

주일 미군병사들의 일본인 국교 여학생 성폭행 사건을 보면서 미군의 잔인한 만행에 몸서리쳐지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넘어가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우리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우선 첫 번째, 미군에 대한 입장이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사건에 대한 공식사과를 직접하였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쪽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력하여 성폭행 미군 3명을 일본정부가 기소할 경우 이들의 신병을 일본쪽에 넘길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가슴아픈 기억을 되살려 보자. 92년 동두천에서 항문에는 우산대가 국부에는 콜라병이 온몸에는 하이타이가 뿌려져 비참하게 살해되었던 윤금이. 그 사건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사과 한마디 없고 신병인도는커녕, 잔인하고 난폭한 살해범에게 무기징역도 많다고 항소를 하는가 하면 재판이 끝나자마자 신병인도를 요구하여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간 나라 미국.

우리나라가 일제에 해방되자마자 해방군으로 들어와 하루 평균 5건, 지금까지 10여만건이 넘는 범죄를 일으켰던 점령군. 그러나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율은 0.7%

올해 여름 지하철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시민의 폭행사건만 보더라도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공식적인 사과는 없고 오히려 한국언론이 미군범죄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인다고 비판을 하였다.

이제 미국은 자신의 잘못을 상황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입장을 가져야 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나라에 더 이상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될 것이다.

두 번째, 일본정부는 자국의 국민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여야 한다.

은 세계가 일본의 전쟁범죄, 정신대 문제를 이제는 알고 있다. 50여년전 14살이상의 꽃다운 청춘, 순결한 처녀를 20여만명이상이나 끌고 가 성의 노예로, 정액반이로 사용하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집단학살을 자행하였던 일본. 그러한 엄청난 학살과 전쟁범죄를 저지르고도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고 보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죄없는 민간인들에게 떠넘겨 민간인 모금운동이나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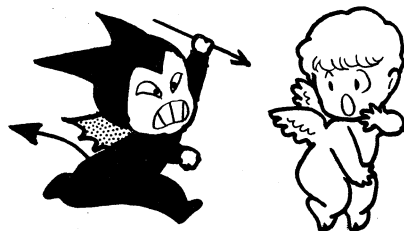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국의 국민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나라의 국민도 소중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솔직하게 반성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김영삼정권은 이 사건을 보면서 반성을 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범죄나 정신대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관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요근래에 미국과 자동차협상을 둘러싸고 굴욕적인 외교협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거공약속에서 언제나 민족의 이익을 우선에 두겠다고 자신의 약속을 잊지말아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의 식민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미행정협정개정에서부터 민족의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며 경제관계에서도 미국의 소비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주체적 외교를 풀어나가야 한다. 정신대 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김영삼대통령은 어느나라의 대통령인가?



5월 정신을 찾기위해

(통일 미술제 — Anti Kwang-ju Biennale)

예향의 도시 광주에서 문화 예술 올림픽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상설 전시관과 보조 전시관이 완성됨으로써 지난 9월 21일 각종 연예인의 화려한 공연과 불꽃놀이로 막이 올랐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한 그야말로 돈으로 치장한 속빈 강정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역시나 광주에서는 비엔날레에 대해 관심이 낮다.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광주의 의의와 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까? 광주 시민이 원했던 광주의 민주 정신, 5월 정신이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광주의 세계화, 광주 비엔날레가 되지못해서 일까?

한편 화려한 개막식과 어마어마한 투자는 없었지만(광주 비엔날레에 책정된 예산의 100분의 1로 열리는 행사) 망월동 묘역에서는 광주·전남 미술인 공동체 회원과 광주지역 뜻있는 작가들이 마련한 「광주 통일 미술제」가 펼쳐지고 있다.

Anti Kwang-ju Biennale의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는 ‘역사는 산을 넘어 강물로 흐르고’ 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월 광주의 민주 정신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19세기 말 갑오농민 전쟁부터 지금까지 지난했던 근·현대사에 연속된 사건들, 그 속에서 고통을 딛고 투쟁과 승리를 이끌어낸 민중들의 모습들,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 부조리가 판치는 지금의 정치 사회, 중심을 잃고 허우적대는 문화실태등 다양한 작품들이 선을 보인다.

특히 망월동 묘역 진입로에 나열된 강연균 화백의 만장 ('95 하늘과 땅 사이)은 이 행사를 더욱 뜻깊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광주 통일 미술제는 애매모호한 성격의 광주 비엔날레를 보완해 주는 셈이고 다음 광주 비엔날레 개최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방: 사또. 지금 온 고을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복적복적 하옵니다.

사또: 그래, 그럴 것이다. 빗고을에 잔치를 베풀어 놓았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잔치바람에 정신이 없을 것이야.

이방: 아니 그것이 아니 급쇼.

전임 사또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 있사온데 책임을 지라는 원성인 줄 아뢰오.

사또: 아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이방: 빗고을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비리비리 잔치' 에는 관심이 없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고 이 고을 저 고을에서 백성들이 들고일어나고 있사옵니다.

사또: (답답스럽다는 듯) 그러기에 잔치마당에 돈 아끼지 말고 팍팍 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음흉하게) 지까짓들이 잔치 기분에 이것저것 생각할 여념이 있겠느냐. 그 사이에 동헌 회의를 열어 그 문제를 사리살짝 처리해 버리면 되느니라. 허허허

이방: 하오나, 고을의 훈장 선생과 학동들이 방을 써 붙이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사옵니다. 게다가 상소까지 올릴 것으로 헤아려져...

사또: (시시하다는 듯) 하~

만사는 시간이 약이니라. 두고 봐라 잔치하고 나면 그 소리는 죽들어갈 것이야.

이방: 아니, 십오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렇듯 기세가 펄펄한데, 그 무슨 분위기 파악 못하는 소리십니까?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된줄 아뢰오.

위 풍트는 전남대학교 방송국 <용봉골 메아리>라는 코너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5·18 특별법 제정하라는 4천만 국민의 합성을 비엔날레라는 속빈강정으로 덮어버리려는 김영삼정권의 작태를 풍자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어 공대학우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자 합니다.



“용봉사 주지스님”

(문창인 부총학생회장님을 만나고)

전고마비의 계절!

높은 하늘만큼 학살자 처벌을 위한 4천만 국민의 함성도 높아지고 있는 가을입니다. 가을엔 말도 살이 쪼다는데 갈수록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우 중심”이라는 네 글자를 가지고 항상 바쁘게 살아가시며 학살자 처벌을 위해 식발·단식투쟁을 벌이고 계신 자랑스런 민족전대 27대 문창인 부총학생 회장님!

점점 스산해져 가는 가을 날씨에 더 추우실 부총님을 생각하며 단식투쟁에 필요한 생수를 사들고 총학생회로 찾아간 우리는 바쁘게 컴퓨터 자판을 치고 계신 부총님을 만나 뵈 수 있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유행시키고 계신 부총님의 머리가 빛날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뽕뽕 자라있었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그 어떤 선배나 오빠보다 더 편안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3남 2녀의 장남이셨으며 고향인 장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그래서인지 촌놈(?)처럼 전대를 들어와 빨빨거리며 여기저기 돌아다닌 덕에 뜰래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단다. 애인은 예쁘냐고 했더니 “예뵤요” 라고 부총님이 대답은 하셨는데 옆사람들은 표정이 영.....(아닌 것 같애)

하지만 그 씩씩한 모습 뒤에는 항상 사람 중심의 철학 ‘학우중심’을 간직하고 계셨으며 1,2학년 댄 집회에 나갔다가 다리를 다치시기도 하고, 교도소에 갔다오시기도 하고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아버님을 꼽으셨고 김남주시인, 노동자시인 박노해 선생님도 존경하신 다며 힘있게 말씀하셨다.

취재도중 지리교육과에서 과 축제에 대한 초청장을 가지고 여학생들이 왔는데 아주 반기시면서 눈이 안보이도록 웃는 모습이란 역시 인기관리(?)는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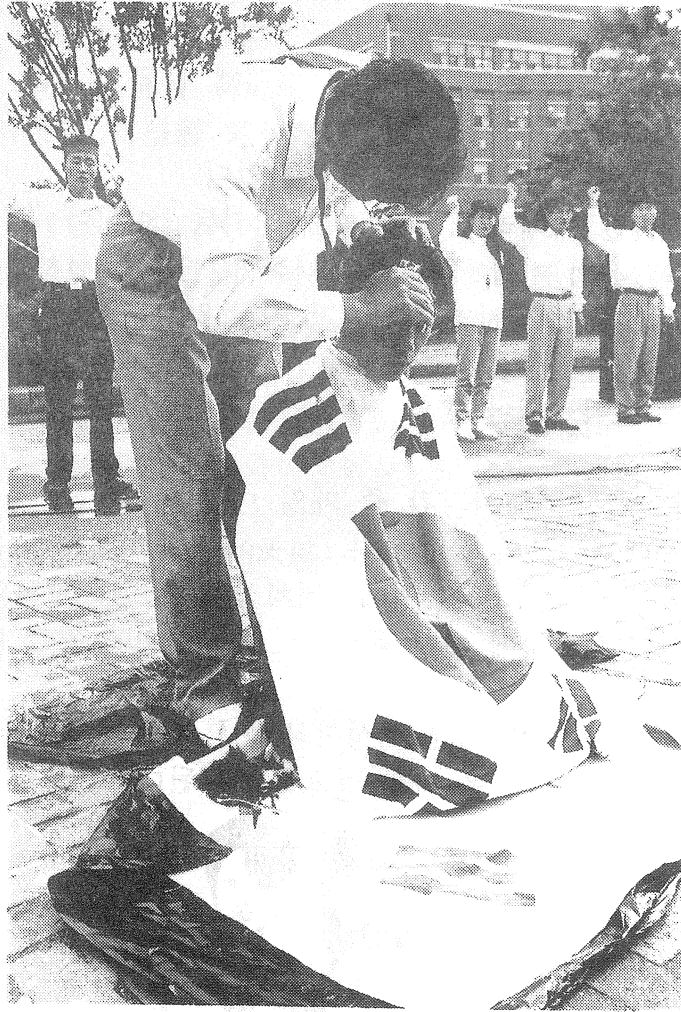
또 이번 농대 성폭력 사건을 접한 느낌을 여쭙봤더니 언짢고 속상했으며 학내에서 일어나서인지 부회장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졌고 해결방안 모

색을 하셨다고 한다. 삭발과 단식을 하실 용기는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해 했더니 하나됨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덩덤히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학살자 처벌과 민족 정기를 바로 잡기 위한 2만학우의 의지가 자신의 머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새록새록 자라났으면 하신다고.....

마지막으로 공대 여학생들에게는 자주 만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면서 참여성, 참대학생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씀까지 해 주셨다.

부총님 머리카락이 예전처럼 다 자라는 날 학살자는 반드시 처리돼 있으리란 굳은 믿음을 간직하며...

부총님 건강하세요!



세계 여성 대회 보고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기치아래 지난 8월 30일 개막한 95 NGO포럼에는 전 세계 3만 6천여 명의 여성이 참가 신청을 했고 이들은 나이, 이념, 인종을 초월해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NGO 포럼이 열린 화이러무 현은 전체 42 헥타르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으로 곳곳에서 하루에 약 5백건의 각종 워크샵과 문화 행사가 열렸다.

NGO 포럼의 활동 영역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다양한 이슈를 가지 텐트들이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는 ‘여성과 환경’, ‘정신대’ 텐트 등을 설치해 한국 여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리고, 둘째는 지역별 텐트로 구별되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브리해 국가들, 아시아·태평양 국가,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랍 국가들로 나뉘어 텐트를 설치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텐트에서 지난 2일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특히 팽과리, 북, 징등 우리 나라 고유 민속악기의 신명나는 가락에 맞춰 2백여 명의 관객들이 한바탕 어우러지는 놀이마당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행사기간 중 매일 아침 9시에 국제 회의장에서 열리는 NGO 대표단들의 포럼이다. 이곳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제 4차 세계 여성회의 중심 논제인 경제, 정치참여, 인권, 평화와 안전, 교육, 건강, 환경, 여성에 대한 폭력, 신 보수주의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다.

이들의 논의는 제 4차 세계 여성회의 본회의에서 결정될 행동 강령안에 간접적이거나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계속되는 5·18

계속되는 민중의 함성

80년 5월

조국의 참민주를 외치던 사람들.

총칼 앞에 짓이겨지고 두개골이 빠개지고 가슴이 잘려나가고 사람의 몸뚱이는 고깃덩어리처럼 갈기갈기 찢겨져 떨어져나갔다.

그렇게 4천만 국민의 민주화의 열망들이, 시대정신이 뭉개졌다.

하지만 95년 지금

모든 민중들은 알고 있다. 5월의 정신을....

하지만 또다시 김영삼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에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하여 4천만 민중들은 슬렁거리고 분노하기 시작했다.

학살자 전.노일당을 처단하기 위한 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민족전대는 지난 9월 6일 5.18관련 토론회와 특별법 서명운동으로 그 뜻을 모으고 단대회장님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 각 과회장님들과 많은 학우들의 동조 단식농성 돌입하였으며 문창인 부총학생회장님의 삭발투쟁에 이어 총학생회 간부와 95학번 학우까지 삭발 투쟁에 돌입하였다.

23일 영남지역청년학생과의 학살자 처벌의 의지를 모은 영호남 청년학생대회, 그리고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인으로서 최고의 투쟁인 동맹휴업까지. 민주화의 대의에 목숨까지 바쳐간 선배열사들의 함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민족전대 2만학우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학살자 전.노일당을 처벌하고 민족과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투쟁에 함께할것이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청파 양은 광주시의 한 유복한 가정의 3자매 중 막내로 태어나 현재 J대학 2학년
년에 재학중이다. 우선 주인공이 여자일 때 누구나 관심을 가지게 되는 몸모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천하 절세이라는 찬사까지는 듣기 힘들더라도, 청파 양 스스로
가 항상 한탄의 대상으로 여기는 '주저앉은 코'를 제외하고는 커다랗고 또렷한
눈동자와 도톰한 입술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외양과, 언니들로부터 전수 받은
한장술이 한상적으로 경향하여서, 버스 속에서 첫눈에 반했다면서 그녀에게 접근
하여 집까지 쫓아오려던 한 남자가 있기에 경찰력을 동원하여 힘들게 물리쳤었던
정도의 무용담을 자랑스레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또한 옛부터 뼈대 있고 이층 높은 집안의 여식답게 온갖 장기에든 능하다. '소년
의 기도'나 '엘리제를 위하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면서도 봉후의 명곡이라 불리
는 피아노 곡 서너 개 정도는 악보없이 연주할 수 있으며, 축제 때 방황했던 그녀
의 녹두 빈대떡 솜씨는 타학과 남학생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서 옆에서 장사를 벌
이던 가정과 학생들의 직시를 빚어내기에 충분했고, 방학 때 과 친구들이 컴퓨터
다 영어 험하다 하고 이곳저곳 방정맞게 뛰어다닐 때, 목향 그윽한 서실에서 사군
자에 취해 있기도 하였다. 학문에도 크게 뒤떨어짐이 없는 그녀는 비록 전공과목
을 A, B로만 장식하는 어마어마한 수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D학점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 하나를 위안으로 삼고 있다. 또 조이스의 「윙키시즈」
가 인간의 잠재 의식의 세계를 새로운 기법으로 쓴 문제작이라는 것 정도는 거리
낌없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툭툭이 읽어 놓은 서적의 양도 망라치 않다.

모든 인간의 내재적 요소이며 가장 중요한 성격에 대해서 거론하자면 항상 호탕
하고 주저함이 없어 술자리에서 권주가를 멋들어지게 뽑아 내어 자중의 분위기를
돌우기도 하고, 항상 친구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붉은 장이 한 송이를 내어
놓을 줄 아는 무드파이기도 하며, 때로는 무례하다 싶은 정도의 거침없는 언변과
더불어 솔직하고 꾸밈없는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흠모하고 따르는 친구
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유청파 양이 태어나서 손끝에 묵 한 번 묻혀보지도 않고 자라나서
세상이 도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늘을 찌를 듯 자존심만 드높은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천만 부당한 말썸이다. 나는 그녀가 지난 4월, 학내에서 있
었던 '등록금 인상에 따른 규탄대회'에 참가하여 본부 앞 광장에 둘러 앉아 어
깨에는 흰 띠를 두르고 그 희고 가냘픈 손을 허공에 내지르면서 "2만 학우 단결
하여 등록금 동결 쟁취하자!" 라고 고개고개 소리지르던 모습을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으며, 결국 대부분은
세상을 자기 나쁜대로 해석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유
청파 양도 예외는 아니다. 그녀가 보는 이 세상은 때때로 동발적이고 험한 구석이

없지는 않지만 결국은 평화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낙원이다라는 낙관적 입장에서 있다. 평연적으로 그녀 자신의 미래상 역시 이에 입각하여, 이는 그녀가 친구 등끼리의 부담 없는 대화의 시간에서, 또는 미팅에서 입버릇처럼 튀기이곤 하는 다음의 내용으로 양측시켜 볼 수 있겠다.

“뭉뚱니 해도 여자는 사회의 구성원을 창조, 재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해 내는 가정의 파수꾼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녀의 그 귀여운 입술에서 이런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눈빛을 반짝이면서 열심히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남자들을 슬하게 보아왔는데...

그래서 그녀는 새벽 전자의 그 짙직한 여자 탭댄트가 새색시로 분장하고 나한 등 그와 얼굴을 북쪽 내어 멀며,

“남자는 여자하기 나쁨이예요” 라는 코멘트를 던지는 TV광고를 무척이나 좋아하여 그것을 비디오로 녹화까지 해놓고서는 ‘이상적인’ 사랑스러운 여자의 표정을 재창조해 내기에 고심했던 일화도 있다.

“아~, 그러니까 남자와의 첫 대면에서는 딸이다, 허우대만 멀쩡하다고 해서 무조건 에프터까지 따라가지 말고 딸이다. 웃은 어떤 상판을 입었는지,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지, 미래에 대한 탄탄한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등등의 알짜배기 질문만을 던져야 한다.”

아, 그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인 김허영 여사를 간략히 짚고 넘어가야 겠다. 여사의 소박한 소망은 뼈가뼉적한 사위를 얻어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아 보는 것. 그래서 청파 양의 미팅에서 있었던 일들, 혹은 그녀 주변의 남자들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이 모조리 여사에게 보고된과 동시에 여사의 오랜 언론에서 비롯된 행복한 삶에 대한 지혜 등을 강의 받기도 한다.

여사의 이러한 묵신 양면적인 지원은 변증법적으로 그녀의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으니 코흘리개들 선생 노릇을 하면서 받은 월급을 툭툭 털어 십수만원짜리 유행 천단 원피스를 선풍 구입하는가 하면 그녀의 각선미를 날씬하게 받쳐주면서도 아하게 보이게 해준다는 수입 스타킹을 세종대왕님을 내놓고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아침, 유난히 화사한 옷차림으로 아이들의 찬사를 한 몫에 받은 후, 강의실 창가에 앉아 교수님의 강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얼굴로 창밖 너머를 뚫어 놓고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수상쩍게 관찰하다가 쉬는 시간에야 비로소 그 이유를 듣게 되었다. 오늘 오후에 소위 품직이 보장된 소개팅을 하게 된다면서 전공 시간을 과감히 버리고 나가던 딸란자의 모습.

아, 그러나 이를 어쩌냐, 언덕길을 쓸쓸히 내려가다가 우리의 유행파 양이 시뻘겍게 달아오는 얼굴로 손에는 ‘싸구려’ 스타킹을 손에 꼭 천 채 항급히 걸음을 재어놓는 것이었으니, 그녀의 자랑인 화려한 장미 무늬가 수 놓아져 있는 스타킹이 운수 사냥개도 선명히 줄이 간 채 정말로 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비장함을 뚫고 그녀의 얼굴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란다” 였다.

아~, 그녀의 운명적인 만남은 어떻게 되었을까?

전남대학교 최고의 휴식공간!

여학생 휴게실!

몸이 안 좋아 잠깐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학생회실은 몇 시간 전부터 예비역 오빠들이 담배 피우며 장기 두고 있고, 잔디밭에 놓자니 지나가는 학우들이 “무슨 여자가 사람들 다 보는데 누워있냐?” 는 말이나 들을게 뻘하고 그렇다고 여학생 휴게실이라고 가보니 칙칙한 매트리스에 여학생회실과 분리도 안돼 여학생회 간부들 일하는 소리에 시끄럽고……

이런 경험 한번쯤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학생 휴게실이 대 혁신을 했거든요.

전남대학교 최고의 휴식공간! 공과대학 여학생 휴게실.

혹자는 신혼방 같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깨끗한 매트리스와 커튼, 친구들과 약속을 할 수 있는 메모판, 400여학우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예쁜 방명록 등등…….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휴게실 물품 도난사고, 남학우의 출입, 최근에 농대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개방하지는 않습니다.

개방 시간은 요! 아침 9시 ~ 저녁 7시 까지예요.

앞으로는 구급약과 패드 무인판매를 실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패드 자판기는 여러 차례 설문조사 결과 학우들의 요구가 많아 여학생회에서 본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수지가 딸지 않다는 이유로 저희의 건의가 매번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400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라면 어떤 난관도 헤치고 관철시키는 자랑스런 공과대학 여학생회가 아닙니까?)☺

이번에 6호관 1층 화장실에 화장지 자판기와 함께 1대 설치하기로 했구요 가능한 빨리 5호관 2층에도 설치할 계획이랍니다.

학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비판 부탁드립니다.

너나들이를 만든 사람
홍자. 두림. 수리. 갯목

인쇄 : 재승문화사

도 서 출 판 . 논 문 . 교 지
팜 프렛 . 회 보 . 카 다 로 그
포 스텐 . 흥 보 물 . 명 함
학 생 수 접 . 기 념 품 . 과 충 인쇄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163번지
(도청뒤 대주건설 건너편 영국식당 주차장 앞)
전 화 : (062) 227-7486
FAX : (062) 227-7486

여성 영화제

연 제 : 10월 4·5·6일
어디서 : 공대 VTR실
몇시에 : 11시 ~ 1시
2시 ~ 4시(하루 2번)

성폭력의
자주적 여성
남·여 평등

— 공과대학 여학생회 —

기획거리

연 제 : 대동제 내내
어디서 : 장승사거리 주변

- 여학생회 1년 사업평가를
학우들과 함께
- 우리의 반쪽 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살까?
- 세계 여성회의 보고

— 공과대학 여학생회 —

놀이마당

연 제 : 10월 4·5일
어디서 : 장승사거리 주변
몇시에 : 이른 10시 ~ 늦은 5시
또 연 제 : 10월 6·7·8일
어디서 : 봉지주변 놀이마당에서
2만 학우와 함께

민속놀이

- 그네타기
- 널뛰기
- 투호
- 제기차기
- 팽이치기

인간 두더지

나쁜놈들 망치로
두들겨 주면
스트레스도 풀리겠지

예쁜 기념품도 드립니다.

자주여성 민주남성

연 제 : 10월 6일
어디서 : 대강당 앞 특설무대

- 학내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모의 재깍」+작은 토론회
-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 할머니 위안 공연

성! 이제는 바로 압시다.

성교육학교... 10월 4·5·6일
3시 30분/2시
(기초성에서부터 피임까지)

정신대 문제 최초 영화화!

『낮은 목소리』... 10월 8일 2시·5시

— 중여학생회 —

너나들이

제 13 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6. 4.



- ◎ 이달의 특집
 -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 수련회를 다녀와서
 - 어느 새내기의 한달
- ◎ 만나보고 싶었어요.
 - 지면서 이기는 남자
- ◎ 새내기의 고민
 - 술자리에서의 여대생
- ◎ 함께 고민하는 마당
 - 故 노수석 열사의 죽음에 애도를 포함니다.
- ◎ 작지만 알뜰한 공간
 - 공대 여학생회 소모임을 소개합니다.

『너나들이』는요...!!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과 여학생회가 항상 너나들이가 되면 좋겠네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서 또 생각을 해봐도...
매일 되풀이되는 일이군...
지금 이런 일이 몇 번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민주주의인가...
의구심이 자꾸만 생기는 구나...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학우가 다치고 주검으로 변해야만
민주주의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결에서 싸늘히 식어 가는 학우의 시신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아무리 다른 나라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희생이 이루어졌지만...
내일 모래면 2000년을 달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마음 갈아서는 서울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다...
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라도 투쟁을 해야겠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해야만 한다...
이런 썩어빠진 정치에 물들어져 가는 나라가 아닌...
올바른 나라를...
비록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해야만 한다...
왜?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자 주인이기에...
어리다고 늙었다고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런 악랄한 일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매일 바라보고만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모두 나가서 싸우자...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 데도...
어떤 굴욕의 손짓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우리모두 굳건히 마음을 다지며...

개강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게 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 하
는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96학년도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산업공학과
3학년 최기자입니다.

예비대학, 수련회, 동아리, 데모 ...

생소한 생활 속에서 자기만의 빛깔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분주히 움직이는 새내기들과 그런 새내기들에게 좀 더 정
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선배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새학기의 대학은 활기차서 좋
습니다.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라는 너무나 작지만 당연
한 것을 외치다 돌아가신 꽃다운 청춘 노수석 학우!

새내기들, '95학번, 그리고 '90·'91년을 살아오신 예비역
오빠들까지 함께 분노하고 함께 슬퍼하는 용봉골에 4월
11일 총선에서 김영삼 정권이 심판되면 따뜻한 봄이 찾아
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가슴에 불을 품고 살아가는 4000학우와 늘 함께 하겠습니다.

'96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최기자



그동안 이렇게 살았데요!

☺96새내기 합격자 발표

-1월 25일

-입시의 관문을 뚫고 드디어 새 출발!

☺공과대학 여학생회 예비대학

-2월 10일

-공대 여학생이 된 새내기들과 재학생들이 하나되어 지냈던 보람찬 하루였어요. 하루 더 하자구요?

☺수강신청

-2월 5일~8일

☺96학년도 민족전대 예비대학

-2월 13일~15일

-체육관에서 시작한 입학식에서부터 마지막 졸업식까지 정말 예비 대학생생활을 3일간 치렀답니다.

☺입학식

-3월 4일

-드디어 진짜 대학생이 된 96학번 새내기!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

-여성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한 노동권 연대를 위한 실천을 결의하는 날이래요.

☺여학단위 방중총화

-3월 14일

-민족 전대의 여학생 일꾼이 모두 모여서 누가누가 잘 살았나 이야기도 해보고 더 잘 살자고 결의도 하였답니다.

그리고 우리 총여학생회 회장 언니인 박현정언니가 남녀대협의장님이 된 걸 축하도 했답니다.

☺한총련 대의원 대회

-3월 15일~17일

-우리학교 총학생회장님이신 정명기회장님이 한총련 의장님으로 뽑히셨대요.
모두들 자부심을 갖고 한총련의 모범으로!

☺공과대학 여학생회 입방식

-3월 20일

-공대 여학생회의 힘찬 출발! 많은 이들이 와서 축하해 주
었어요. 기념품 화장품과 칫솔 다 받으셨죠?

☺전체학생 대표자 대회

-3월 20일

☺공대 학생 대표자 회의

-3월 26일

-공대 모든 대의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로 3년만에 성사시켰대요.

☺민족전대 제28대 총학생회 출범식

-3월 26일, 27일

-총궐기와 함께 한 출범식. 2만이 하나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 거예요

4000학우의 대동단결

코스모스 체전 + 코스모스 대동풀이

언제 : 5월 2·3·4

4000이 함께 넓어지는 삶 △▽△▽△▽△▽△▽

언제나 함께 하는 우리

공대 여학생회 예비대학이 실시되던 그날은 아직 채 추위가 가시지 않은 2월의 중순이었다. 수강 신청원을 받기 위해 학교에 나왔다가 허탕만 치고 돌아가던 내 눈에 띈 것은 하얀 종이 한 장

벽에 착 달라붙은 채 펴려있던 종이엔, 색색으로 “**공대 여학생회 예비대학**”이라고 쓰여 있었고 날짜는 바로 당일이었다. 집에 가 뒹굴 바에야 그냥 재미 삼아가 보자 하는 생각에 친구와 함께 뻘뻘히 들여다본 여학생회실에는 종이 상자들이 깔려져 있었고 아직 자리가 차지 않은 채 군데군데 비어있었다.

한 50명 즈음되는 공대 신입 여학생들은 쪼그리고 앉아서 공대 노래패에게서 노래도 배우고 전체 여학생회 간부 언니들과 인사도 나누고 토론도 하면서 그렇게 오전 일정을 마쳤다.

드디어 점심시간, 오뎅국과 김밥이라.....

떨어지지 않은 줄 김밥을 본 순간 ‘으히?’ 동그래지던 아이들의 눈.

이걸 어떻게 어...하는 투로 모두들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뿐. 번들거리는 김밥을 손데 쥐고 덕지덕지 깨를 묻히며 서로 떠들고 웃으며 이빨 사이에 김까지 끼운 채 우리는 그렇게 어우러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하하’하는 웃음 소리 안에서 내가 정말 이곳에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오후 일정이었던 학내 갈고 다니기를 하며 (우리 조는 ‘꽃돼지’였다) 맨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도 보고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노래도 부르고, 아직 덜 녹은 얼음물에 손 넣고 앞드려 빨쳐도 하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MT라 힘들기도 했지만 힘들다는 생각 보단 너무나 재밌다는 생각이 훨씬 더 컸다. 물론 재밌으라고 주는 MT는 아니었으리라. 무엇인가를 느꼈어야 했는데...한참 뒤에 알았지만 그건 아마도 ‘**일체감**’이 **아니었을까 싶다**.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닌 ‘너는 나, 나는 너, 그리고 우리’가 되라는...

약간은 고된 학내 갈고 다니기가 끝나자 그 때 우리는 뒤통이를 시작했다. 그 자리엔 맛깔스럽게 부친 김치전과 거품이 싸아한 맥주 한 컵, 그리고 우리들의 노래가 있었다. 쑥스러운 표정들을 애써 감추고 빨개진 얼굴로 노랗 부르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 주며, 우리는 다들 서로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 또한 그날 같이 뛰어다닌 친구들을 잊을 수 없다. 내게 그런 좋은 경험을 갖게 해준 여학생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던 동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세상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내게 그 기회를 제공해준 이번 행사참여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며 모두들에게 한 차원 거듭나는 기회가 됐었다면 좋겠다. 앞으로 대학생활 하면서 그 때 느낀 느낌들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몽실항공과 1학년
김수진

수련회를 다녀와서.....

수련회 가는 날이다. 더디게만 가던 일주일이 드디어 지난 것이다. 이제 어린애 티는 벗어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나에게 있어 오늘은 소풍가는 기분이다.** 한가지 불만스러운 것은 어제 밤부터 내리던 비가 지금까지 내린다는 것. ‘비가 오는데 진짜로 수련회를 가는 것일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해보았다.

11시에 출발한다는 차를 기다리기 지루해서 친구랑 밥도 먹으러가고 오락실에서 시간 보내기도 하다 돌아왔다. 그런데 11시에 출발한다던 차가 12시가 넘어서 출발하는 것이다.

드디어 수련회의 첫스타트가 끊겼다. 약간은 썰렁한 분위기로 1시간 20분의 여행을 끝내고 차에서 내려 빗속을 달리며 수련회장 건물로 갔다. 중앙 홀에서 조배정과 방배정을 받고 각자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한가지 가슴 뛰는 사실하나. MBC에서 우리과 수련회를 촬영나온 것이다. 방으로 카메라가 들어오고 라이트가 비추어지자 약간은 긴장하는 애들 모습과 선배들의 모습.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우리 조만을 집중적으로 비추는 것이다. 긴장되고 썰렁한 분위기로 토의를 끝내고 대강당으로 향했다. 동기들이 20일 동안 고생하며 배운 연극과 문선대. 연극은 너무 재밌었고 문선대는 장엄한 음악과 격렬한 율동. 너무 멋있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3학년 장기자랑. 회장을 주축으로 한 예비역들의 너무나 코믹한 춤. 2번의 NG가 있었다. 그 때마다 회장은 카메라를 향해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십시오’하며 아양을 떠는 것이다.(지금도 회장은 자신이 캐스팅 될 거라는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저녁을 먹고 식당의 테이블을 다 치우고 그 곳에서 등그렇게 앉아 조별 장기자랑과 게임을 했다. 풍선 터트리거나 무언의 스피드 퀴즈.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인 뽀뽀로 게임. 뽀뽀로에서 새우깡으로, 새우깡에서 조리퐁까지 갔다. 내가 거기에 나가서 역사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나와 내 친구는 툴툴히 밖으로 나와 날씨 상황을 체크했다. 제발 비가 와서 MT를 받지 않기를...선배들로부터 듣는 MT이야기는 제발 MT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런데 어찌 하늘아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10시

20분전에 비가 그쳤다. 게임을 끝내고 사회자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 했다. 나는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열심히 운동장을 뛰었다. 항상 웃기 만하던 예비역오빠들의 얼굴에선 웃음기라고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쩔 그리 무서운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시작도 하기 전에 소리가 작다는 이유. 목소리가 일치단결되지 않는 이유로 운동장을 계속 뛰었다.

전체가 3코스라 했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나는 첫 코스부터 치를 떨었다. 철교를 만들어 기어가고, 1분내에 20여명의 이름을 외우고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등 너무 힘들었는데 조교는 가장 쉬운 코스라 말했다. 정말이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스팔트 다리였으니까. 두 번째 코스는 말 그대로 진흙탕이었다. 그곳에서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을 한 기분은 진흙으로 샤워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가장 힘든 건 오리걸음과 토끼뎀이다. 다른 것들은 단시간이지만 이것은 20m가 기본이니까...여자라는 이유로 단 한 번 열외를 받았는데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서러웠다. 울고 싶진 않지만 눈물도 나왔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MT를 다 받고 돌아오는 길엔 약간 서운한 감도 들었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MT받는 동안 못했던 말 다하며 노래부르며 춤추고, 너무나 흥겨웠다.(그래도 그 땐 94학번이 너무 부러웠다. MT를 받지 않으니까) 방에서 술자리가 벌어지고 나는 이 밤을 찢겠다는 일념 하에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놀았다. 복도에선 술취한 1학년들의 노래 메들리가 들려왔다. 술마시며 예비역 오빠들한테 MT에 대해 하고 싶은 말 다하고 너무 속 시원했지만 그렇다고 아픈 다리가 낫는 건 아니었다.

날을 새고 싶었지만 술에 취해 아쉽게도 6:30에 잠이 들어 7:30에 일어나 아침 먹고 3학년과 대면 식을 하고 술이 덜 깬 부시시한 모습으로 아침나절이 지나갔다. 차를 기다리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지친 듯하면서 활기차 보였다. 우리과가 떠나기 1시간 전쯤에 농경과가 도착했다. 모두들 깨끗한 옷과 단정하고 밝은 모습으로 식당으로 향했다. 모두들 얼굴에 웃음을 띄고 너무나 즐거운 소풍을 온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밝은 웃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단 한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질 않았다.

‘니 등도 MT 받아봐. 웃음이 나오나. 눈물만 나뺌거다’

선유공학관 1학년
미경이

어느 새내기의 한달

11월 22일. 사십만 수험생들의 최종목표인 대학수학능력 시험일. 4교시 외국어 영역 끝을 알리는 터프한 종소리. 띠링! 띠링! 띠링! 그리고 그후 2월 3일 12년간 힘차게 달리며 애타게 기다렸던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합격'이란 소식과 함께 **나의 파란만장한(?) 대학생활은 시작됐다.**

오직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 펜대 들러매고 입시전쟁에서 시달리다 자유롭게 가져보는 술자리. 매일 구린내 나는 남정내들과 부대끼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향긋한 화장내음. 실업자가 되어버린 알람시계..... 대학합격이 나에게 가져다준 이 휘황찬란한 보물들에 난 마냥 행복했다. 이 맛이 대학이로구나!!

하지만 행복도 잠시, 대학은 내게 만만한 상대만은 아니었다. 꿈과 낭만이 가득한 자유의 세계로만 알았던 대학이 **젊음에 가장 무시무시한 적인 백수의 탈을 내게 안겨줄 줄이야.** 날마다 남아도는 시간에 할 일이 없어 뭘할까 고심하다 지쳐 잠들곤 한다.

아뿔싸! 내가 진정 백수가 되었던 말인가? 눈물을 금치 못할 일이로다!! 무의미한 날들에 내방 천장 꽃무늬 수를 모두 외워버린 난. 우연히, 어느 날 우연히 공대학생회를, 총여학생회를 알게 됐다. 그리고 드디어 드디어. 그 꿈쩍했던 백수의 탈을 벗어 던졌다.

내 청춘의 한 송이 꽃을 피워준 **총여가 내게 선사한 인식극!** 내 어찌 이 일을 잊으랴. 비록 시작한 공대 여회장님 최기자 누나의 야릇한(?) 사탕발림에 속아 내 의지는 제껴버린채 어빙빙하게 해버렸지만 그 끝은 평생 두고두고 간직할 너무나도 값진 경험을 남겨주었다. 모든게 좋았다. 소중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새 친구들과 선배들과 만나 술금술금 가슴한구석에 들었던 정이 좋았다.

그렇게 이런저런 즐거운 시간들로 대학생활에 무르익어가던 중 한 선배의 권유로 아무것도 모른 채 엉겁결에 소위 '집회'라는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사회의 시시각각 일어나는 현상들에 그리 민감한 편도 아니고 그러저럭 농구만을 즐기는 현대판 한량에 불과했던 나였는데 여러 동기들과 어깨동무하고 함께 걸으며 외치던 함성 속에서 내머리속엔 뭔가 알 수 없는 딱 잘라 표현하기 힘든 그 무엇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뭐랄까? 이 사회를 좀더 올바르게 바라보는 안목을 조금 가졌다고 할
까? 어쨌든 곱상하게 포장된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내게 하나의 의
미를 사회인으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부여해준 일
이었다.

허나 아직 이런 말을 하는게 건방지고 부끄럽게 느껴진다. 내가 참다운 대학인
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 이제 겨우 몇
걸음 전진하고서 이러쿵 저러쿵 논하는게 부끄럽고 죄송하다. 또한 무엇을 더 해
야할지, 무엇을 더 배워야 할지, 이제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하기에 내 인생에 반
려자는 바로 나이기에, 어머니 치마폭에서 갓 벗어난 나로서는 대학이란 큰 물이
접이 난다.

하지만 내 몸뚱이만 나대는 대학생살이 아닌 책과 선배의 경험과
내 경험을 통하여 대학의 머나먼 길을 가고자 한다. 곳곳이 헤쳐나가
리라. 민족 전대인이기에.....

영원하라 민족전대여!!



전기공학과 1학년

지명영

지면서 이기는 남자

(공과대학 학생회장 강유성 회장님)

유성이 오빠를 처음 본 건 여학생 예비대학 때이다. 추운 날씨에 얼어있는 우리들에게 『신데렐라』를 감쪽한(끔찍한) 율동과 함께 불러주며 즐겁고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오빠는 공부만 하는 학생 같은 첫 인상과는 달리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회장님이시다.

한총련 의장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시는 정명기 의장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대타로 유성이 오빠를 취재하러 갔는데 대타라도 영광이라며 연신 미소를 그칠 줄 모르는 오빠의 눈 안에는 4천 학우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보였다.

4천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오빠의 하루생활은 그날의 일과를 일지에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공대 학생회장으로서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도 많지만 회장이기 전에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써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자 수업은 꼭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늦게라도 집에도 꼭 들어 가신다며 우리들과 똑같은 평범한 학우라는 것을 강조하셨다.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공대 학생회나, 학생회 간부가 학우들에게 욕을 먹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며 학우들이 공대 학생회를 믿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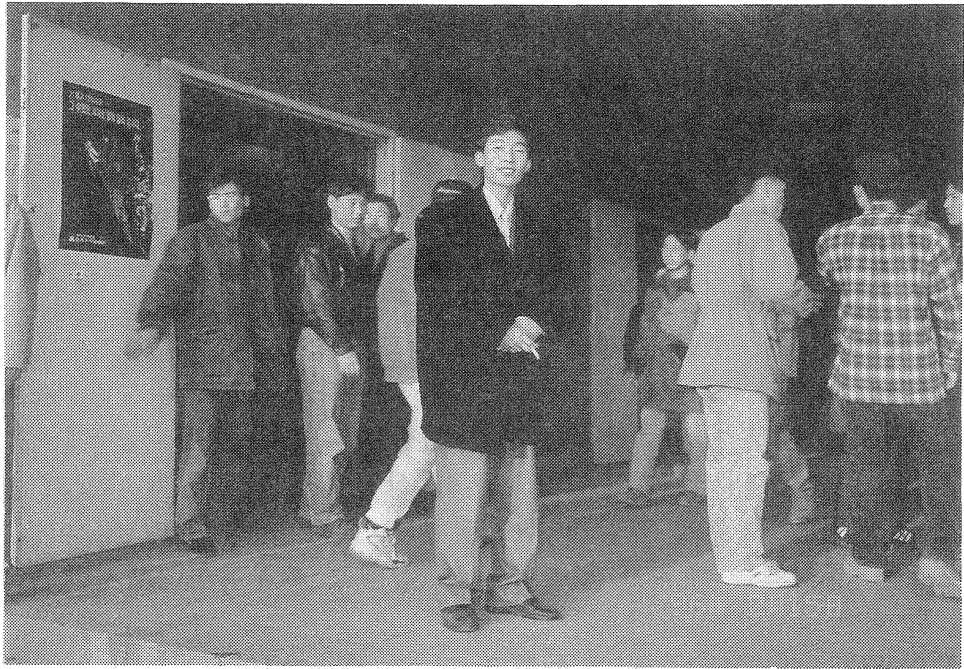
고등학교 시절에는 집과 학교밖에 모르고 기껏해야 오락실이나 한두번 가본 조용한 생활을 보냈지만 들무새에서 쇠를 치면서 숨은 끼를 도발했다고 한다.

오빠의 어떤 모습을 봐도 학생 운동가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지만 오빠의 맑은 눈에는 정의가 살아있다. 또한 집회 연설을 할 땐 학우들의 가슴속까지 깊이 새겨질 정도로 힘차고 열정적으로 열변을 하신다. 그게 바로 모순된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학생의 끼가 아닌지……

박종화씨의 『꽃잎사랑』이라는 노래를 좋아한다기에 불러달라고 박자를 몇 번이나 넣어줬는데도 술자리 아니면 절대 안 부른다며 끝까지 뺐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음치라 한다. 하지만 못 부르는 노래라도 한번 시작하면 가슴과 정열로 끝을 보고야 만다니 새우깡에 소수한병 사들고 찾아가서 꼭 한번 들어봐야 겠다.

끝으로 오빠가 새내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대인 관계에서 ‘**지면서 이기는 법**’ 을 배우라는 것이다. 자기 것을 내줄 줄 알고 잘못을 먼저 사과하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멋진 대학생이라고. 그리고 4000학우의 믿음과 사랑으로 진정 아름다운,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어 가자고.

유성이 오빠 언제라도 상륙수처전 푸는 젊은 오빠가 되세요!



전자공학과 1학년
류 훈 현

4000이 함께 넘어지는 날 △▽△▽△▽△▽△▽

술자리에서의 여대생

공부에 찌들 리고 온갖 규제를 받았던 고등학교 3년 동안 꼭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대학에 대한 환상이었다. 하지만 대학 입학후 대학에 걸었던 기대는 하나 하나 날아가 버리고 지금까지의 대학의 한 단면만을 보고 달려왔던 내게 다시금 대학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의 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은 너무나 은연중에 나타나기에 깜짝 깜짝 놀라게 된다.

개강잔치 때 일이다. 난 이제야 우리 과 동기들과 얼굴을 맞대며 웃고 즐길 수 있다는 기대에 무지무지 기뻐다. 한창 개강잔치가 무르익을 때 선배들도 합류하게 되었다. 자리에 앉은 한 선배님이 “여학생들은 붙어 있지 말고 선배님들 사이사이 끼어 앉아. 그 래야 보기 좋잖아.” 라고 말씀하셨다. 난 그저 선배들이 더 친근해지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에 흔쾌히 처음 뵈는 선배들 사이에 앉게 되었다

처음에는 선배님들이 다 오빠같이 느껴지고 나의 인간 관계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유쾌했다. 그러나 그러한 유쾌한 기분도 잠시뿐 점점 불쾌감이 어딘선가 올라오고 있었다.

“야, 내 술잔이 비었잖아. 자기가 직접 술 따라 마시면 예쁜 마누라 얻긴 한다지만 내 술 따라줄 사람이 이렇게 없나?” 옆에 앉으신 선배님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난 술자리가 익숙지 않아 멍하니 그 선배만 보고 있는데, 옆에 다른 선배가 빨리 술 따라 주지 않고 뭐하냐며 웃었다. 난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에 얼른 술잔을 가득 채워드렸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선배님들이 “너 여자가 함부로 술 따르는 것 아니다. 자고로 여자란, 아버지나 남편 외에는 술 따르는 것 아니여, 하긴 천한 여자들은 아무나 에게 술 따르지만.” 라고 하시곤 막 웃는 것이다. 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했고 점점 모멸감에 얼굴이 빨갱게 상기되었다. 곁에 계신 선배님들이 눈치를 채고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과 선배는 괜찮아!” 했지만 난 어이없음에 막 울어버리고 싶었다.

외형상으로는 어떠한 사람도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대학에서조차 여학생들은 은밀하게 조여오는 것이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 인격을 찾아가야하는지 망막하다.

전자공학과 1학년

김 주 희

故 노수석 열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지난 3월 29일 전투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구타당해 숨져갔던 노수석 학우!. 스무살 꽃다운 청춘을 민족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투쟁했던 열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열사가 죽어가면서 외쳤던 대선 자금 공개, 교육재정 확보가 과연 한 청년의 죽음을 부를 정도로 정권에게 그다지도 큰 이유였을까?

6·27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무자비하게 참패당한 신한국당. 이번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여 다시 한번 정권의 재창출을 노리고 있는 신한국당에 게 커다란 걸림돌이 있다. 그것이 바로 김영삼의 대선 자금 인 것이다. 김영삼은 92년 대선 때 법정선거자금 보다 훨씬 더 많은 1조 2천억원이라는 돈을 썼다.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다. 김영삼은 이것이 밝혀 질 경우 총선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청년학생을 죽여가면서 자신의 비리를 숨기고 있다.

또한 한국 전쟁이후 정부는 선거철만 되면 꼭 전쟁 설을 유포한다.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북한의 군 병력이 휴전선으로 이동했다는 등, 북한 내부가 불안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침을 할 것이라는 등,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국민들을 긴장시켜 현시기 정권 안정이 가장 큰 쟁점이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을 조롱하고 살인까지 마다않는 김영삼 정권에게 피의 불벼락을 내릴 시기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동안 많은 열사를 보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또 한 분의 열사를 망월동의 차가운 흙속으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그분들이 자기 혼자만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4천만 민중의 진정한 자주성과 조국의 진정한 해방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노수석 열사 뿐아니라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산화해 가신 모든 열사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공과대학 여학생회 소모임을 소개합니다.

너 나 들 이

너나들이는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공과대학 여학우들의 아기자기한 삶을 엮어 한달에 한번씩 소식지 너나들이를 만듭니다. 이제 새내기 여러분의 삶을 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글 재주가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정으로 소식지를 만들거든요

어 깨 동 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따로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여학생회 토론반 소모임 “어깨동무”에서는

가정·학교·사회속에서 얽혀있는 여성문제를

500공대 여학우 뿐만 아니라

4000공대 학우들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원하는 여러분들을 여학생회 어깨동무에서는 예비역, 현역, 여학우, 남학우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소식지가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새내기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인쇄 : 재승문화사

도 서 출 판 . 논 문 . 교 지
팜 프렛 . 회 보 . 카 다 로 그
포 스텐 . 홍 보 물 . 명 함
학 생 수첩 . 기 념 품 . 각 종 인쇄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163번지
(도청뒤 대우건설 건너편 영국식당 주차장 앞)
전 화 : (062) 227-7486
FAX : (062) 227-7486

너나들이

제 14 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6. 5.



◎ 이달의 특집

- 체육대회 / 대동풀이 치르고
- 찾는자의 행운
- 5월의 의미를 되새기며

◎ 만나보고 싶었어요.

- 18번은 이브의 경고

◎ 함께 고민하는 마당

- 더이상 분노를 숨기지 않겠다.

◎ 작지만 알뜰한 공간

- 공대 여학생 휴게실

◎ 새내기의 고민

『너나들이』는요...!!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과 여학생회가 항상 너나들이가 되면 좋겠네요!!

밤이 깊어 갈수록
별 하나 동편 하늘에서 더욱 빛나고
그 별 드높게 바라보며
가던 길 멈추지 않고 걷는 사람이 있다.
거센 바람 나뭇가지 뒤흔들어도
험한 파도 뱃전에서 부서져도
자지 않고 깨어나 일어나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어둠에 묻혀 사라진 길을 열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가야 할 길 먼 길
가지 않으면 병신되는 길
역사와 함께 언젠가는
민중과 함께 누군가는
꼭 이르고야 말길 그 길을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사람이 있다.
밤이 깊어 갈수록 더욱 빛나는
별 하나 드높게 우러러보며
혁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많은 열사들을 보내야만 했던 1996년은 봄조차 찾아오지 못하고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정권을 더러운 돈으로, 삼열이의 눈으로, 민중의 피로 기어올려 여대야소로 바꾸고만 김영삼 정권의 더러운 작태에 사천만 민중의 분노는 태양보다 더 뜨겁습니다.

또한 국제법상 가장 악랄한 범죄 행위-종군 위안부-를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놈들과 정부예산에서 보상하고 대충넘겨버리자 하는 반민족적인 김영삼 정권에 대한 분노 또한 뜨겁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만 받으면 한이 없으시다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여시는 정신대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신대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걸 보실수 있도록 4천 학우 모두 열심히 투쟁합시다.

기말고사 잘 보시고 방학도 잘 보내세요.☺

'96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최기자



그동안 이렇게 살았데요!

●*공과대학 체육대회/대동풀이

-5월 2,3,4일

-우리들의 단합과 패기 그리고 청춘의 열정을 맘껏 뽐냈던 날들!!

●*승희학교

-5월 6,7,8,9일

-91년 2만학우 단결,미국 반대를 외치며 돌아가신 승희누이의 삶을 따라 배우고자.....

●*남총련 출범식

-5월 10,11일

-광주,여수,순천,목포 등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이 모두 모여 최태전의장님을 중심으로 남총련 출범!

●*5.18광주민중항쟁 16주년

-5월 18일

-작년에 특별법을 제정한데 이어 올해에는 꼭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겠죠?

●*반미의 날

-5월 22일

-이 날만큼은 커피와 콜라 마시기와 청바지 입는 것을 자제해보면 어떨까요?

●*한총련 출범식

-5월 23,24,25일

-전국의 백만학도가 모여 우리들의 조직인 한총련의 출범을 축하하고 미국 반대의 깃발을 높이 높이 !!!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열렸는데요.

●*정신대 수요집회 지지참가

-5월 29일

-올해에는 기필코 할머니들의 한을 풀겠다는 의지로 서울로 상경투쟁!

●*봄농촌활동

-5월 30,31일 6월 1,2일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 속에서 농촌 어르신들의 삶을 많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거예요

●*한총련 총결기

-6월 8일

-6.10항쟁의 정신을 이어받는 백만학도의 총결기

●*기말고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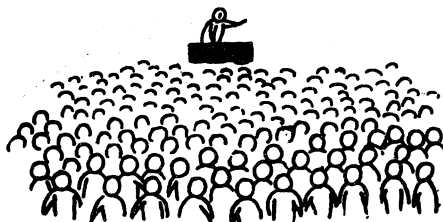
-6월 17~22일

-학점이 걱정되시는 분들! 미리 미리 공부하시면 어떨까요?

●*종강,여름방학

-6월 22일

-알찬 계획과 피나는 노력으로 방학을 보람차게!



체육대회 / 대동풀이름

치르고 나서

‘따르릉’. 어느날 걸려온 전화 한통화로 대동풀이라는 너무나 생소한 행사가 나에게 다가왔다.

“웬일이세요?” “ 어, 공연해보지 않을래? 재밌을텐데!”

“싫은데 ... ” 웬지 모를 거부감이 들어 난 한번에 거절해 버렸다.

하지만 한번 가보고 가서 결정하라는 말에 윤미와 함께 찾아간 곳은 공대내의 노래패 ‘새벽울림’이었다.

“노래요? 저 노래 못하는데 ... ”

“여기 노래 잘하는 사람없어.”

이 한마디에 속아(?) 나는 연습을 시작하게 됐다.

대동풀이 같은 행사는 항상 그냥 가서 즐기면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데에 무지 놀랐다.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일정들이 지켜지는구나’하고 말이다. 대동풀이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시험기간과 겹쳐지는 공연연습은 사실 너무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빠지기도 많이 하고 안한다고 하기도 했다. 지금은 너무 미안하다. 후회도 된다. 공연연습도 막바지에 이르고 무대도 설치되고 벽보랑 홍보자료도 붙여지고 오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월의 하늘아래 4천의 함박웃음’이라는 기치아래 5월 2일 열림제 마당이 시작되었다. 새벽울림의 공연, 문선, 북춤... 모두다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 속이 좀 상했지만 정말 신나는 하루였다. 주막과 잔디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정겨워 보였다.

5월 3일은 울림제가 있는 날이었다. 준비한 각 과에서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거였는데 공연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들 불렀다. 우리과가 타지 못해서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았다. 낮엔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이기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인지 종종 비신사적인 행위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즐기면서 함께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였다.

모두가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게 대동놀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모습들은 '정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나는 많은 체육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 느낌을 느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모두가 하나' 아름다운게 아닐까?

어느새 시간은 대동놀이 마지막 날로 흘러갔다. 하늘이 무심하셨는지 마지막날에는 오전내내 비가 쏟아졌다. 캠프파이어도 무산되고 공연들이 핑크가 나서 무지 아쉬웠다. 대신 단합제는 공대 시청각실에서 하게 됐는데 모인 사람들의 수 이상의 열기로 가득찼다.

정말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참석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 괜히 내가 민망스러웠다. 4천이 하나가 될수는 없는 걸까!. 앉아서 보기라도 하면 좋을텐데. 별생각이 다 들었다.

3일간의 행사를 끝내고 뒷풀이.

수고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익히고 서로 얘기도 하면서 보냈다.

대동놀이와 체육대회는 이렇게 끝이 났다.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맞은 대동놀이, 체육대회, 보다 적극적이지 못했던데 후회가 되고, 참여해서 함께하는 기쁨이 정말 크다는 걸 알았다. 다음에 있을 행사는 정말 4천이 함께하는 행사였으면 하는 바람을 하늘 가득 띄워 보내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컴퓨터공학과
1학년
김 난 희

찾는자의 맹운

(승희학교에 참석하고서.....)

박승희 열사

나는 이 말이 어색하다. 정확히 말해 열사라는 말에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진다. 승희언니는 열사라는 거리감 느껴지는 말보다 항상 우리 곁에서 따뜻한 웃음을 보여주며 열심히 살라고 힘을 줄 수 있는 언니, 누나라는 말이 더욱 좋은 것 같다.

벽에 붙어 있는 사진 속의 조그만 눈으로 항상 웃고 있는 언니를 보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걸 이번 승희학교에서 말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4일동안 각각 다른 주제로 열렸던 강의 내용과 그 시간마다 내가 느낀 것을 적어 보았다.

첫째날은 “미국은 왜 나쁘죠”라는 주제로 시작되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받은 교육에서 미국은 항상 우리의 우방이었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대명사로 상징되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적 풍요로움은 제 3세계로부터의 착취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요즘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작전권과 한미행정협정을 들어 보면 과연 미국을 평화의 수호자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첫날의 강사인 송갑석 선배님은 미국의 행정부는 미워하지만 미국 시민들이 추구하는 자유의 세계를 함께할 수 있고 지향하는 21c의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했다.

둘째날의 주제는 “통일은 됐어”였다.

우리나라 아니 이제는 세계적 관심이 되어있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분단의 원인부터 올바른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날이었다. 처음 이 강의를 들을 때 통일? 물음표가 붙었던 나의 생각은 통일! 느낌표로 끝이 났다. 한민족이라는 이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잘못은 없는 것 같다. 통일은 꼭 되어 한다.

셋째날은 “바보상자를 깨자”라는 주제였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바위처럼’을 작사 작곡한 유인혁 선배님이 강사가 되었다. 민중 가요의 처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나눠준 종이를 보면서 강의가 진행되었다. 도중에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무조건 박수를 쳐서 선배님의 노래를 들으니 수업이 훨씬 재미있었다. 노래라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노래가 과연 어떤식으로 불러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줬다.

넷째날은 “여성,남성 그 반쪽의 벽을 넘어”라는 주제였다.

이 날은 1,2부로 나누어서 진행했는데 1부에서는 15살에 정신대에 끌려가서 이제는 80이 가까운 나이가 되신 할머니의 증언을 듣게 되었다. 일본 경찰에게 고문 받았던 일과 위안부로서 받은 고통을 어린 학생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다며 마이크 잡은 손을 떠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다. 흘러나온 눈물을 닦으려는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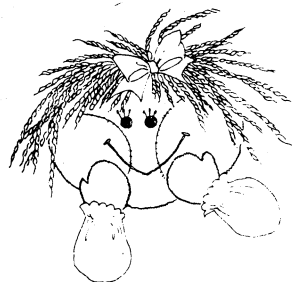
“학생들 공부 많이 해서 힘을 키워야 해. 국력을 길러야지”

너무나 많이 들어 별느낌이 없었던 이 말을 할머니를 통해서 들으니 가슴에 와 닿았다. 창피하다고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며 힘들게 오신 할머니가 무척 자랑스러웠다.

2부에서는 가정대 교수님의 강의로 본격적인 남성과 여성의 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 여성의 존재 가치를 육체적 매력과 동일시 하는 현재의 사회,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도 미가 여성의 주된 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이 정말 싫었다. 미와는 거리가 먼 나로서는 더욱 그랬다.

흔히들 대학교는 찾는자들의 것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때처럼 담임선생님께서 말해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알아서 좋은 기회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승희 학교에 참석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던 것 같다.



자동차공학 계열

1학년

유미

5월의 의미를

새로이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흔히들 사회속에서 산다고 한다. 또 역사는 유수처럼 흘러간다고 말을 한다. 사회, 역사라는 이 두 단어는 고등학교 때에는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3개월의 대학생활을 거치고 이제 대학 첫 여름방학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역사와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5월!

생각만 해도 상쾌하고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계절이다. 하지만 나의 주변의 모습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

이 도시는 5월만 되면 여기저기 5.18광주 항쟁에 대한 자보가 벽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소모임인 '불취'에서도 5.18에 대해 교양 학습을 준비했다. '하면 하지 왜 저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선배들의 권유에 5.18전야제에 함께 하기도 했지만 나에게는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사람들이 도청 주위에 개미떼처럼 몰려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려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무의식 중에 나는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대형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성이 사방을 진동했고 사람들의 함성이 내 가슴을 후려쳤다.

80년 5월 그 당시 상황이 방영되고 있었다. 화면에서 비쳐지는 상황이었지만 그 충격은 나로 하여금 5.18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없애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주위를 돌아봤다. 그런데 가슴속에 간직했던 의문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사람들의 열광의 한 목소리- 자유를 갈망하는 표정을 엿 보았다.

16년전 나는 이 곳 광주에 있지 않았지만 80년 5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쓰러져 갔는가를 생각해 본다.

진정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으랴 마는 이 곳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의 독재에 항거해 기꺼이 목숨을 내 받쳤다.

이제는 왜 5월의 광주가 푸르지만은 않는지 알 것 같다.

아직도 5월 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자로서 그리고 차디찬 땅속 망월 묘역에 있는 한 광주의 5월은 푸를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오월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 오월 영령들의 한을 풀고 신록이 가득한 오월을 전 국민과 함께 맞이하고픈 간절한 소망이 든다.



선유공학과
1학년
장미영

언니의 18번은 “이브의 경고”

(총여학생회장 박현정 회장님)

현정이 언니는 총여에서 송희가요제에 나갈 때 처음 만났었는데 언니를 예비대학때 만났다던 친구의 말대로 멋진 여자였다. 웃긴 얘기도 골잘 해주시고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정말 재주가 있으셨다.

즐거운 기분으로 언니를 찾아갔을 때 언니는 백도 앞에서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계셨다. 땀을 뻘뻘 흘리시며 고생하고 계시는데 괜히 방해는 아닐까 조금은 죄송스러웠다. 하지만 넉넉한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셨다.

언니는 1학년때 동아리, 학생회, 여기저기 잘 찾아다니는 학생이었던다. 지금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처음 참여한 집회에서는 실망을 했었다고 하셨다.

언니는 아침에 조희로 시작해서 남들과 똑같이 수업받고 종례한 뒤에 집에는 12시쯤 들어가신다고 했다. 단, 남들도 다 받는 감시의 눈초리가 조금 심하시란다.

처음 나간 미팅에서 아저씨들만 나와서 실망이 크긴 했지만 다시 나갈꺼라며 언니는 결혼은 꼭 할꺼란다. 언니의 18번은 ‘이브의 경고’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총여에서 할일은 성모순,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생긴 여성문제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라고 말하는 언니의 모습은 신체 사이즈는

비밀이니까 절대 묻지 말라고 하실텐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진지한 모습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정신대 문제 해결을 돕고자 요즘 뛰고 계시다며 정신대 할머니들의 힘든 투쟁과 어려운 삶의 이야기들, 수요 집회에 대해 말씀해주시며 29일 수요집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하셨다.

집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집회의 형식을 반대하는 입장일 뿐 내용은 공감할꺼라며 집회의 형식을 새로운 형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셨다.

남들보다는 자기의 부족을 먼저 반성하는 언니의 모습이 더 든든해 보였다. 우리 공대 학우들이 뭘든 열심히 하고 단결도 잡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성인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일에 정신이 없는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뛰는 언니같은 이들이 있어 세상이 돌아가는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컴퓨터공학과
1학년
김난희

더 이상 분노를 숨기고 있진 않겠다.

지난 5월 4일 우리는 또 한 번 김영삼정권에 대한 분노를 삼켜야 했다. 때로는 순진하게 때로는 조국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생활하고 투쟁하던 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장삼열 학우가 집권 안정화에 혈안이 된 김영삼정권의 공안의 칼바람에 오른쪽 눈을 실명당한 것이다.

우리는 올 상반기동안 많은 열사들을 차가운 흙 속으로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열사의 피의 절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사람의 청춘이 날아가 버린 것이다.

도대체 왜! 김영삼 정권은 그토록 우리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일까? 4년동안 현 정부는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계속적으로 국민의 민의를 무시한 채 문민독재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리하여 국민의 분노를 누적시키게 만들었다. 김영삼이는 자신의 불리한 집권 말기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 많은 민주인사를 구속해 들어가고 항상 올바른 말만을 하는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우리 대학만해도 학생회활동을 정리하고 유학 준비중인 사람, 군에 갈려고 하는 사람, 취업준비중인 사람들을 현 학생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구속했다. 또한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 한총련에 대해 친북성향이라는 말로 모략수사를 하는 등 대규모적인 공안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자신의 왕국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눈에서 벗어나는 가시들을 쳐버릴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과정 중에 삼열이가 오른 쪽 눈을 빼앗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이제 김영삼 정권에 대한 분노가 한데 모아져야 한다. 그 동안 폭압속에 억눌려지내왔던 모든 민중의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

우리의 친근한 벗이었던 수석이,헤인이,영권의 외침!

그리고 삼열이의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보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너져 내리는 검은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김영삼 정권의 공안의 칼바람을 4천만 민중의 단결의 방패로 꺾어내려 민중 승리의 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공대 여학생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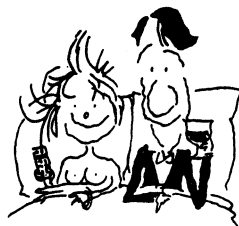
같이 한 번 들어가 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2층 침대 2개가 나란히 있고 중앙에는 소파와 탁자
여기저기 선전물이 부착된 이 곳은 흡사 신혼방을 방불케 한답니다.
학우들이 아프거나 마땅히 쉴 곳이 없으면 이곳을 자주 찾는데요 물론
남학생은 사절이구요

그런데 왜 여학생 휴게실만 있고 남학생 휴게실은 없나요?
남학생들은 아무데서나 누울 수도 있지만 여학생들은 피곤하고 아프면 잔
디밭에 함부로 누울 수 있나요? 학생회실에 맘 편이 누울 수 있나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편협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이제 아셨어요?

그런데 요즘 휴게실이 몹시 몸살을 앓고 있더라구요.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고 이불도 정리하지 않고 더군다나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이니만큼 조용히 해야 되는데 도무지 신경 쓰지 않
더라구요.

여학생 휴게실은 개인 전용물이 아니라 500여학우의 쉼터니까 서로
를 위해 조금은 양보하고 깨끗이 사용하는 게 좋지않을까요? ☀





이름: 나미영
 나이: 20
 대학교 1년
 관심사: 남자, 화장, 옷, 기타등등
 좌우명: 잘살는게 복수다!
 이게 나다.

새내기 의 고민

글: 그립 조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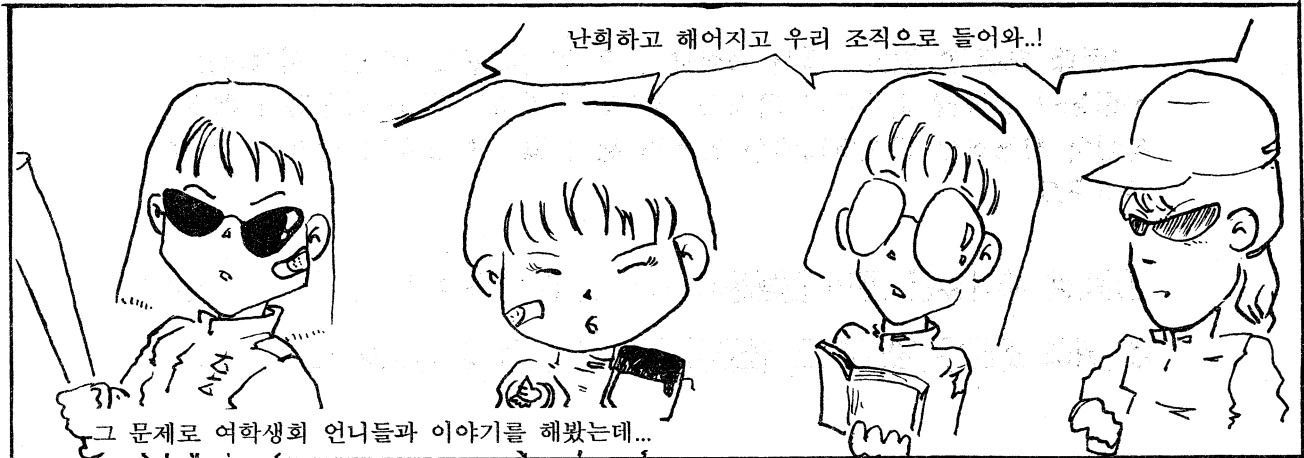
잘나가던
 내게 갑자기
 고민이 생겼다.



하나는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강유성...



또 다른 하나는
 떨어진것 처럼 느껴지는 난희와의 관계



난희하고 헤어지고 우리 조직으로 들어와..!

그 문제로 여학생회 언니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난희와
 직접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작가주
 → 진화기



여보세요!
 난희구나
 할 말이 있어서...
 요즘 우리 사이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서 말이야!

나도 그런 느낌이 든게
사실이야! 만나면 너는
언제나 남자
애기 뿐이
였잖아!

어머
그랬어!
그럼
말을 하지...

하지만 너도 마찬가지로!
맨날 정세가 어찌니
사회가 어찌니
하면서 모를
소리만
했잖아!

나는 대학생이라면
그런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우리 친처럼
사이 좋게 지낼수
있는거지? 그런
의미에서
소개팅
한번
안할래..?

그러지 뭐
그럼 내일 보자.

그럼
안녕!

다음날
하교

오락거주
→ 몽룡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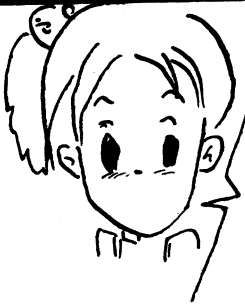
난희가
잘 하고 있겠지?

난희 좋아!

5.18 광장 :
강학중

남자를 만나고
있을줄 알았는데..?

난희의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저렇게 진지한
모습은
처음이야



왜일까
난희가
어른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내가
왜
난희에 비해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것지?



난 대학에 와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고작 남자를
만나려고
온것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진정한 대학인이라면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이들을 사랑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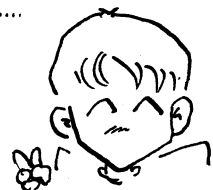
사회, 정세의 민감하고 불의를 보면

분노를 느끼는 청년학도

그것이 바로 이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지성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THE END

인쇄 : 재승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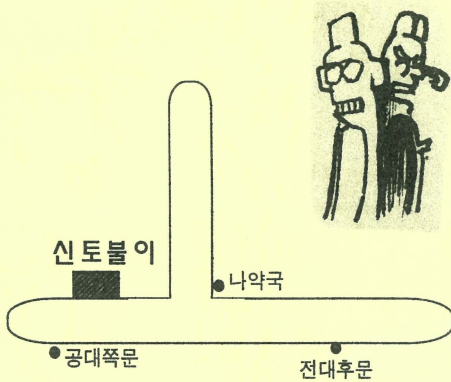
도 서 출 판 . 논 문 . 교 지
팜 프렛 . 회 보 . 카 다 로 그
포 스텍 . 홍 보 물 . 명 함
학 생 수 접 . 기 념 품 . 각 종 인 쇄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163번지
(도청뒤 대주전설 건너편, 영국식당 주차장 앞)

전 화 : (062) 227-7486
(062) 228-8442
FAX : (062) 227-7486

신토불이

- 민속주점
- 점심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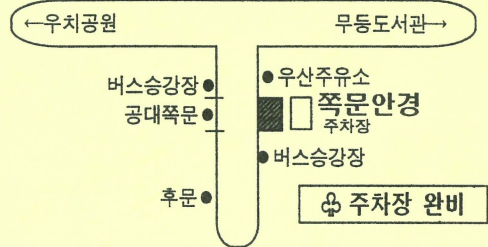
▶ 전대후문 ☎ 265-1323



언제나 밝고 좋은날
쪽문안경 콘택트

한 영 돈

♡ 학생들은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시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전대공대쪽문버스노선 : 6.7.8.9.10.14.37.51.52.106.110.126번

▶ 전대공대쪽문앞 ☎ 268-9333

꽃 나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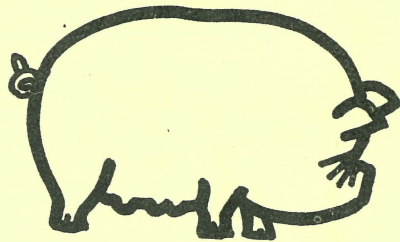
flowergarden

- 한송이꽃 · 꽃다발 · 꽃바구니
- 동양란 · 서양란 · 화분
- 축하화환 · 근조화
- 연회행사 · 웨딩 꽃장식
- 웨딩 부케 · 야외촬영 부케 · 과일바구니
- 전화 주문 환영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52-1(전대후문과 쪽문사이)
☎ (062) 265-3373, B.B 012-624-3374

진양식육식당

■ 삼겹살 전문 ■



▶ 전대공대쪽문위

너나들이

제 15 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6. 9.



◎ 이달의 특집

- 여름농활을 다녀와서
- 성폭력 그 해결을 위해
- 연세대의 악몽속에서

◎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 '성 폭력' 잘못 인식 많다.

◎ 함께 고민하는 마당

-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

◎ 시사토막

- '떡키탕'이 '증기탕'이 되면
뭘가 달라지나?
- 과다노출 왜 말?

◎ 작지만 알뜰한 공간

-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추천하고 싶은 책

『너나들이』는요...!!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과 여학생회가 항상 너나들이가 되면 좋겠네요!!

창과 방패

-영광 주민 조선태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은 탓하지 않는데
더럽게 변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누구 덕분에 권좌에 오르고
누구 덕분에 영원한 민주투사로 추앙을 받는데
군부 독재에서도 보지 않은 최루탄 헬기 살포,
삼국지의 조조 계략같은 군량미를 차단하는 비열한 방법으로
굶겨서 두드려 잡는 조작한 처사에 분노합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듯 쓰러진 학생의 어깨를 잡고
팔십년대를 넘어온 학생운동의 전과물을 자신들의 공적으로 이적시키고
고래심줄같이 질긴 삼대 군부독재를 잡아 뜯어낸 민주시민과 학생의 업적을
역사 바로 세우기란 채권을 발행하여 유무형 성과를 차압해 갔으면 되었지
쓸어 버린다니요
총기를 사용 한다고요
단추시대) 쌀 듯 단물은 쪽 빨아먹고 쫄것이는 내뺨어버리는 배반을
전임 청권에게 했으면 되었지
천문학적인 정치자금 선거자금 받아먹고 야합했다가 걷어차버렸으면 되었지
유신 투쟁, 개천 투쟁, 노동 투쟁, 청권 투쟁, 반 독재 민주화 투쟁 등을 같
이 해온 동지를 막다른 사지로 몰아 넣다니요
창을 겨누다니요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여기 창을 막는 방패가 있소
올바른 판단을 하는 국민이 있소
당신에게 준 단추시대가 하나라면
국민과 역사 앞에 바친 단추시대는 수 천개요
고문과 감금과 탄압과 압제속에서 얻어낸 승리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고 역사의 재단에 고이 바쳤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도 두렵지 않소
이미 당신은 독재권력의 선악과를 따먹었음으로
우리시대에 독재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당신의 원죄는 계속 될 것이요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역사는 바로 써는 것입니다

1단추시대 : 배고픈 시절 어린애들이 빨아먹던 달짝지근한 수수대

시원한 바람이 여름내 축 늘어져있던 용봉골을 다시 활기차게 합니다.

또한 새학기를 맞는 2만학우의 눈빛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 음은 왜일까요?

한총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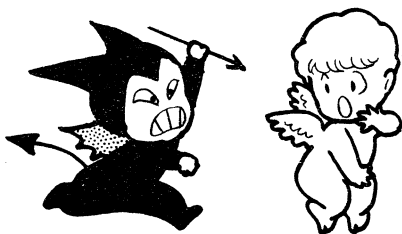
용공 이적 세력.....

좌경 폭력 세력.....

우리의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표이고 100만의 힘으로 건설한 우리의 조직 한총련을 언론이, 김영삼 정권이 아무리 매도해도 백만학우는 잘 알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여성 영화제를 통해, '청년아! 그대 가는 길이 역사다' -용봉대동풍이를 통해 그리고 학생회 선거를 통해 사천 학우의 단결된 힘모아 한총련을 꼭! 지켜냅시다.

2학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6공과대학 여학생회장
최기자

짜장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와 ‘시사 토막’이라는 새로운 코너와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즉시 즉시 연락주세요...

그 동안 이렇게 살았데요!?!

● 여름방학

*6월 22일

*알찬 계획과 확실한 실천으로 보람차게 보내셨죠?

● 여름농활

*7월 4일 ~7월 12일

*감동인들이 되서 돌아왔지만 마음만은 아 기뻐라!

● 성폭력근절을 위한 2만 학우 토론회

*7월 23일

*성폭력근절의 의지 하나로 모인 여러분의 열띤 토론의 장

● 휴전협정체결일

*7월 27일

*43년전 우리나라 허리가 미제에 의해 동강 잘려진 슬픈 날

● 전여대협 수련회

*7월 29, 30일

*전국의 내노라는 여학단위간부가 모두 모여 토론과 단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여학단위 화이팅!

● 북구지역, 남총련 통일축전

*8월 3일, 8월 6일

*모두 모두 모여서 통일을 위해 한걸음씩, 한걸음씩!

● 범민족대회

*8월 13~15일

*폭압한 정권에 정의로 맞선 역사에 길이 남을 96년도 연세대
항쟁이여!

● 개강

*8월 26일

*2학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

● 여성영화제

*9월 9~11일

*수준높은 영화도 보고 기념품도 타고, 일석이조!

● 2차 공대학생 대표자 회의

*9월 10일

*1학기를 평가하고 2학기 사업을 향해...

● 2차 전체학생 대표자 대회

*9월 11일

*500대의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죠.



그리고 유령계 살거예요!

▣ '청년아, 그대가 가는 길이 역사다'

용봉대동풍이 ; 9월 18일~21일

▣ 가족, 진척과 함께

추석 ; 9월 26일~28일

어름농활을 다녀와서.....

8박 9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꽤히 승낙을 얻기는 무리였다. 난 농촌의 현실을 느끼기 위해 또 지금의 나의 삶에 반성을 하기 위해 농촌봉사활동을 가야 한다고 부모님을 설득하였다. 나의 말에 부모님은 신중히 생각을 하시더니 8박 9일의 농촌활동동안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오라며 승낙하셨다.

우리 섬유공학과에서는 영광군 군남면 동월리로 농촌봉사활동을 갔었다. 그 곳은 봄 농활때에도 왔는데 낯설게 느껴지기는커녕 오래전부터 내가 생활해온 곳처럼 느껴졌다. 그건 아마도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곳의 생활은 다른 농촌의 생활보다 바쁘게 돌아갔다. 왜냐하면 경지정리를 해서 원래의 일정보다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그 곳에서 우리가 한일은 뜬모작업과 고추밭에서 실 엮고 잡초제거하기, 감자 수확, 담배밭에서 담배잎 따기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담배잎 따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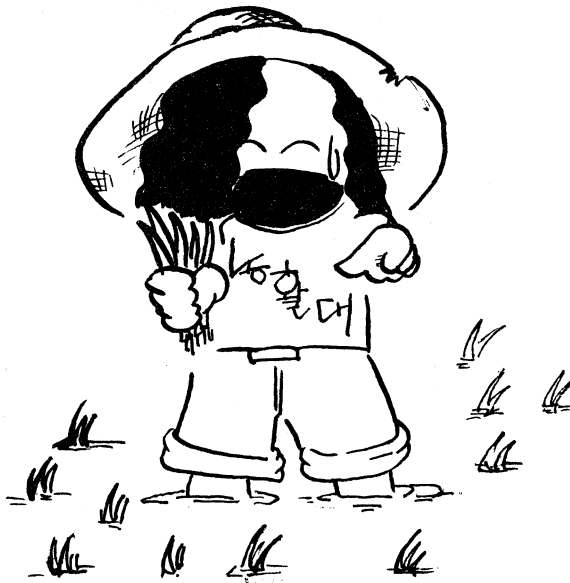
그 곳의 현실도 다른 농촌의 현실과 비슷하였다. 청장년층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리고 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노인들 뿐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단 몇일간 농사일을 하는데 그 어르신들은 평생을 흙을 일구며 살아왔는데 힘들다고 젊은 우리가 먼저 지칠 수는 없어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기도 하였다. 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머님, 아버님하며 따르자 그 분들도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고 밤이면 숙소를 찾아와 불편한점이 없나 살피고 돌아가시곤 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제일 인상깊은 일은 내가 유년반일을 맡았는데 동네 꼬마들이 나를 잘 따라 준 일이다. 처음에는 정을 주려하지 않고 서먹서먹했는데 몇 일이 지나자 서로 친해졌고 지금은 서로 편지도 주고 받고 있다. 몇 일전 나의 꼬마 친구에게 편지가 왔다. 그 편지에는 그 동안 쌓인 정이 담뿍 담겨있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고 꼬마 친구들이 보고싶어졌다.

그리고 우리의 농촌활동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서는 잔치가 열렸고 마을 어르신들은 돈을 모아서 돼지를 잡아 우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였

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잘 해주는 마을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 나는 나의 글의 마지막을 이렇게 쓰고 싶다. 무리나라가 모두가 다 잘사는 나라가 될려면 먼저 우리의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김영삼 대통령의 식용쌀 수입, 이것은 우리의 농촌을 죽이는 일이다. 그가 농촌에서 흉작 한 번이라도 싸워본 사람이었다면 식용쌀만은 수입저지 할텐데...

식용쌀 수입 반대!



-글 : 섬유공학과 96학번 이 수남

그림 : 조철희

성폭력 그 해결을 위해

무더웠던 7월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다.

서울 S여중 3학년이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남아를 출산했다는 내용이였다. 또한 충남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소녀 가장이 3개월 동안 마을 주민 10여명으로부터 무려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일기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한 사건도 있었다. 이 밖에도 안산 유치원 원장의 집단 성추행 사건이다 신양 중학교 학생 성추행 사건 등 심지어 교육 현장에서까지 성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최근의 이러한 성폭력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자신이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우리의 **부실한 성교육**이 이런 사건을 방치한 커다란 원인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성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교육 자료는 정자, 난자가 만나고 아기가 발달해가는 과정, 그리고 피임등 단순히 해부학적 생리적 변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어 큰 의미의 성교육은 성에 대한 개념이 문제점이 아닐까 싶다. 성은 사춘기에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겪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에 관한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것, 심리적인 면등이 삶과 밀착하게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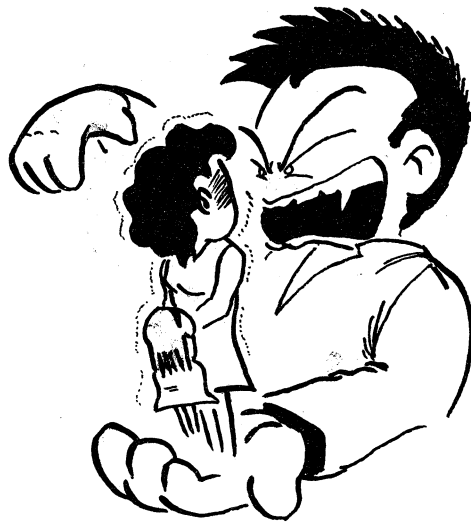
또 다른 이유로는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사회와 이웃의 무관심과 언론의 선정 보도**도 등도 한 몫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등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고통이나 성폭행의 심각성을 보도하기보다는 폭행당한 여성들을 오히려 평소 품행이 단정치 못한 문란한 여성으로 매도, 왜곡시키는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여성들에게 언론도 역시 공범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의 가부장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피해자 여성을 오히려 더 비난하는 집단 의식, 성폭행을 당하고도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사회의 억압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한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지금도 고통 받고 있을 여성들은 남이 아닌 자신의 동생, 자신의 딸이라 생각한다면 어떨까?

과연 그렇게 생각해도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신경질 부리는 이웃이 있을까? 어린 학생들을 성추행한 교사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옹호하고 용납하는 학교나 교육청이 있을지…….

성교육의 시급함을 절실히 깨달은 정부가 내년부터 성교육 교과서를 펴내 초등학교부터 교육시킨다는 발표를 얼마전에 했었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이 용감하게 나설 수 있고, 주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 조성, 조기 성교육으로 성에 대한 무지를 없애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건 해결의 시작이 아닐까?



-글 : 섬유공학과 96학번 정숙향

그림 : 조철희

연세대의 악몽 속에서

아직도 악몽을 꾸니다.

내가 무슨 범죄자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계속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얼굴도 볼 수 없는 그 누군가들에게 붙들려 끌려가는 내 모습.
아무도 없는 어떤 건물에 갇혀 혼자서 일주일을 계속 보내는 내 모습.
끝도 끝도 알 수 없는 골목을 헤매이기만 하는 내 모습.
어딘가에서 헬기소리가 들려와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 이내 선풍기소리
임을 알고 안도하는 내 모습.

그 날은 전쟁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곳 저곳 골목에 처박혀 있는 학생들을 끄집어가는 전투경찰, 우리가
마치 적이라도 되듯 발길질, 곤봉세례를 보지도 않고 마구 휘둘러대는
전투경찰, 기자들만 없으면 그저 기회를 틈타 욕과 폭력을 행사하
는 그들.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총련이 정말 북한의 사주를 몰래몰래 받고서 그 지침대로 행동한 빨
갱이인지, 그래서 시위에 참가한 학생은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
고 성추행을 해도 되는지, 취업문제에도 일정한 제지를 받아야 되는지,
잘못하면 실명되고 죽기까지 한다는 시위진압 무기의 위협을 받아야 하
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허나 한가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는 누구나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그들을 처
별할 권리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분노스럽고 화가 나는 것은 아무리 정권이 보았을 때 우리가 빨
갱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때리고 짓밟고 가슴 만지고 성추행할
권리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입니
다.

밥 먹으러 갈 때도 기어갔으며 수 없는 구타를 당해야 했다던 선배의

말을 들으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듣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친구의 글을 보며 몸서리치는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김영삼정권이 그의 따까리들의 성추행조차 처리하지 못한다는 건 성폭력문제의 해결의지가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며 한숨을 쉬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납니다. '바른말하는 학생들 다 잡아가고 적자가 150억달러를 넘어서고 중국 쌀 수입 전면 개방되고 나라꼴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하시며 김영삼정권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까지 팔아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쓰러지기 전에 우리 백만학도와 4천만 민중이 함께 하여 김영삼정권 타도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공대 익명의 한 학우가
그림 : 조철희

‘성폭력’ 잘못 인식 많다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시켜 성폭력을 유발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일부 남성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남성들은 이것이 잘못된 인식인 줄은 모르고 자신들이 짜 맞춘 남성우월주의 하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기만 한다. 이와 관련, 전주 성폭력 예방센터가 그 동안 피해자 154명을 대상으로 상당한 결과를 분석해 일부 시민들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8가지를 제시했다.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피해자 가운데 48%가 본인의 동의없이 성적인 신체접촉, 성기노출, 성적농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들 모두가 엄연한 성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성폭력은 20대 젊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난다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31%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들로 나타나 오히려 젊은 여성보다는 어린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상당한 150여명의 피해자 중 60%이상이 성폭행당할 당시 바지 등을 입고 있는 등 심한 노출이라곤 찾아 볼 수 없었다.

◎성폭력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당한다

-상당자 중 80% 이상이 직장동료나 이웃사람 등 평소 아는 사람들이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성폭행 당하는 여성들은 극도의 공포감과 수치심 때문에 저항보다는 무력해지기 쉽다.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은 ‘남자는 억제할 필요가 없다’ 또는 ‘그 순간 충동적이었을 뿐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넘기려 하는데 이런 억지는 우리사회에 팽배한 남성우월의식 때문에 일어난다.

◎여성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

-상담자 가운데 40%가 귀가길이나 직장동료들과 함께 놀러 갔다가 성폭행 당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조심성의 한계가 모호하다

◎강간범은 정신 이상자다

-강간범 중에는 남달리 성격이 포악한 등 비정상적인 사람이 더러 있는게 사실이나 가해자 가운데 68%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폭력에 관한 인식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제 그리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을 하루빨리 없애서 성폭력 피해자는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남성, 여성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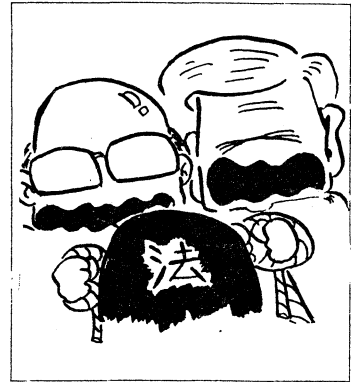
진정한 역사바로세우기

얼마전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있었다. 쿠데타를 성공한 두 장본인이 법정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된 모습을 기쁘다고 해야할까? 민망하다고 해야할까?

흔히, 이번일을 '역사 바로세우기', 혹은 '잘못된 과거청산' 이라고들 한다. 비록 진실이 밝혀지는데 16년 이란 긴 시간이 걸렸지만, 난 이를 두손 들고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의 재판이 몇가지 오점을 남기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수 많은 시민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5·18 관련 대다수 항목에 무죄를 선고 함으로서 검찰 스스로 **이번재판이 다분히 정치적 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직도 5·18 광주 민중 항쟁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안이한 모습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또 한가지는 이번 일을 해나가면서 너무나도 **반성의 분위기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특히 두 장본인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려드는 모습이나 태도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말로 너무하고 기가 막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국민모두에게 조금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 자신은 이러한 모습을 보았기에 두 전직 대통령으로 향하는 조금의 측은하다는 마음하나 줄 수 없었다.

지금 내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당시에 그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현모습과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너무나도 섭섭한 면이 너무 많았기에 앞으로 이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이 엄숙하고 중요한 잘못된 과거청산의 큰 테마를 모든 국민이 동화될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갔으면 한다.**

‘터키탕’ 이 ‘증기탕’ 되면 뭐가 달라지나?

얼마 전 이수성 국무총리는 말썽 많은 터키탕의 이름을 ‘증기탕’으로 고쳐 부르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터키 대사관쪽에서 보낸 항의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 취해진 조치이다. 윤락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터키’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터키 국민들이 느낄 모욕감을 생각해서 그 명칭을 증기탕으로 바꾼것이란다.....

언뜻 생각하면 대단히 친절하고 애타심이 많은 조치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증기’또는 ‘탕’이라는 말에서는 알몸의 이성 목욕 보조자와 알몸의 남성이 함께 있는 추치스런 장면이 전여 풍기진 않는다는 말인가. 터키탕이 갖는 ‘퇴폐성’을 고쳐 대중탕이 지향해야 할 ‘건전함’을 살린다면 터키 국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버린 이 ‘증기탕’.

무민정부판 ‘정신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과다노출단속 왜 말?

며칠 전 과다노출 단속 방침이 보도되었다. 보도를 접한 여성들은 대부분 경각심을 갖기보다 비웃으며 기분 나빠하고 풍기문란의 근본 원인이 마치 과다노출에 있었다는 듯이 여성에게 탓을 돌리는 것에 대해 화를 내기도 한다.

여름동안 실컷 눈노기를 했던 남성들은 말한다. 정말 노출 심한 여성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며 그냥 길을 가다가도 노출이 심한 여성을 보면 충동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며 더 나아가 성폭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몰고가기도 한다.

이번 과다노출 단속방침은 여성과 남성을 우습게 만들었다.

여성도 여성은 칠칠치 못하게 벗고 다녀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공권력이 관여해 주겠다는 것이고 남성은 건전한 의식과 이성이 마비된 존재이므로 자극적인 요소를 줄여줘야만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풍기문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광고와 대중매체의 음란물을 제지시키는 좀 더 효과적인 부분에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도둑이나
잡지
수영하는 나를
여 잡아와!



글 : 한겨레 신문 발취
그림 : 조철희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추천하고 싶은 책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껍데기를 벗고서 3’

: 선배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었다.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기 쉬운 성, 사랑을 둘러싼 고민, 취업과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지표를 정립하고 성숙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식과 연결하여 조언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껍데기를 벗고 거듭나기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

☀소설로 보는 여성의 삶과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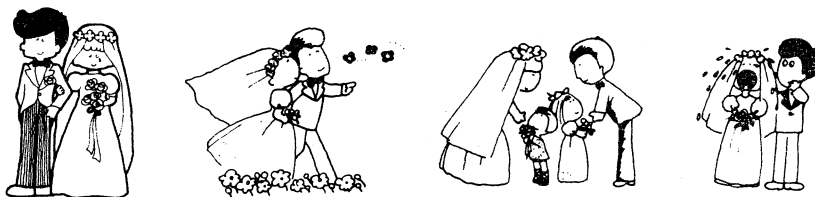
풍금이 있던 자리

: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성들이 가하는 슈무형의 폭력과 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여자들의 심리와 아픈 자각을 여성적 글쓰기 양식을 통해 보여준다.

사랑하는 슈부남과 해외 도피를 계획했던 미혼 여성이 겪는 미세한 심리적 변화를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잘 표현하고 있다

『풍금이 있던 자리』의 여러 편의 단편소설이 있다.

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송우



개강맞이 선물 대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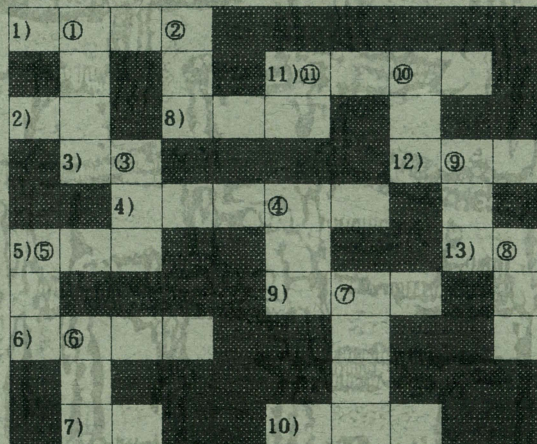
아래의 낱말풀이를 맞추셔서 공과대학 여학생회실(공대 5호관 2층)으로 가져오시면 추첨하여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가로풀이)

- 1)공대 여학생회 소식지이름,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
- 2)전쟁이 일어나는, 교전하는 지역
- 3)심청이 아빠는 심○○.
- 4)매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통일행사
- 5)이번 한총련 사태가 일어났던 대학
- 6)그 나라의 영토와 권력을 넓히기에만 목적으로 하는 주의
- 7)새가 하늘을 날 때 쓰는 말,또는 저에 머리는 너무 ○○○하고 영리해.
- 8)바람에 의해 꽃씨가 멀리 흩어지는 국화과의 꽃으로 '○○○꽃처럼'
- 9)애견가들이 제일 중요하는 음식, 당!
- 10)며칠전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나라.
- 11)일곱번 실패해도 여덟 번 일어난다?
- 12)광주민중항쟁
- 13)청년의 특징은 ○○○에 민감하다고 하지요

세로풀이)

- ①북한에서 떠오르는 무역지. 며칠전 무역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인 20명만 초청받았대요
- ②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 ③우리학교 단과대학 중 예비교사들이 공부하는 단과
- ④대학내의 정보, 홍보, 선전은 이걸 통해서 얻지요
- ⑤한총련 통일방안이 북한과 같은 ○○○라서 친북세력이라죠?
- ⑥정부는 이번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예산을 12% 증가시켰어요
- ⑦왕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컴플렉스
- ⑧○○○과 3000궁녀
- ⑨○○○ 푸른 솔은 늙어 늙어 갔지만...
- ⑩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
- ⑪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김영삼이 며칠전 방문했다고 떠들썩했지요



자주여성 민주남성 큰 잔치

†† 성교육학교

- 9월 19일, 20일 늦은 3시 30분
- 경영대 소강당 또는 사범대 소강당
- 강사 윤혜신(광주 여성의 전화)

†† 여성영화제

- 9월 19일, 20일 1시, 3시, 5시
- 백도 시청각실 또는 흥도 시청각실

〈1 시〉

플레오, 5시에서 7시까지

〈3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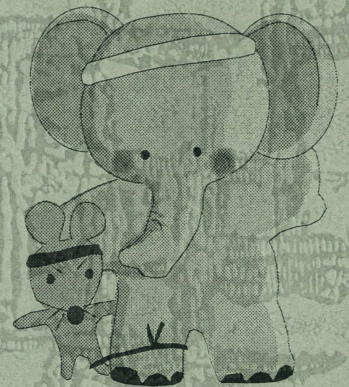
그녀 이름은 베트남

〈5 시〉

룩셈부르크

†† 체육대회

- 여학우, 남학우 혼성경기-쌍쌍 발야구
- 여학우 경기-단체 줄넘기와 줄다리기
- 접수기간 : 9월 9일~13일
- 접수처 : 총여학생회-각단대 여학생회
- 경기일시 : 9월 18일~21일



너나들이

제 16 호

발행 : 공과대학 여학생회

일시 : 1996. 10.



- ◎ 이달의 특집
 - 진정한 용봉인의 모습
 - 명절이란 과연 무엇인가?
 - 하나가 되는 자리
(총여학생회 체전을 하고.....)
- ◎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 '또 미군 범죄냐?'
- ◎ 함께 고민하는 마당
 - 악령처럼 되살아나는
안기부법 개악
- ◎ 시사토막
 - 제도가 없으니 뒤통이가 있나!
 - 여성은 사람 대접도 못 받는 나라
우리나라?
- ◎ 작지만 알뜰한 공간
 - 방이요!!

『너나들이』는요...!!

“터놓고 지내는 사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과 여학생회가 항상 너나들이가 되면 좋겠네요!!

오리라! 반드시 그날은 오리라.....
이 땅 한반도에 피끓는 투쟁이 있는 한
해방의 그날은 오리라
피눈물 흘리며 우리는 형제인 전경에게 끌려가지만
적은 그들이 아니라
악독한 군사파쇼와 미제국주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슬프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애국청년으로
해방의 그날을 이 나라 백성에게 돌려주기 위해
피로써, 온몸으로 투쟁하리니
동지여! 투쟁이다, 복수다
해방의 민주주의 그날을 위해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핏빛 눈초리로 저들을 응시하며
흐르는 피를 씻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박자

자궁에 콜라병과 우산대가 꽂힌, 눈뜨고는 보지 못할 참혹한 시신 윤금이 누이를 조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얼마전 목이 반쯤이나 잘린 채 처절한 살인을 당한 또 한명의 식민지 조국의 딸을 보게 됐습니다.

이기순씨!

그녀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닌 식민지를 살아가는 이 땅 민중의 처절한 삶입니다.

이런 민중들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김영삼정권을 다시 한 번 돌아봅니다. 청년 학생의 당연한 “조국 통일”외침을 폭력 집단 경찰을 이용해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공안 정국을 형성해 백만 학도를 빨갱이로 매도하더니 어떤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정권이 언론을 이용해 곧 전쟁이 날 것처럼 떠들썩하며 전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만학도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조국을 지켜내는 건 한총련을 지키는 것이고 한총련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우리 학생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4천학우 모두 과 회장님을 믿고 참다운 공동체 자주적 학생회를 굳건히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여학생회 또한 학우들의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96 공과대학 여학생회장
최기자

그 동안 이렇게 살았네요!?!

›용봉대동풍이

*9월 18일~21일

*용봉 2만 학우와 광주시민이 모여 하나됨의 자리를 만들었던 날!

›추석

*9월 26일~29일

*오랜만에 가족,친지와 함께 송편을 맛있게...

›총여학생회 강연회

*10월 9일

*'21c취업과 상'이란 제목으로 사회진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셨지요.

~ ~ ~ ~ ~

그리고 이렇게 살거예요!!!

›故 이기순씨 노제

*10월 11일,동두천

*억울하게 돌아가신 故 이기순씨의 명복을 빕니다.

›2학기 중간고사기간

*10월 14일~19일

*학점관리는 미리미리!

›공과대학 민족과학기술강연회

*10월 24일

*민족과학을 연구하는 우리 공학도들에게 필수적 강연!

㉸공대 학내 청소의 날

※10월 25일

※우리의 학원은 우리의 손으로...교수님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죠?

㉸윤금이 누이 5주기 추모제

※10월 28일

※주한미군에 의해 너무도 잔인하게 돌아가신 우리의 누이,윤금이 누이여!

㉸한총련 총궐기

※11월 1일

※백만학도의 힘과 지혜로 파쇼정권 김영삼정권을 타도하자!

㉸학생회 선거

※11월 14일

※97년도를 이끌어갈 우리의 대표체를 뽑는 가장 민주적인 날!?

진정한 용봉인의 모습

지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용봉대동풀이제가 있었다.

고등학교 때 '축제'라 하면 연극을 잘하는 애들이 연극을, 노래 잘부르는 애들이 중창. 합창을 그리고 무용부 애들이 무용솜씨를 한 것 자랑하는, 소수만이 누렸던 것이었지만 자유로움이 불쑥 풍겨나는 대학에서 처음 맞이하는 축제란 약간의 설렘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주로 정문 근처에서 행사가 대부분이었고, 공대 주변은 너무나 썰렁해서인지 첫날은 지금이 대동풀이기간인지 실감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둘째 날부터 돌아다니면서 놀기 시작했는데 용지에 보트가 뜰거라며 한 선배가 학기 초부터 말하는 걸 들었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기분이 묘해짐을 느꼈다.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와 전두환의 얼굴이 그려진 곳에 닥트처럼 핀을 던져 맞춰서 그들에 대한 사무친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또, 한쪽에선 나무판자를 세워 그 곳의 구멍에 얼굴만 내밀게 하고 불풍선을 터뜨리는 건 지난 1학기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우리 학우들의 열띤 장기자랑의 무대도 있었다. 전남인들의 숨은 재능이 정말 그 어떤 가수나 댄서들 못지 않게 잘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한 쪽에선 노래 부르고, 풍선던지며 놀 때 대운동장 주위 백열등아래에선 선, 후배나 동기들 사이에 한 잔씩 어우러질 수 있는 주막이 빙 둘러 진을 치고 있었다. 봄에 공대에서 체육대회를 치를 땐 몇 개 과만 주막을 해서였는지 외관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여러 단대가 하니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이 꽤 보였다.

하지만, 반성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무질서했던 것 아닌지.....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렇겠지만 조금만 발을 움직여도 사람에게 치이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으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진 않았는지.

진정 우리가 용봉인과 광주 시민이 하나가 되는 자리에서 정말 2만 전대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 번쯤 되돌아봄은 어떨까?

섬유공학과
96학번
노은아

“명절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아름다운 미풍양속’, ‘즐거운 가족 축제’ 등의 상투적인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명절이란 이러한 것보다는 노동의 연속이라고 보고 싶다. 그러다 보니 명절이 다가오면 까닭 없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몸살을 앓는 이른바 ‘명절 증후군’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증후군의 대상이 여성이라는 게 큰 문제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가부장적 형식에 묶여 있는 데서 오는 문화적, 심리적 괴리가 점차 더 심해져 남성들이 부엌에 들어가 음식 장만하는걸 도와 주기는커녕 부엌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하는 현상이다 보니 명절 고유의 가치 퇴색은 물론 여성들의 중노동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차례를 지낼 때 남녀 역할의 차이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눈에 남녀 차별과 남아선호관을 심어주는 역기능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명절문화를 바로 잡아가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가장 큰 문제인 ‘**여성만의 음식장만 문화**’를 **남녀 구분없이 온 가족 성원이 공유하고 분담**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명절만 되면 먹기만 하고 TV를 보거나 아니면 밖에 놀러 나다니고 지치면 잠을 청하던 그런 습관이 배인 남성들이 부엌일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 부엌 설것이부터 시작해 음식 만드는 것도 하나 하나씩 배워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불필요한 상은 되도록이면 차리지 않았으면 한다. 즉, 차례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현 상황은 너무 겉치레에 달하는 음식장만이다보니 명절에 드는 비용이나 일손이 배로 들어간다. 이것 또한 개선한다면 명절 노동 부담이나 차례상 준비시간을 줄여줄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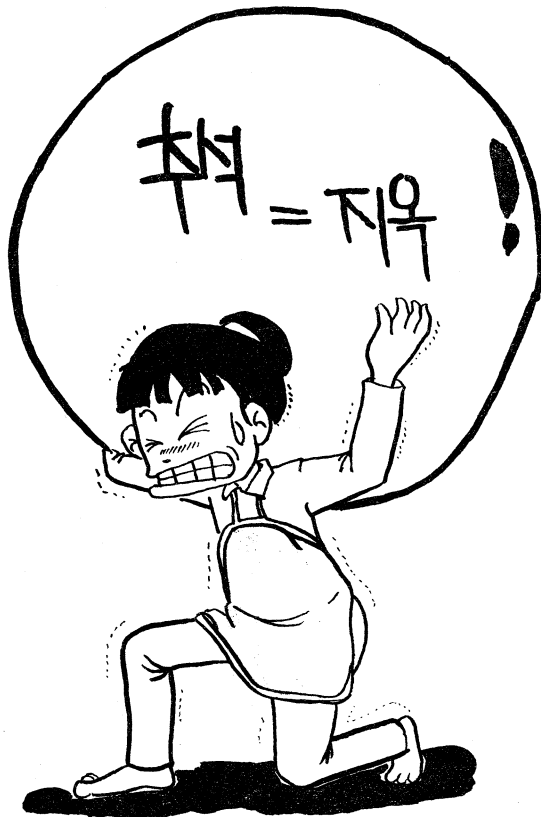
또 한가지 대안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명절의 부엌풍속인 ‘포트럭(Pot Luck)’ 식 상차림도 권하는 바이다. 여기서 ‘포트럭’ 식 상차림이란 명절 때만이 아니라 큰 행사가 있을시 음식을 각자 집에서 장만해 와서 차려놓고 먹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음식상을 가운데 놓고 서로 만든 음식평을 하며 먹는 여유뿐만 아니라 여성도 온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재미를 만끽하는 ‘주역’으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직장을 가진 여성들에 있어서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도 조상님께 남성과 같이 인사드리는 풍속을 만들어 가야 한다.** 물론 남존여비 관념이 깊게 배인 제사 문화에 여성이 끼어들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관습일 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이런 관습은 시대에 역행함으로서 사사건건 문제만 일으킬 것이다. 즉, 현 시대에서의 제사는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고로 여성은 죽어라고 일하는데 정작 차례를

지낼때는 아무 한일 없이 찾아든 남성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그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도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차례 지낼때의 성차별을 없애 주는 한가지방법일 것이다.

또 한가지 명절을 꼭 시댁에서만 보내지 말고 **친정집에서도 보냈으면 한다.** 명절만 되면 딸만 가진 친정 부모님들은 한탄하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딸들이 모두 시댁으로만 가고 친정집은 못 오는 경우가 다반수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친척집에서도 겪는 경우이다. 그분들은 명절때마다 ‘딸만 가진 부모가 죄여.’ 라며 연거푸 얘기하시곤 한다. 이렇다 보니 집에 항상 찾아올 아들을 낳는 이른바 ‘남아 선호사상’ 이 더욱더 생기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 시댁에서만 지내지 말고 친정에서도 지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젊은 여성들의 이기심이나 지나친 피해의식으로 돌리려는 젊은 세대의 생각이 명절문화의 바람직한 측면마저도 부인하는 쪽으로 흐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제사문화를 긍정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생활 속의 지혜를 통한 자연스럽게 슬기로운 변화를 창출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전기공학과
'96학번
김철중

그림 : 조선이

이내가 되는 자리

(총여학생회 체전을 하고...)

해 년마다 광주시민과 2만 용봉인이 하나되는 자리였던 용봉대동풀이가 올해로 44주년을 맞이 하였고 '청년아! 그대 가는 길이 역사다'라는 기치로 힘있게 진행되었다.

총여학생회에서든 비록 총여회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지만 각 단대 여학생회와 남녀공학 성원들이 힘을 합쳐 순탄하게 행사진행이 되었다.

총여학생회에서 했던 행사로는 성교육학교, 진정한 페미니즘을 보여주는 여성영화제, 체육대회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체육대회는 총여에서 기대를 많이 걸고 처음 시작하는 야심작이었다. 항상 시작이란 두렵기도 하고 뭔가 설레임으로 시작되는 것 같다.

총여학생회 심판을 맡게 된 나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차례차례 여학우들을 만나고 그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다.

약 6팀 정도로 경기를 할 과가 정해졌고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쌍쌍발야구의 예선도 거치게 되면서 드디어 여학우들의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제일 단합을 요구하는 단체줄넘기에서는 이를 악다물고 행어나 자기 때문에 줄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한발 한발 뛰는 그 모습을 볼 때 난 내 가슴도 같이 뛰고 있음을 느꼈다.

줄다리기 또한 가관이었다. 잔뜩 긴장한 얼굴로 상대편을 응시하면서 젓먹던 힘까지 발휘하는 그 모습이란 가히 신기할 정도다.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양쪽 남학우들의 팽팽한 응원도 시작되고 줄다리기에 뛰어든 여학우들은 영차영차 소리를 지르며 애를 쓴다. 자그마한 것에도 최선을 다하려는 여학우들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좋았다.

제일 재미있으면서 팽팽한 긴장이 매 순간마다 존재하는 것은 바로 쌍쌍발야구다. 자기 짝의 손을 꼭 붙들고 흑시나 놓칠까봐 손에 땀이 나도록 뛰는 모습은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모습도 보였다. 더욱 더 멋있는 모습은 우연찮게 상대편과 부딪혀 넘어지게 되었을 때 질세라 먼저 사과하고, 경기하는 모든 성원이 '죄송합니다'를 합창으로 말하였을 때 단체 경기의 멋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다.

아마 경기하는 모든 학우들도 이런 맛으로 하지 않을까 싶었다.

비록 경기의 우승은 단 몇팀에게만 돌아가지만 진정한 승자는 정정
당당하게 경기를 해내고 단결하고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했던 모든
팀이 아닌가 한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없고 여러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총여학생회 체전이 내년,내후년 계속해서 학우들
과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잡아나갔으면 한다.

총여학생회 체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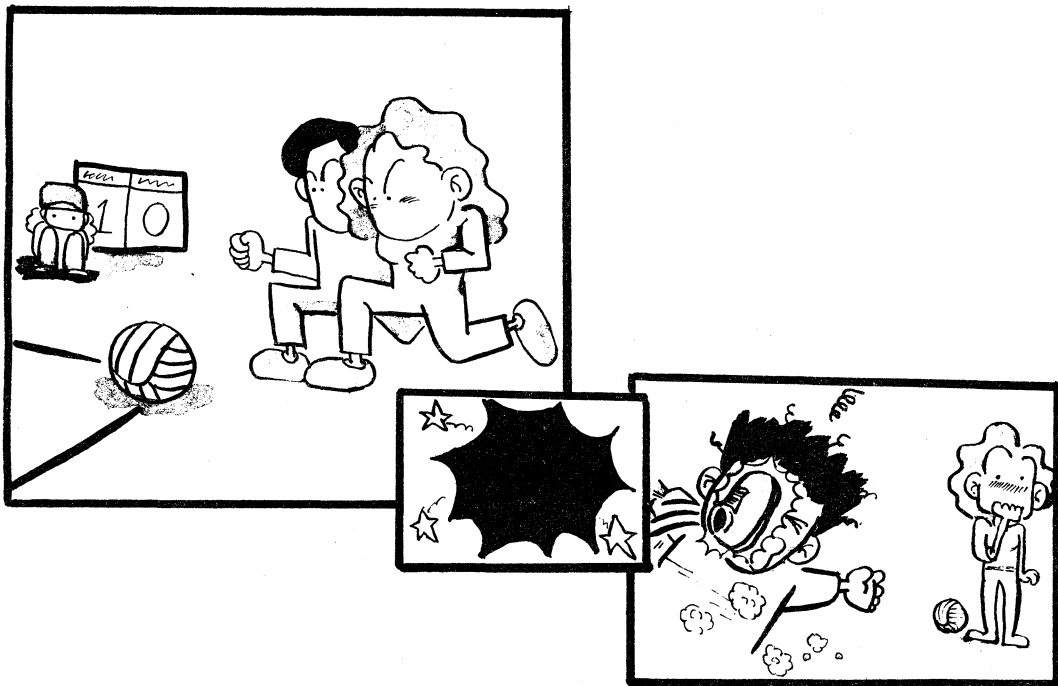


그림 : 조선이

또 미군 범죄야?

지난 9월 7일 동두천 시에서 기지촌 여성인 이기순씨가 연필깎는 칼로 목이 반쯤 잘린 채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범인은 한국 근무가 3주밖에 되지 않은 동두천 케이시부대 소속 스티븐 이병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븐 이병은 사건 당일 새벽 4시 30분경 술에 취해 인근 유흥가 이씨 셋방에 찾아갔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씨한테서 욕을 듣는 등 면박을 당하자 격분해 이씨의 얼굴을 때려 실신시킨 뒤 흉기로 목을 세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의 잔인성과 참혹성을 보면서 주권을 가진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울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현행 한미행정협정상 한국 경찰은 살인자에 대한 신변은 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미행정협정이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서,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 군대나 그 구성원은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 질서를 따라야만 하지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국가 안보등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받게 되고, 그것은 해당 국가와 미군간에 행정협정체결로 보장된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의 편의제공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불평등하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살인 사건의 원인은 한 미군 병사의 개인적인 잔혹함이나 파렴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주한 미군 주둔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렵듯이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때 벽에서 보았던 대자보가 기억난다. 새파랗게 젊은 미군이, 조선처녀의 몸을 우산대로 항문에서 식도까지 찌르고 그것만으로 부족해 자궁에 콜라병을 박아 죽이고 하이타이로 몸을 씻겨 남아있는 모든 지문을 없애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바로 92년 윤금이 씨 살해 사건이다. 그녀를 살해한 미군은 살인죄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살고 있다고 한다.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지 51년,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미명아래 반세기가 넘게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은 하루 평균 5건, 연평균 2200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나마 밝혀져 지상에 공개되는 것은 전체 만행건수의 5-6할에 불과 할 뿐, 거의가 배일에 가려져 있다고 한다. 이렇듯 주한 미군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군범죄에 대한 0.7%의 재판권 행사율은 얼마나 우리 정부가 미군범죄를 거의 방치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실제 일선 경찰서에서는 공정한 수사는커녕 피해자들을 무마하기에 급급하여 심지어는 신고접수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마찰을 일으켜 한국의 국가이익이 손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부분을 감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군부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은폐, 방치해온 정권의 태도는 주권에 대한 의지도 민족의 자존심도 없는 듯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정부가 사대 굴욕적인 모습으로 국민의 짓밟힌 자존심과 생명을 외면한다면 우리 국민의 커다란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주한 미군이 철수되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섬유공학과
96학번
정숙향

그림 : 조선이

악령처럼 되살아나는

안기부법 재약

법이란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간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순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공신력을 갖으려면 구성원 모두가 수긍해야 되며 구성원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헌데 지금 여러 악법들이 악령처럼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 안기부법!

안기부법 개정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 전제 조건으로 지난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개정국가보안법 제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기부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김영삼정부는 93년 12월 문민정부의 이름으로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일부(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불고지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안기부법을 개정했다.

안기부법 개정은 92년 4.12총선 때 발생한 안기부 대공수사국 직원들의 흑색선전물 살포사건이 도화선이 되기도 했지만, 국가 안전기획부가 국가안보보다 정권안정에 치중해온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김 대통령의 인식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안기부의 제가리 찾기는 김영삼 정부의 대표적 개혁조치로 평가되었다.

신한국당 이흥구 대표는 안기부법개정 방침과 관련해서 " 한총련 사태와 고정간첩 판수사건 등을 통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지만 예로 판수 사건을 들면, 올 6월 체포 될 때까지 12년동안이나 간첩으로 암약했었는데 93년 대공수사권이 축소되기 이전의 안기부는 무엇을 했단 말이야.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움직임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므로써, 여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와 대공수사권 확대가 간첩보다는 학생사범을 겨누고 있다는 점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정부와 여당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더라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안기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기능 이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기부는 보안법 사건 수사과 관련해서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와 변호인 접견불허 사생활 침해 등 갖가지 인권침해를 한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아 왔다. 그리고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안기부직원이 처벌받은 일이 없다.

집중된 권력은 남용되기 쉽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일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방이요!!

지난 9월 9일부터 11까지 공대 5호관 VTR실에서 여성영화제를 상영하였다. 첫날 '뮤지엄의 웨딩' 둘째날 '바그다드 카페' 셋째날 '레이퍼스트'를 상영했는데 둘째날 5시 30분에 상영했던 '바그다드 카페'는 갑작스런 영사기 고장으로 중도에 상영이 되지 못했다.

많은 학우들이 아쉬움을 남기고, 더러는 눈물까지 흘렸다는 뒷소문도.....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구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상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영화제를 관감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은 '너나들이'에서 '개강맞이 선물 대잔치'를 마련해 5명의 학우들이 10 :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된 학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등-화학공학과 95 고주영
- 2등-컴퓨터공학과 96 박정현
- 3등-공업화학과 96 서봉은
- 4등-선유공학과 95 양유진
- 5등-환경공학과 96 김경수

모두들 축하해요!

인쇄 : 재승문화사

도 서 출 판 . 논 문 . 교 지
팜 프 랫 . 회 보 . 카 다 로 그
포 스텐 . 흥 보 물 . 명 함
학 생 수 섭 . 기 념 품 . 각 중 인쇄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163번지
(도청위 대주전실 건너편, 영국식당 주차장 앞)
전 화 : (062) 227-7486
(062) 228-8442
FAX : (062) 227-7486